

짜이왈라에서 총리까지

목차, 서문, 10장, 에필로그



김경진

Korean PDF edition

짜이왈라에서 총리까지

김경진

바드나가르의 짜이왈라 소년 나렌드라 모디가 RSS 조직가, 구자라트 주총리, 인도 총리 3연임 지도자로 성장한 궤적을 따라 현대 인도의 정치·경제·외교와 한국-인도 관계를 읽는 정치 평전입니다.

목차

서문: 인도를 안다는 것의 무게

제1장. 바드나가르의 소년 (1950-1970)

제2장. 조직의 설계자 (1971-2001)

제3장. 구자라트의 황제 (2001-2014)

제4장. 뉴델리 입성: 모디노믹스 (2014-2019)

제5장. 힌두트바 실현: 모디 2기 (2019-2024)

제6장. 글로벌 리더십

제7장. 한국과 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제8장. 인도에 뿌리내린 한국 기업

제9장. 인도의 한류

제10장. 3연임과 2047년의 꿈

에필로그: 짜이 한 잔의 거리

서문: 인도를 안다는 것의 무게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14억 명.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된 인도의 인구입니다. 2023년 중국을 넘어선 이 숫자는, 그러나 인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도에는 공용어가 22개 있습니다. 힌디어와 영어를 공용으로 쓰지만, 남부의 타밀나두주에서는 힌디어 간판을 걸면 항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종교는 힌두교가 80%를 차지하지만, 이슬람 인구만 해도 2억 명이 넘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헌법상 폐지되었으나, 결혼과 취업과 선거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하나의 나라라기보다 하나의 대륙에 가깝습니다. 델리에서 통하는 상식이 뭄바이에서는 통하지 않고, 방갈로르의 비즈니스 문화와 콜카타의 비즈니스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나라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GDP 기준 세계 4위에 올라섰고,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UPI라는 통합결제 시스템은 2025년 한 해에만 거래 건수 2,28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실시간 디지털 결제의 절반을 인도가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동네 노점상이 QR코드로 결제를 받는 나라. 길 건너편에서는 소가 느긋하게 도로를 건넵니다. 이 장면이 동시에 성립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구자라트주 바드 나가르역 플랫폼에서 짜이를 팔던 소년이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가 되어, 2024년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현대 인도의 핵심 구조가 드러납니다. 카스트, 힌두 민족주의, 경제 자유화, 디지털 혁명, 외교 전략. 한 사람의 궤적 안에 한 나라의 변화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에 관한 이야기는 늘 두 가지 서사 사이를 오갔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넥스트 차이나"라는 낙관론과 "정전, 관료주의, 노사 갈등의 나라"라는 비관론.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둘 다 인도의 한쪽 면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인도에서는 A와 B가 동시에 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도 커지고,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면서 문맹률도 여전히 높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면서 권위주의적 경향도 강해집니다. 이 모순을 모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 자체가 인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이해가 시작됩니다.

이 책은 모디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악인으로 그리지도 않습니다. 구자라트 폭동의 그림자와 구자라트 모델의 성과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디지털 혁명의 성취와 민주주의 후퇴의 우려를 함께 서술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야말로, 복잡한 나라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한-인도 양국의 교역 규모는 269억 달러에 이릅니다. 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5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이다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인도 증시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습니다. 550여 개 한국 기업

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향후 20~30년간 한국에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 이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를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하게 바라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서울에서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1장. 바드나가르의 소년 (1950-1970)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1.1 플랫폼 위의 소년

구자라트주 바드나가르(Vadnagar)역. 새벽 5시에 눈을 뜬 소년이 양은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짜이 잎을 넣고, 우유를 붓고, 설탕을 녹입니다. 기차가 도착하면 2~3분이 전부입니다. 그 사이에 가능한 한 많이 팔아야 합니다. 한 잔에 10파이사. 하루에 잘 팔면 2루피. 소년의 이름은 나렌드라 다모다르 다스 모디(Narendra Damodardas Modi). 훗날 14억 인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7일. 인도가 공화국 헌법을 시행한 지 불과 8개월, 분단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점에 소년은 태어났습니다. 바드나가르는 2,000년 넘는 역사를 품은 고대 도시였습니다. 한때 불교 학문의 중심지로 번성했고, 7세기 중국 승려 현장(玄)이 이곳을 방문하여 “아난다푸라(Anandapura)”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힌두 사원들이 곳곳에 자리했지만, 20세기 중반 이 마을에 남은 것은 영광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주민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겨우 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디가 태어난 집은 약 40피트 길이에 12피트 폭, 한국식으로 환산하면 약 4평 남짓한 흙벽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어 낮에도 어두웠고,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하면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장마철에는 지붕에서 비가 새어 바닥이 질퍽해졌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부모와 여섯 남매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을 청했습니다. 가난은 이 가정의 배경 음악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인도에서 가난은 흔합니다. 수억 명이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자랍니다. 그렇다면 어쩌서 이 소년만 달랐을까요? 무엇이 그를 기차역 플랫폼에서 뉴델리의 총리관저까지 밀어 올렸을까요?

그 답의 첫 번째 실마리는 카스트에 있습니다. 모디의 가문은 ‘모드-간치(Modh-Ghanchi)’라는 카스트에 속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짜서 파는 직업 카스트였으며, 인도 정부 분류로는 ‘기타 후진 계급(OBC, Other Backward Class)’입니다. 불가촉천민(Dalit)은 아니었지만, 상층 카스트가 장악한 정치·행정·교육의 세계에서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이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골 가난뱅이 아이도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에 가고 판검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 다. 인도의 OBC 출신이 총리가 된 것도 비슷한 서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개천’은 노력으로 뚫을 수 있는 벽이었지만, 인도의 카스트는 태어나는 순간 몸에 새겨지는 낙인에 가까웠습니다. 상층 카스트 출신의 네루(Nehru)와 간디(Gandhi) 가문이 독립 이후

수십 년간 인도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그 견고한 벽을 뚫고 올라왔다는 점이, 훗날 모디가 대중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과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수억 명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버지 다모다르다스 물찬드 모디(Damodardas Mulchand Modi, 1915?~1989)는 원래 기름을 짜는 가업을 이어받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여섯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드나가르 기차역 플랫폼 한쪽에 나무 판자와 양철 지붕으로 열기설기 엮은 노점을 펼치고 짜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1887년에 개통된 메사나-바드나가르 철도 노선은 하루 몇 대의 기차만 정차하는 시골 노선이었지만, 그 몇 분 동안 몰려드는 승객들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어린 나렌드라는 여섯 살 무렵부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짜이를 끓이고, 뜨거운 주전자를 들고 객차 창문으로 달려가 “짜이! 가람 짜이!(따뜻한 차!)”를 외쳤습니다. 기차가 정차하는 2~3분은 전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전을 받고 찻잔을 건네고, 거스름돈을 돌려주고, 다음 창문으로 뛰는 것을 기차가 떠날 때까지 반복해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다시 역으로 달려갔고, 나중에는 형과 함께 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별도의 노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추적하는 관점에서 이 기차역은 노동의 현장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차는 인도의 모든 계층이 뒤섞이는 용광로입니다. 소년 모디는 짜이 쟁반을 들고 수많은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땀 냄새 나는 농부, 뭍바이로 가축을 운송하는 상인, 뺨뺨한 정장의 관료, 군복을 입은 병사. 그는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능적으로 체득했습니다. 구자라트어가 모국어였던 소년은 우타르프라데시와 비하르에서 온 상인들에게 차를 팔며 힌디어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이 ‘플랫폼 언어 학습’이 없었다면, 훗날 그가 힌디어로 인도 전역을 사로잡는 연설을 할 수 있었을까요?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열다섯 살 소년은 전선으로 향하는 군인들에게 무료로 짜이를 대접했습니다. 아홉 살 때는 타피(Tapi) 강 홍수로 이재민이 발생하자, 친구들과 음식 가판대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했습니다. 이 일화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모디의 ‘짜이왈라(Chaiwala, 차 파는 사람)’ 서사가 정치적으로 부각된 것은 2014년 총선을 앞두고였기 때문입니다. 국민회의당(Congress)의 마니 샨카르 아이야르(Mani Shankar Aiyar)가 “그는 짜이나 팔면 된다”고 조롱하자, BJP 선거 캠프는 이를 뒤집어 ‘차이 페 차르차(Chai Pe Charcha, 차 한 잔의 대화)’라는 캠페인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서민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정치적 무기로 재가공된 것입니다. 짜이왈라 서사가 사실인지 과장인지를 단정하기보다는, 그 서사가 인도 정치에서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히라벤 모디(Hiraben Modi, 1923~2022)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 빨래와 설거지를 하며 가게를 보냈고, 그러면서도 이웃의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모디는 훗날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히라벤이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총리 3선을 바라보는 아들은 어머니의 발에 이마를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인도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기차역의 소년에게 이 어머니는 가난이라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모디는 성적이 두드러지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에서 남달랐습니다. 웅변과 연극. 그는 무대 위에서 왕이나 전사 같은 영웅적 캐릭터를 맡는 것을 고집했고, 주연이 아니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기차역에서 찻잔을 씻는 소년이었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제국을 호령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방과 후에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가장 오래 손에 든 책은 스와미 비베카난다(Swami Vivekananda)의 전기였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이 구절은 흙바닥 위에서 등유 램프 빛에 의지해 책을 읽던 소년의 가슴속에 하나의 명령어처럼 새겨졌습니다. (비베카난다가 모디의 세계관에 미친 영향은 1.4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난 속에서도 모디는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다리미가 없었기에 낫쇠 컵에 숯을 넣어 교복을 다렸고, 친구가 버리고 간 분필 조각을 모아 캔버스화를 하얗게 칠했습니다. 이런 세부적 행위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가난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훗날 그가 매 공식 석상에서 완벽하게 다려진 옷과 정돈된 수염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정치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덟 살, 운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년은 마을의 민족의용단(RSS, Rashtriya Swayamsevak Sangh) 지부 모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RSS는 쉽게 말해 힌두교판 향우회 같은 조직입니다. 다만 회원이 수백만 명이고, 매일 아침 체조를 하며, 인도는 힌두교 국가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향우회입니다.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대나무 봉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는 소년들 사이에서, 나렌드라는 처음으로 ‘조직’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카스트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동지라는 RSS의 원칙은, 하층 카스트 출신 소년에게 사회적 차별 없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멘토 락슈만라오 이남다르(Lakshmanrao Inamdar)를 만납니다. (이남다르와의 관계는 1.3절에서 상세히 서술합니다.)

기차역의 짜이 연기와 RSS 지부의 체조 구령. 이 두 가지가 소년 모디의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가르쳤고, 다른 하나는 신념을 심었습니다. 가난은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대중의 언어를 체득하는 학교였습니다.

1.2 떠난 신랑

1968년 어느 날, 바드나가르의 한 집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열여덟 살 나렌드라 모디, 신부는 열일곱 살 자쇼다벤 치만랄 모디(Jashodaben Chimanlal Modi). 간치 카스트의 관습대로 두 사람은 이미 어릴 때 부모들끼리 약혼을 맺어놓은 사이였습니다. 결혼식은 짧았고, 화려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신랑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한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부’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 모디는 결혼을 거부했을까요? 겉으로는 RSS 전임 활동가(Pracharak, 프라차락)가 되기 위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프라차락은 독신을 유지해야 했고, 가정에 대한 일체의 세속적 유대를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여덟 살 소년이 조직의 규율만으로 아내를 버리고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 결정의 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차역에서 찻잔을 씻으며 보낸 유년, 카스트의 벽 너머를 갈망했던 독서의 시간, 비베카난다가 심어놓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명령. 결혼이라는 사적 유대는 그 모든 것을 향한 도약에서 닳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쇼다벤은 관습에 따라 시댁에 머물렀지만, 모디는 그녀와 부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자쇼다벤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곳으로 떠돌 것이다. 당신이 나를 따라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시댁에 갈 때마다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약 3년에 걸쳐 그녀가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총 석 달 남짓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스스로 학업을 이어갔고, 1972년 중등교육 자격을 취득한 뒤 교사가 되었습니다.

구자라트 바나스칸타(Banaskantha) 지구의 시골 학교에서 89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생을 보냈습니다. 2014년, 남편이 총리가 된 후에도 그녀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호원 없이 오토릭샤를 타고 다녔고, 선거 때는 줄을 서서 투표했습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구자라트 운자(Unjha) 에서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월 연금은 1만 4천 루피, 한국 돈으로 약 22만 원입니다.

이 결혼 이야기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모디의 지지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포기'로 해석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버리고 국가에 헌신한 수행자의 결단이라는 서사입니다. 모디 자신도 "나에게는 가족이 없다. 14억 인도 국민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열일곱 살 소녀가 아무런 합의 없이 버림받았고, 남편은 수십 년간 그 결혼의 존재조차 부정했다는 사실은, '헌신'이라는 포장 아래 가려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디가 결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2014년 총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서였습니다. 46년간 침묵했습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결혼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면 모디는 RSS 프라차락이 될 수 없었고, 프라차락이 되지 못했다면 BJP에 배치되지 못했을 것이며, BJP에 없었다면 구자라트 주총리도, 인도 총리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입니다. 권력의 궤적을 추적하면, 이 '비밀 결혼'은 모디 정치 경력의 구조적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결혼식 직후 모디는 집을 나섰습니다. 1967년이라는 설도 있고 1968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본인조차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책 한 권만을 챙겨 바드나가르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인도 북부와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방랑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 2년은 모디의 인생에서 가장 신비로운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시간(The Lost Years)'이라 불리는 이 기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은 모디 자신의 회고와 몇몇 전기 작가들의 간접 증언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서술은 불가피하게 '모디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먼저 밝혀둡니다.

그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콜카타(Kolkata) 근교의 벨루르 마트(Belur Math)였습니다. 비베카난다가 세운 라마크리슈나 선교회(Ramakrishna Mission)의 본산입니다. 모디는 이곳에서 승려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스와미 마다바난다지 마하라즈(Swami Madhabanandaji Maharaj)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육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거절당한 청년은 콜카타를 떠나 서벵골을 지나고, 아삼(Assam)의 구와하티(Guwahati)와 실리구리(Siliguri)까지 동북부 인도를 떠돌았습니다. 그 후 다시 방향을 바꿔 히말라야 산록의 알모라(Almora)에 있는 아드바이타 아슈람(Advaita Ashrama)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구자라트의 라지코트(Rajkot) 라마크리슈나 미션 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세 번의 거절. 이 연속된 거절이 모디의 인생 항로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벨루르 마트가 그를 받아들였다면, 오늘의 모디는 갠지스 강변에서 기도를 올리는 무명의 승려였을 것입니다. 거절은 때로 운명이 방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사범학교 교사로 머물렀다면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김대중이 사업가로 성공했다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궤적에서 '좌절된 꿈'은 다른 방향으로의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용수철이 됩니다.

승려가 되지 못한 청년은 히말라야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시케시(Rishikesh), 케다르나트(Kedarnath) 등 힌두교의 성지를 순례하며 사두(Sadhu, 고행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얇은 옷 하나로 버텼고,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탁발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가 훗날 회고한 바에 따르면,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강물에 목욕하고, 해가 뜰 때까지 명상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했다. 산과 눈과 높은 봉우리 속의 세계가 나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방랑이 모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 시기에 인도의 광활함과 참혹한 빈곤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병든 아이를 안고 구걸하는 어머니를 보았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산속의 명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깨달음이 그때 찾아왔습니다. 둘째, 극한의 고행은 그의 신체와 정신을 단련했습니다. 하루 4~5시간만 자는 습관, 새벽 요가와 명상, 물질에 대한 극도의 절제는 이 시기에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라지코트에서 만난 스와미 아트마스탄안다(Swami Atmasthananda)가 건넨 한마디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너의 길은 사원 안에 있지 않고, 사회 속에 있다.” 사원이 소년을 거부했기에, 소년은 세상 전체를 사원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1969년 말 혹은 1970년 초, 모디는 구자라트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바드나가르에 잠시 들렀으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구자라트의 중심 도시 아마다바드(Ahmedabad)였습니다. 그 곳에서 삼촌이 운영하는 구자라트 주 도로교통공사(GSRTC) 구내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RSS 본부인 헤드게와르 바반(Hedgewar Bhavan)의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히말라야의 추위가 그의 몸을 단련했고, 세 번의 거절이 그의 방향을 틀었고, 비베카난다의 가르침이 그의 사명을 규정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적 유대를 끊은 자리에 조직이라는 공적 헌신이 들어앉았습니다. 소년은 플랫폼을 떠났고, 청년은 히말라야를 넘었습니다. 이제 조직의 설계자가 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운자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늙어가는 자쇼다벤은, 이 서사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1.3 카키 반바지를 입은 아이들

1958년, 구자라트주 바드나가르의 먼지 날리는 공터. 해 질 무렵이면 카키색 반바지를 입은 소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열을 맞춰 서고, 구령에 맞춰 움직이고, 사프란색 깃발 아래서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여덟 살 나렌드라 모디가 그 대열의 끝자락에 끼어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모디가 발을 들인 곳은 ‘민족의용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이하 RSS)’의 지역 지부 모임인 ‘샤카(Shakha)’였습니다. RSS를 한국 독자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힌두교판 거대 향우회이자, 보이스카우트와 예비군 훈련이 결합된 형태의 조직입니다. 다만 회원이 수백만 명이고, 매일 아침 전국 각지에서 모여 체조를 하며, 인도라는 국가가 힌두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조직입니다.

RSS의 뿌리를 잠시 짚어봐야 합니다. 1925년 나그푸르(Nagpur)에서 케샤브 발리람 헤지와르(Keshav Baliram Hedgewar)가 창설했습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헤지와르는 힌두 사회가 카스트로 분열되고 외세에 짓밟히는 현실에 분개했습니다. 그가 세운 조직의 핵심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힌두 사회의 통합. 둘째, 규율 잡힌 풀뿌리 조직. 셋째, 개인이 아닌 조직 중심의 운영. 지도자 한

명이 쓰러져도 조직은 계속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원칙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RSS는 약 600만 명의 활동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자원봉사 조직으로, 인도 전역 5만 7천여 개 샤카에서 매일 아침 모임을 진행합니다.

바드나가르에는 1944년부터 RSS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1948년 마하트마 간디 암살 사건 이후 정부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간디를 암살한 나투람 고드세(Nathuram Godse)가 전직 RSS 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RSS는 공식적으로 암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고, 이후 조사에서도 조직 차원의 연루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금지는 1949년 해제되었지만, 조직은 서서히 재건되고 있습니다. 소년 모디가 샤카에 합류한 것은 바로 이 재건기였습니다.

형 소마바이(Sombhai)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렌드라는 항상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과 학교에서 하는 일상 이상의 무언가를요. RSS 샤카가 바로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어린 모디에게 샤카는 놀이터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가난한 동네의 소년이 처음으로 태권도장에 발을 들인 것과 비슷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다만 이 도장에서는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단련했습니다. 매일 저녁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엄격한 순서를 따랐습니다. ‘수리야 나마스카르(Surya Namaskar, 태양 경배 요가)’로 몸을 풀고, ‘라티(Lathi)’라고 불리는 대나무 봉술을 연마하고, 카바디(Kabaddi)와 코코(Kho-Kho) 같은 팀 스포츠로 체력을 다졌습니다. 땀이 마르면 일렬로 서서 사프란색 깃발(Bhagwa Dhvaj)을 게양하고, “나마스테 사다 바트살레 마트리부메(Namaste Sada Vatsale Matrubhume, 영원히 사랑하는 조국이며, 당신께 경배합니다)”라는 기도문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이 기도문은 어린 모디의 입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오며 그의 언어와 사고 체계를 빚어다녔습니다. 학교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힌두 문명’의 서사, 외세에 짓밟힌 조국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 가난한 찻집 아들이라는 현실은 샤카 안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상위 카스트인지, 누구네 집이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규율만이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층 카스트(OBC) 출신 소년에게 처음으로 자존감을 심어준 해방구가 된 이유입니다.

운명의 스승, 바킬 사헤브

모디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락슈만라오 이남다르(Lakshmanrao Inamdar). 변호사 자격이 있어 ‘바킬 사헤브(Vakil Saheb, 변호사 선생님)’라는 존칭으로 불렸던 이 사람은 구자라트 지역 RSS의 ‘프란트 프라차라크(Prant Pracharak)’, 즉 지역 전임 활동가를 총괄하는 거물급 간부였습니다.

이남다르는 1920년 카르나타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법학을 공부했지만 변호사 개업 대신 RSS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자라트를 순회하며 RSS 조직을 확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바드나가르를 방문했을 때 유난히 눈빛이 살아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훈련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소년은 남아서 훈련장 바닥을 쓸고 깃발을 정리했습니다. 이남다르는 이 소년을 ‘발 스와얌세박(Bal Swayamsevak, 소년 단원)’으로 정식 입단시켰고, 이후 평생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남다르와 모디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RSS의 독특한 멘토링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RSS에서는 재능 있는 젊은이를 발견하면 ‘마나스 푸트라(Manas Putra)’, 즉 ‘영적 아들’로 삼아 집중 육성합니

다. 이남다르에게 모디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디의 친아버지 다모다르다스가 기차역에서 생계를 꾸리는 현실의 아버지였다면, 이남다르는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인생의 태도를 가르친 이념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남다르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인도는 가난한가?”, “힌두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는 책을 추천해주고, 토론을 유도하며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얻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조직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기술. 훗날 모디가 보여준 탁월한 대중 장악력과 선거 전략의 원형은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모디는 훗날 스승을 기리며 『조티푼지(Jyotipunj, 빛의 무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남다르를 “내 인생의 궤적을 빚어낸 조각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남다르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기차역에서 짜이를 팔던 소년은 기차역에서 짜이를 파는 어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사와 헌신: 조직의 부품이 되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자라면서 모디의 RSS 활동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소년 단원들의 리더 격인 ‘무키아 시크샤크(Mukhya Shikshak, 수석 교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또래와 후배들을 통솔하고, 출석을 관리하며,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책임을 지는 자리였습니다. 열서너 살 소년이 조직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기차역에서 차를 파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모디는 샤카 활동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기차역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돕고, 샤카 시간이 되면 카키색 반바지로 갈아입고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밤에는 다시 이남다르나 선배 활동가들의 심부름을 하며 늦은 시간까지 조직의 분위기를 익혔습니다. RSS가 강조하는 ‘세바(Seva, 봉사)’의 정신이 소년의 뺨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대신 조직을 택하다

10대 후반, RSS는 모디에게 취미 활동이 아닌 ‘업(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멘토 이남다르는 “개인의 작은 가족을 버리고, 사회라는 큰 가족을 위해 살라”고 독려했습니다. 모디가 열여덟 살에 조혼을 거부하고 집을 떠나 히말라야로 향한 것(1.2절 참조), 그리고 2년의 방랑을 마치고 1970년경 돌아왔을 때, 그가 귀착한 곳은 부모의 집이 아니라 아마다바드(Ahmedabad)의 RSS 본부인 ‘헤드게와르 바반(Hedgewar Bhavan)’이었습니다.

헤드게와르 바반에서의 생활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선배 활동가들을 위해 차를 끓이고, 넓은 사무실과 방들을 홀로 청소하고, 멘토 이남다르의 옷을 손빨래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12~15명의 활동가가 기거하는 공간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조직에 헌신하는 ‘세바’의 실천이었습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 해방 전쟁에 참전을 촉구하는 자나 상(Jana Sangh)의 시위에 참가한 것이 모디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정치 활동으로 기록됩니다. 같은 해 그는 RSS의 전임 활동가인 ‘프라차라크(Pracharak)’가 되기로 서약했습니다. 프라차라크는 결혼과 가정을 포기하고 오로지 조직과 국가를 위해 살겠다는 맹세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출가 수도승의 서원과 비슷합니다. 다만 산속이 아니라 세속의 한복판에서 금욕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다릅니다.

8세 때 처음 들어선 샤카의 흙바닥에서부터 스무 살 청년이 서약한 프라차라크의 길까지. RSS는 나렌드라 모디라는 인물을 빚어낸 용광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힌두 민족주의라는 사상적 토대를 다졌을 뿐 아니라, 규율과 금욕, 조직에 대한 충성,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찻집 소년은 강철 같은 규율과 조직력을 갖춘 힌두 민족주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1.4 신들의 언어로 세상을 읽다

2019년 5월, 인도 총선이 끝난 직후. 히말라야 해발 3,583미터, 케다르나트(Kedarnath) 사원 인근의 캄캄한 동굴 속으로 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사프란색 술을 두르고 맨발이었습니다. 인도의 총리 나렌드라 모디. 그는 이 동굴에서 밤새 홀로 명상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명상 장면을 포착했고, 사진은 순식간에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인들에게 그 사진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비운 수행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디의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바드나가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원의 종소리로 시작되는 하루

나렌드라 모디가 나고 자란 바드나가르는 고대부터 시바(Shiva) 신을 모시는 '하트케슈와르 마하데브(Hatkeshwar Mahadev)' 사원이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사원의 종소리와 만트라(Mantra, 주문)를 외는 소리가 자명종처럼 마을을 깨웠습니다. 어린 모디에게 이 소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모디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신앙심만큼은 깊었습니다. 어머니 히라벤은 글을 읽지 못했지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모다르다스도 매일 저녁 가족들에게 종교 서적을 읽어주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희미한 등불 아래서 어머니가 구전으로 들려주는 인도 대서사시 《라마야나(Ramayana)》와 《마하바라타(Mahabharata)》의 이야기. 신들과 영웅들의 전쟁, 의무와 희생, 선과 악의 대결. 이 이야기들은 소년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모디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집 근처의 사원을 찾아 기도를 드리고 경내를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원의 웅장한 조각상들, 향 냄새, 순례객들의 행렬은 어린 그에게 신성함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시바 신의 파괴와 창조 의 힘, 그리고 금욕적인 수행자의 모습에 매료된 소년. 훗날 모디가 보여주는 강한 결단력과 때로는 냉혹하리만치 차가운 평정심은 시바 신을 숭배하는 구자라트의 정서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 절에 다니거나 교회에 다녔던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처럼, 바드나가르의 종교적 환경은 모디의 뼈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국에서 종교는 대개 개인의 영역에 머무는 반면, 인도에서 힌두교는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생활 그 자체, 즉 '다르마(Dharma, 법/의무)'라는 점입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 영혼의 스승

기복 신앙을 넘어 모디의 종교관을 철학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19세기 인도의 정신적 거인, 스와미 비베카난다(Swami Vivekananda, 1863~1902).

비베카난다는 콜카타의 부유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스승 라마크리슈나(Ramakrishna)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종교회의에서 “미국의 형제자매 여러분”이라는 유명한 연설로 서구 세계에 힌두 철학을 알린 인물입니다. 당시 서른 살의 무명 승려가 7천여 명의 청중 앞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이 사건은, 식민지배 아래 억눌려 있던 인도인들의 자존심을 되살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서구에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천 년 지혜를 품은 문명이다. 잠들어 있는 거인이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목표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말라.”

청소년기 모디는 바드나가르 도서관에서 비베카난다의 전집을 탐독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장은 모디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비베카난다의 사진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2025년에도 모디는 인터뷰에서 “나는 어디를 가든 수천 년의 베다 전통과 스와미 비베카난다의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비베카난다가 모디에게 건넨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실천적 베단타(Practical Vedanta)’였습니다. “가난한 이를 섬기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Daridra Narayan Seva)”이라는 사상. 숲속에 숨어 혼자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는 가르침. 이것이 훗날 모디가 정치를 종교적 수행과 동일시하는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그에게 ‘개발(Vikas)’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다르마’의 실현이었습니다.

비베카난다의 영향은 모디의 히말라야 방랑(1.2절 참조)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비베카난다가 세운 라마크리슈나 미션에서 세 차례 거절당한 뒤에도 모디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원 바깥에서 비베카난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금욕과 단식: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

모디의 독실함은 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육체적 규율로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채식주의를 고수했고,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5시에 기상하여 요가와 명상(Pranayama)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바드나가르 시절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나브라트리(Navratri)’ 단식입니다. 1년에 두 번, 9일간 이어지는 힌두교 축제 기간 동안 모디는 곡기를 끊고 오직 따뜻한 물만 마시며 지냅니다. 10대 시절 시작된 이 습관은 총리가 되어 격무에 시달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나브라트리 기간에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국민 만찬 자리에서 모디는 단식을 깨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외교적 관례보다 종교적 신념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한국의 정치인이 국민 만찬에서 종교적 이유로 식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것이 인도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인상.

이 금욕과 단식은 모디에게 자신의 육체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확인이자, 정신력을 극대화하는 수련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가족도 없고 비축한 재산도 없다. 그러니 부패할 이유도 없다”는 그의 유명한 발언은 이 수행자적 세계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르마 요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의 철학

모디의 행동 원칙을 이해하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의 핵심 사상인 ‘카르마 요가(Karma Yoga)’.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행위의 철학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인도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일부로, 전쟁을 앞두고 크리슈나 신이 전사 아르주나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700구절(슬로카)로 이루어진 이 경전은 힌두교의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슈나 신은 말합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너의 의무를 다하되, 그 결과는 신에게 맡겨라.” 이 가르침은 모디에게 깊이 내면화되었습니다. 정치적 비난이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태도, 때로는 냉혹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리더십, 하루 4~5시간만 자면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초인적 에너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카르마 요가’의 실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권력자가 아니라 ‘프라단 세박(Pradhan Sevak, 으뜸 봉사자)’이라 칭합니다. 이것이 수사(修辭)인지 진심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 세계관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인도 국민에게 ‘부패하지 않는 지도자’, ‘사심 없는 수행자’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빛과 그림자

이 빛나는 세계관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모디의 힌두 중심적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타자’에 대한 배제를 동반합니다.

그에게 인도는 지정학적 국가가 아니라 ‘바라트 마타(Bharat Mata, 어머니 인도)’라는 여신입니다. 인도의 역사는 힌두 문명의 영광이 외세(이슬람 침략, 영국 식민지배)에 훼손되었다가 되찾는 과정으로 재해석됩니다. 비나약 다모다르 사바르카르(Vinayak Damodar Savarkar, 1883~1966)가 정립한 ‘힌두트바(Hindutva)’ 사상, 즉 힌두교를 종교가 아닌 생활 양식이자 문화적 국적으로 정의하는 이념이 그의 세계관을 완성했습니다. 사바르카르는 1923년 저서 《힌두트바: 힌두란 누구인가(Hindutva: Who is a Hindu?)》에서 “인도를 조국이자 성지로 여기는 사람이 힌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성지가 메카와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완전한 인도인이 될 수 없다는 배타적 논리가 내포됩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인도의 강은 물길이 아니라 여신(Ganga Ma)이고, 소(Cow)는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는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신성한 힌두 문명의 일부로 봅니다. 이것이 힌두교도 다수에게는 강렬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주지만, 무슬림 등 소수 종교인들에게는 소외와 불안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2억 명에 달하는 인도 무슬림 인구가 이 세계관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는, 제3장과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추적합니다.

모디 자신은 이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인식하면서도 힌두 문명의 복원이라는 더 큰 대의 앞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 하나만 기록해 둡니다. 소년 시절 모디에게는 압바스라는 무슬림 친구가 있었고, 함께 축제를 나누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소년의 세계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와 ‘그들’로 나뉘게 되었는지, 그것은 이 전기가 끝까지 추적해야 할 질문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기묘한 결합

모디의 세계관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과거 회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대 인도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신성한 갠지스강에서 제를 올리는 모습을 생중계하면서도, 동시에 청년들에게 디지털 혁명과 반도체 굴기를 역설합니다. 국제 요가의 날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 요가를 전파하면서도, 우주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달에 착륙시킵니다.

종교적 경건함과 세속적 권력,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 이 모순적인 것들이 묘하게 결합된 세계관. 이것이 모디가 14억 인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드나가르 사원의 종소리 속에서 자란 소년은, 요가와 명상으로 다져진 수행자의 얼굴로 세계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 전기는 계속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2장. 조직의 설계자 (1971-2001)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2.1 어둠 속의 전단지

1975년 6월 25일 자정, 노란 피아트 한 대가 아마다바드(Ahmedabad) 외곽의 좁은 골목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채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내는 머리에 초록색 두건을 두르고, 구겨진 쿠르타(kurta) 차림에 손목엔 금줄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 가득 수염을 덮은 그 사내는 무슬림 수행자처럼 보였지만, 본명은 조지 페르난데스(George Fernandes)였습니다. 인도에서 수배 순위가 가장 높은 사회주의 지도자였습니다. 문 앞에서 그를 맞이한 스물다섯 살 청년은 그를 안으로 안내한 뒤, 서로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나렌드라 모디. 그는 이 만남을 훗날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구자라트와 다른 주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

이 시기 모디는 RSS의 전임 활동가, 즉 프라차락이었습니다(프라차락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제1장 1.3절 참조). 1972년 정식 프라차락이 된 이래, 멘토 이남다르의 지도 아래 구자라트 수라트(Surat)와 바도다라(Vadodara) 지역을 돌며 조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 인도 민주주의가 통째로 멈춰 섰습니다.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총리가 비상사태(The Emergency)를 선포한 것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내부 소요'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이 인디라 간디의 1971년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자그모한 싱하이(Jagmohanlal Sinha). 그는 선거 기간 중 공무원 동원, 정부 자원 사용 등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권력을 잃을 위기에 몰린 인디라 간디는 헌법 제352조를 발동해 시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야당 지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모든 언론에 사전 검열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1972년 유신 선포와 흡사합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올라서서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반대파를 감옥에 가둔 것이니까요. 다만 인디라 간디의 비상사태에는 유신에 없던 공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산자이 간디(Sanjay Gandhi)가 주도한 강제 불임 수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구 억제'라는 명분 아래 가난한 남성들, 주로 무슬림과 하층 카스트 남성들을 끌어다 수술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공식 기록만으로도 19개월간 약 830만 건의 불임 수술이 시행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강제였습니다. 이 정책은 인도 대중에게 식민 지배의 기억보다 더 깊은 모욕감을 남겼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직후인 7월 4일, RSS는 불법 단체로 규정되어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지도자와 활동가가 국가안보유지법(MISA)에 의거해 체포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비상사태 기간 중 체포된 정치범은 약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모디의 멘토 이남다르도 수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직의 선배들 대부분이 감옥에 갇히거나 도주한 상황에서, 스물다섯 살 청년에게 전례 없

는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RSS 지도부는 모디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절대로 체포되지 말 것. 둘째, 조직을 살려놓을 것.

모디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맡은 직함은 '구자라트 로크 상가르시 사미티(Gujarat Lok Sangharsh Samiti, 구자라트 민중투쟁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제이프라카시 나라얀(Jayaprakash Narayan)이 전국 단위에서 이끈 반(反)비상사태 연합체의 구자라트 지부였습니다. 제이프라카시 나라얀, 줄여서 JP는 간디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인도의 원로 정치인으로, "전체 혁명(Sampoorna Kranti)"을 외치며 인디라 간디의 독재에 맞선 인물이었습니다. RSS만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주의자, 옛 의회당 인사, 심지어 공산주의자까지 '인디라 간디 타도'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친 연대체였습니다. 엄격한 힌두 민족주의 울타리 안에서만 세상을 본 모디에게, 이 경험은 이념의 벽을 넘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현장 수업이었습니다.

지하 생활에서 모디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변장이었습니다.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터번을 두르고 수염을 기른 시크교도(Sikh)로 검문소를 통과했고, 어떤 날은 사프란색 옷에 머리를 민 힌두 수행자(Sanyasi)가 되어 사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페르난데스를 만나러 갈 때는 무슬림 차림으로 변신했습니다. 한번은 경찰이 그가 머물던 아마다바드의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마침 시크교도 청년으로 변장하고 나서려던 모디는 경찰에게 되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라는 사람이 여기 사는지 찾으시는 거요?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옆집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경찰은 그의 말을 믿고 다른 집으로 향했고, 모디는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변장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정보의 유통이었습니다. 비상사태 아래 인도의 신문들은 정부 검열에 눌러 백지로 발행되거나 관제 기사만 실었습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사설란을 비워 검열에 항의했고, 《라잔 가제트》는 아예 사설란에 검은 테두리만 찍어냈습니다. 국영 라디오 '올 인디아 라디오(All India Radio)'는 정부의 선전만을 내보냈습니다. 진실이 차단된 사회에서 모디는 '정보의 동맥'을 복원하는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는 비밀 인쇄소를 확보해 반정부 팸플릿과 유인물을 찍어냈습니다. 인쇄물의 양은 적지 않았습니다. 라자스탄 민중투쟁위원회의 요청으로 힌디어 잡지 20만 부를 인쇄해 기차편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구자라트에서 인쇄된 지하 출판물은 마하라슈트라, 마디아 프라데시, 라자스탄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모디는 유인물을 이발소에 비치하라고 지시했고,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법 중 신도들에게 나눠주도록 부탁했습니다. 우유 배달통, 도시락 통, 기차역의 짐칸 속에 숨겨진 인쇄물이 검열의 벽을 뚫고 구자라트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모디의 지하 활동에는 '프라카시(Prakash)'라는 가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가명이 적힌 편지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동료들은 온갖 위협과 회유를 받았지만 '프라카시'의 정체를 끝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모디는 훗날 이 에피소드를 자신의 책에 담으면서 조직원들의 충성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하 네트워크의 유지에는 사람을 돌보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동료들의 가족은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모디는 스쿠터를 타고 구자라트 전역을 다니며 수감자 가족을 방문하고, 모금 활동을 벌여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해외 거주 구자라트인들에게도 손을 뻗어 지원금을 모았습니다. 이 활

동은 모디가 차가운 전략가인 동시에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챙기는 리더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계산된 행위였을 수도 있고,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맺어진 풀뿌리 유대가 훗날 그를 구자라트 주총리, 나아가 인도 총리로 밀어 올리는 보이지 않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19개월간의 지하 생활은 모디에게 이념의 확장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 페르난데스의 스쿠터 뒷자리에 앉아 비밀 회합 장소로 이동하면서, RSS라는 좁은 울타리 바깥의 인도를 보았습니다. 힌두 민족주의만으로는 비상사태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자와도, 구(舊) 의회당 인사와도, 때로는 무슬림 활동가와도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모디는 훗날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비상사태는 나에게 대학 교육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그림자도 짙어야 합니다. RSS 최고 지도자 발라사헵 데오라스(Balasaheb Deoras)는 감옥에서 인디라 간디에게 편지를 보내 석방을 탄원하면서, RSS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RSS는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담긴 그 편지에는 비상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항의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젊은 활동가들과 감옥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지도부 사이의 괴리는 RSS 내부에서도 오래도록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디가 이 괴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권력의 두 가지 얼굴, 즉 저항하는 쪽의 용기와 굴복하는 쪽의 논리를 동시에 목격했을 것입니다.

1977년 3월, 인디라 간디가 예상 밖으로 총선을 실시하자 결과는 그녀의 계산과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강제 불임 수술에 분노한 민심, 언론 탄압에 질린 지식인, 지하에서 꾸준히 유포된 저항 메시지가 합쳐져 야당 연합 ‘자나타 당(Janata Party)’이 압승했습니다. 인도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였습니다. 모라르지 데사이(Morarji Desai)가 새 총리가 되었고, 비상사태는 끝났습니다. 모디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된 뒤, 모디는 이 시기의 기록을 정리해 구자라트어로 《상가르시 마 구자라트(Sangharsh Ma Gujarat, 투쟁 속의 구자라트)》를 집필했습니다. 1978년에 출간된 이 책은 투쟁기인 동시에,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반격하는지에 대한 실전 매뉴얼이기도 했습니다. 구자라트어 일간지 《폴차브(Phulchhab)》, 영자 신문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 《인디언 익스프레스(Indian Express)》가 서평을 실었고, 국영 라디오 아카시바니(Akashvani)는 바도다라와 뭄바이에서 이 책의 리뷰를 방송했습니다. 스물여덟 살 청년이 쓴 첫 번째 책이 전국적 주목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RSS 지도부는 모디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1978년, 그는 수라트와 바도다라 지역을 관할하는 삼박 프라차락(Sambhag Pracharak)으로 승진했습니다. 1981년에는 구자라트 전체의 RSS 조직을 관할하는 프란트 프라차락(Prant Pracharak)에 올랐습니다. 학업도 이어갔습니다. 1978년 델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를, 1983년 구자라트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원격교육으로 취득했습니다.

비상사태라는 용광로는 그에게 세 가지 무기를 버려 주었습니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시망을 뚫고 조직을 운영하는 비가시적 통제력, 이념이 다른 세력파도 손잡을 수 있는 기술적 유연성, 그리고 정보의 통제가 곧 권력이라는 뼈저린 통찰. 이 세 가지는 훗날 그가 구자라트 주총리로, 인도 총리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작동하는 통치 스타일의 원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모디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지하 활동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RSS라는 힌두 민족주의 조직의 복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197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이 독재에 저항하며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쳤다면, 모디의 저항은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힌두 정체성의 부활에 쏟고 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같은 몸에서 나옵니다.

2.2 전략가의 탄생

1990년 9월 25일, 구자라트 솜나트(Somnath) 사원 앞 광장.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도요타 미니 트럭 한 대가 광장 중앙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은 트럭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 힌두 서사시에 나오는 전차(Rath)처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금빛 장막과 종교적 문양이 뒤덮인 이 '전차' 위에 BJP 총재 L.K. 아드바니(L.K. Advani)가 올라섰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솜나트에서 아요디아까지!" 군중이 화답했습니다. "자이 시리 람(Jai Shri Ram, 람 신이여 승리하소서)!" 이 순간, 인도 정치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장면을 설계한 사람은 전차 위의 아드바니가 아니라, 전차 아래에서 일정표와 경로도와 동원 계획서를 들고 있던 마흔 살의 조직책, 나렌드라 모디였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몇 년 되돌려야 합니다.

1984년 인도 총선에서 BJP는 고작 2석을 얻었습니다. 인디라 간디 암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의회당(Congress)에 쏠린 탓이었습니다. 인디라 간디는 1984년 10월 31일, 자신의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같은 해 6월 그녀가 명령한 골든 템플(Golden Temple) 군사 작전, 즉 '블루 스타 작전(Operation Blue Star)'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펀자브주 암리차르의 시크교 성지를 인도 육군이 공격하여 수백 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시크교도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인디라 간디의 아들 라지브 간디(Rajiv Gandhi)가 뒤를 이었고, 동정 여론에 힘입어 의회당은 사상 최대인 414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습니다.

RSS 지도부는 자신들의 가장 유능한 조직가를 이 무너져가는 정당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5년 모디는 BJP로 파견되었고, 1987년 정식으로 입당하며 구자라트주 조직 비서(Sangathan Mantri)로 임명되었습니다. RSS의 활동가에서 정당의 간부로, 이것은 신념을 현실의 권력으로 번역하기 위한 RSS의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모디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시험 무대는 1987년 아메다바드 시의회 선거였습니다. 아메다바드는 의회당의 오랜 텃밭이었습니다. 모디는 기존의 주먹구구식 선거 운동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그는 선거를 과학으로 접근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투표소(Booth) 단위로 쪼개어 유권자 성향을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RSS 조직원들을 동원해 가구별 방문 캠페인을 체계화했습니다. 한국 선거에서 흔히 쓰는 '출구조사'나 '여론 분석' 같은 데이터 기반 전략을 1980년대 인도 지방 선거에 도입한 셈이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BJP가 아메다바드 시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중앙 당 지도부에 '나렌드라 모디'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또렷이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디가 시의회 선거를 이기고 있을 무렵, 인도의 정치 지형에는 훨씬 더 거대한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990년, V.P. 싱(V.P. Singh) 총리가 하층 카스트(OBC)에게 공직의 27%를 할당하겠다는 '만달 위원회(Mandal Commission)' 보고서의 이행을 발표한 것입니다. 만달 위원회

는 사회학자 B.P. 만달(B.P. Mandal)이 1980년에 제출한 보고서로, 인도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OBC에게 정부 일자리와 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을 할당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간 방치되었던 이 보고서가 실행에 옮겨지자, 상위 카스트 청년들은 분신자살로 항의했습니다. 델리 대학교 학생 라지브 고스와미(Rajiv Goswami)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장면은 인도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힌두 사회는 카스트 균열선을 따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BJP에게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만달(Mandal)'이 힌두를 카스트로 나누는 칼이라면, '만디르(Mandir, 사원)'는 힌두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카스트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힌두"라는 메시지를 들고, BJP는 아요디아(Ayodhya)의 바브리 모스크(Babri Masjid) 자리에 람 사원(Ram Mandir)을 건설하자는 운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요디아는 힌두교도들에게 람(Ram) 신의 탄생지로 숭배되는 곳이었으며, 그 위에 1528년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 바부르(Babur)가 세운 모스크가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인 힌두교도들의 종교적 열망과 역사적 분노를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정점이 바로 1990년 9월 25일에 시작된 '람 라트 야트라(Ram Rath Yatra)'였습니다. 아드바니 총재가 솜나트에서 출발해 아요디아까지 10,000킬로미터를 횡단하는 대규모 순례 행진이었습니다. 모디는 이 행진의 구자라트 구간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책임자, 아드바니의 '사라티(Sarathi, 전차의 마부)'로 임명되었습니다.

모디는 행진을 거대한 정치적 스펙터클로 만들어냈습니다. 600개 마을에서 갠지스 강 물을 실어 와 종교적 경건함을 더했고, 전차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환영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언론이 앵글을 잡기 좋은 장소와 시간을 미리 계산해 행진 경로를 짰습니다. 아드바니가 사원 앞에 서는 순간 군중이 절정에 달하도록 타이밍을 조율했습니다. 이것은 종교 행사의 형식을 빌린 초대형 정치 캠페인이었습니다.

라트 야트라의 위력은 가공할 만했습니다. 전차가 지나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자이 시리 람"이라는 구호는 구자라트를 넘어 인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1984년에 2석이던 BJP는 1989년 총선에서 이미 85석으로 뛰어올랐고, 라트 야트라 이후 치러진 1991년 총선에서는 120석을 차지했습니다. 아드바니가 비하르에서 체포되어 아요디아에 도착하지 못했음에도, 야트라는 BJP를 전국 정당으로 도약시키는 발사대가 되었습니다. 아드바니 자신이 훗날 회고록에서 "당시 유망한 BJP 지도자였던 나렌드라 모디가 동행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의 이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도평화갈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라트 야트라의 여파로 1990년 한 해에만 약 1,800명이 종교 폭동으로 사망했고, 그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습니다. 1992년 12월 6일, 흥분한 힌두 군중이 아요디아의 바브리 모스크를 맨손으로 허물어뜨리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씨앗이 뿌려진 시점이 바로 이 라트 야트라였습니다. 이 모스크 철거는 인도 전역에서 약 2,000명이 사망한 종교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디가 설계한 동원 전략은 BJP에게 선거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인도 사회에는 종교 갈등이라는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라트 야트라의 성공에 힘입어, 모디는 이듬해 더 대담한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1991년 12월 11일, 무를리 마노하르 조시(Murli Manohar Joshi) BJP 총재가 이끄는 '에크타 야트라(Ekta Yatra, 통합의 여정)'가 인도 최남단 칸야쿠마리(Kanyakumari)에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15,000킬로미터 북쪽, 분리주의 테러가 기승을 부리던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Srinagar). 목표는 1992년 1월 26일, 인도 공화국 창건일에 스리나가르의 랄 초크(Lal Chowk) 광장에서 인도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었

습니다.

모디는 이 야트라의 기획자이자 실행 총책임자였습니다. 당시 카슈미르는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었고, 카슈미르 판디트(힌두교도)들은 1990년 1월에 이미 대거 쫓겨나 난민이 된 상태였습니다. 약 10만 명의 판디트가 계곡을 떠났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놈이라면 랄 초크에 와서 국기를 올려보라.”

야트라가 카슈미르에 도달하자 상황은 급박해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경찰 본부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당시 경찰국장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국은 조시와 모디를 포함한 핵심 인사들을 공군 수송기(AN-32)로 스리나가르에 긴급 공수했습니다. 1992년 1월 26일 새벽, 엄중한 경계 속에 67명의 BJP 활동가가 시계탑 앞에 섰습니다. 조시가 칸야쿠마리에서 가져온 국기를 올리려 하자, 깃대가 두 동강 나면서 깃발이 그의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현지 행정부가 제공한 국기로 대체해 게양을 강행했습니다. 그 12분 동안 최소 네 발의 로켓이 광장 인근에서 발사되었으나 목표물에 명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깃대가 부러지고 군중도 없이 12분 만에 끝난 이 행사를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인도 전역에 생중계된 그 장면은 BJP에게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안겨주었지만, 카슈미르 현지에서는 그날 하루에만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디에게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직가를 넘어 대중적 호소력을 가진 리더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 계기였고, 국가적 차원의 안보 이슈를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체득한 경험이었습니다.

2.3 델리가 부르기 전에

두 차례의 야트라가 쌓아올린 명성은 1995년 구자라트 주의회 선거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모디는 선거 전략의 전권을 위임받아 공천, 유세 일정, 자금 조달, 동원 전략까지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케슈바이 파텔(Keshubhai Patel)을 주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반(反)의회당 표심과 힌두 민족주의 정서를 결합하는 선거 공학을 가동했습니다.

모디의 선거 기법은 이미 이 시점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도 선거의 최소 단위는 투표소(Booth)입니다. 모디는 각 투표소마다 핵심 요원을 배치하고, 유권자 명부 한 페이지(Panna)를 당원 한 명(Pramukh)이 전담하는 ‘판나 프라무크(Panna Pramukh)’ 시스템을 체계화했습니다. 이 당원은 담당 페이지에 적힌 10~15가구의 유권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민심을 보고하고, 투표 당일 투표장까지 이끌었습니다. 선거구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카스트 구성을 정밀 분석하여 승리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를 배치했습니다. 선거가 드라마가 아니라 물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대부분 이깁니다.

결과는 182석 중 121석. BJP가 구자라트에서 처음으로 단독 과반 정부를 꾸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정가에서는 파텔이 아니라 모디를 ‘슈퍼 CM(Super Chief Minister)’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정점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디의 막강한 영향력에 반발한 당내 라이벌 상카르싱 바겔라(Shankersinh Vaghela)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겔라는 47명의 의원을 규합하여 탈당을 위협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모디를 구자라트에서 빼라. 아니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 한국 정치로 비유하자면, 여당 원내대표가 비선 실세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탈당을 감행한 것과 비슷한 국면이었습니다.

결국 BJP 중앙 지도부는 타협을 택했고, 1995년 말 모디는 자신의 텃밭에서 밀려나 뉴델리 11 아쇼카 로드(Ashoka Road)에 위치한 BJP 중앙당사 뒤편 별채의 좁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표면적 직함은 'BJP 전국 비서(National Secretary)'. 하지만 당시 구자라트 정치판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전이 아니라 유배라는 사실요.

겉보기에는 유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6년이 없었다면 훗날의 모디도 없었을 것입니다. 델리에서 모디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리아나(Haryana),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펀자브(Punjab),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등 북부 주들의 당무 관장이었습니다. BJP의 뿌리가 약하거나, 단독 집권이 불가능해 연립 정부를 꾸려야 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구자라트에서는 RSS의 충성스러운 조직만 다루면 되었지만, 북부에서는 시크교도 정당, 지역 군소 정당, 카스트 기반 세력과의 협상이 일상이었습니다.

모디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능력 하나를 새로 장착했습니다. 연정(Coalition)의 기술입니다. 1996년 하리아나 주의회 선거에서 그는 지역 정당인 하리아나 비카스 당(HVP)의 반실랄(Bansi Lal)과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념적 순수성만 고집하는 RSS 활동가의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98년 히마찰 프라데시 선거에서도 BJP가 정부를 꾸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1998년 5월, 이 연이은 성공에 힘입어 모디는 BJP의 '전국 조직 담당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 Organization)'으로 승진합니다. 당의 인사·조직·자금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Atal Bihari Vajpayee) 총리와 아드바니 부총리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정 운영의 감각을 흡수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홍보·이미지 관리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고,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을 당무에 도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구자라트에서의 추방이 전국구 정치인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강제 유학'이 된 셈이었습니다.

한편 그가 떠난 구자라트에서는 바겔라가 결국 BJP를 탈당하여 의회당(Congress)의 지원을 받아 주총리 자리에 앉았지만, 이 불안정한 연립 정부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1998년 구자라트 주의회 선거가 다시 찾아왔고, 중앙당은 구자라트를 탈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디의 두뇌를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디의 전략은 '배신의 프레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겔라가 이끄는 세력을 '권력에 눈먼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배신은 구자라트의 문화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보수적인 구자라트 유권자들의 도덕적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BJP는 182석 중 117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확보했고, 바겔라의 정당(RJP)은 고작 4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 없었습니다.

케슈바이 파텔이 다시 주총리로 복귀했지만, 이 승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디는 자신을 쫓아낸 정적들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승리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 승리는 '조직형 정치'의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모디는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시스템이 선거를 이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철저한 '피아 식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당내 원로들은 냉혹하게 소외되었고, 공천은 충성도의 함수가 되었습니다. 효율은 높아졌지만, 당내 민주주의라는 기둥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4 폐허 위의 발탁

2001년 1월 26일 오전 8시 46분. 인도의 공화국 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구자라트주 쿠치(Kutch) 지역의 부지(Bhuj)에서 사람들이 국기 게양식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각, 대지가 울었습니다. 진도 7.7. 인도 기상청 기준으로는 7.7, 미국 지질조사소(USGS) 기준으로는 7.6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건물들이 종이처럼 접혀 내렸습니다. 진앙에서 250킬로미터 떨어진 아마다바드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잣더미 속에 묻혔고, 16만 7천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길 위에 나왔습니다. 경제적 피해만 약 56억 달러. 인도 독립 이후 가장 참혹한 자연재해였습니다.

자연재해는 땅을 흔들지만, 진짜 무너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당시 구자라트 주총리 케슈바이 파텔 정부의 대응은 총체적 실패였습니다. 구호 물자는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관료들은 회의를 했지만, 현장의 요구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재건 자금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 터졌고, 이재민들의 분노는 정부를 향했습니다. 한국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던 것과 비슷한 역학이었습니다. 재난 자체보다 재난 이후의 무능이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70대 고령의 파텔 주총리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 보궐선거에서 BJP는 연달아 패배했습니다. 2002년 12월로 예정된 주의회 선거에서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BJP 안팎을 감쌌습니다.

뉴델리의 바즈파이 총리와 아드바니 부총리에게 구자라트는 지방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의 실험실이자 BJP의 난공불락 텃밭이었습니다. 이곳을 잃는 것은 당 전체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너진 조직을 다잡고, 행정을 복원하고,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향한 곳은 델리의 당사 별채에서 전국 조직을 총괄하고 있던 한 남자였습니다.

2001년 10월 초의 어느 날, 모디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바즈파이 총리였습니다. 총리 관저로 불려간 모디에게 바즈파이는 특유의 유머를 섞어 말했습니다.

“나렌드라, 델리에서 편자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군. 살이 좀 찼어. 이제 구자라트로 가서 빼게.”

구자라트 주총리를 맡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의 원래 구상은 달랐습니다. 케슈바이 파텔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모디를 ‘부주총리(Deputy Chief Minister)’로 보내려 했습니다. 파텔을 상징적 수장으로 남겨두고 실무는 모디가 챙기는 구도였습니다.

모디의 대답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나는 구자라트를 온전히 책임지거나, 아니면 아예 말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선출직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당직자가 인구 5천만 주의 수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조건까지 내건 것입니다. 그러나 모디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한이 분산된 2인자로는 위기에 빠진 구자라트를 구할 수 없다는 것요. 위기 대응은 단일한 지휘 체계에서만 작동합니다.

결국 바즈파이와 아드바니는 모디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케슈바이 파텔은 사임했습니다.

간디나가르(Gandhinagar)의 라지 바반(Raj Bhavan). 2001년 10월 7일, 나렌드라 모디는 구자라트주 제14대 주총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지진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는 주의회 의원(MLA)도 아니었고, 행정부를 지휘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당 조직의 뒤편에서 일해온 프라차라키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주의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냉소가 흘렸습니다. 관료들은 이 새 주총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내기를 했습니다. 취임식 날, 어머니 히라벤이 아들의 발치에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돈을 먹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말라는 뼈 있는 충고였습니다.

모디가 물려받은 구자라트의 상태표는 참혹했습니다. 지진 복구는 지지부진했고, 3년 연속 가뭄으로 농촌은 타들어 가고 있었으며, 전력 부족으로 공장들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현장을 시찰하고 이재민의 손을 잡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을 것입니다. 모디도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한 일은 관료 조직의 지휘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첫날, 그는 10개 현(縣)의 집행관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재건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2001년에 화상회의를 행정에 도입한 것은 인도에서 거의 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복구를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봐두지 않고, 단계별 목표와 기한이 있는 프로젝트로 쪼갰습니다.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48시간 안에 해결할 항목"만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의 분위기와 비슷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원한 것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디는 그 느낌을 주는 데 능숙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현장을 돌며, 공무원의 지각을 엄격히 단속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정책 이전에 '긴장감'이었습니다.

모디는 지진 재건을 원상복구가 아니라, 구자라트를 새로 짓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파괴된 부지(Bhuj)를 현대적 계획도시로 재설계했습니다. 구자라트 재난관리청(Gujarat State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을 설립하고 표준 운영 절차(SOP)를 도입했습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확보하여 재건 자금을 마련했고, 해외 구자라트 디아스포라의 기부금도 적극 유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훗날 '구자라트 모델'이라 불릴 통치 스타일의 원형이었습니다.

주총리가 되었지만, 법적 정당성은 아직 없었습니다. 인도 헌법에 따르면, 주총리는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2002년 2월, 라지코트-II(Rajkot-II)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기존 의원이었던 바주바이 발라(Vajubhai Vala)가 모디를 위해 자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이 선거는 모디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유권자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생애 첫 직접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2002년 2월 24일, 모디는 14,728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월 27일, 모디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드라(Godhra) 역에서 사바르마티 급행열차(Sabarmati Express)에 불이 붙었습니다. 59명의 힌두 순례자가 목숨을 잃었고, 뒤이어 구자라트 전역에서 종교 폭동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1987년 일개 조직 비서로 입당한 지 14년, 고향에서 쫓겨난 지 6년.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렌드라 모디는 구자라트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 귀환했습니다. 솜나트에서 아요디아까지 전차를 이끌고, 칸야쿠마리에서 스리나가르까지 국기를 들고 달린 그 조직력이 이 순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의 폐허 위에서 권력을 잡은 이 남자는, 이제 인간이 만든 재앙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3장. 구자라트의 황제 (2001-2014)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3.1 2002년 구자라트 폭동: 고드라 사건, 국제 고립, 법원 무혐의

2002년 2월 27일 오전 7시 43분, 구자라트주 고드라(Godhra) 역에서 사바르마티 익스프레스(Sabarmati Express)가 멈춰 섰습니다. 열차 안에는 힌두교 성지 아요디아(Ayodhya)에서 종교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플랫폼에서 무슬림 주민들과 승객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누군가 비상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정차한 직후, S-6 객차에서 불길의 숨이 나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객차는 거대한 화장터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59명의 힌두교도가 산 채로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불길 한 줄이 인도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끔찍한 종교 폭력의 도화선이 될 줄은, 그날 아침 고드라 역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남짓이었던 나렌드라 모디 주총리는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 화재를 “사전에 계획된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구자라트 주정부가 설치한 나나바티-메타 위원회(Nanavati-Mehta Commission)는 2008년 보고서에서 약 1,000~2,000명 규모의 무슬림 군중이 사전에 계획한 방화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중앙정부 철도부가 꾸린 바네르지 위원회(Banerjee Commission)는 객차 내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두 위원회의 엇갈린 결론은 각각 다른 정치 진영의 논리를 강화하는 무기로 소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법정의 사실판정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실이 규명되기 전에 ‘서사’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고드라 사건 다음 날인 2월 28일, 강경 힌두 우파 단체인 세계힌두의회(VHP)가 구자라트 전역에 파업(Bandh)을 선포했습니다. BJP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거리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분노한 힌두 군중이 무슬림 거주지를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권자 명부를 들고 무슬림의 집과 상점을 찾아내 방화하고, 약탈하고, 살해했습니다.

공식 통계로 사망자 1,044명(무슬림 790명, 힌두교도 254명), 실종자 223명, 부상자 2,500명. 비공식 추산은 사망자 2,000명을 넘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하나의 도(道) 전체가 3일간 불바다에 휩싸인 것과 같은 규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이 폭도들을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무슬림 주민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구할 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 경찰관과 관료들이 참석한 긴급 회의에서 모디 주총리가 “

힌두교도들이 분노를 표출하도록 놔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산지브 바트(Sanjiv Bhatt) 경찰 간부의 진술서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모디는 이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이후 특별조사팀(SIT)은 바트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증거 자체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바트는 2019년 별도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디가 폭동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인용했다는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는 뉴턴의 법칙 비유는, 그가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Atal Bihari Vajpayee) 총리조차 구자라트를 방문하여 모디 옆에 앉은 채 “통치자는 백성을 차별 없이 돌봐야 합니다. 라즈 다르마(Raj Dharma, 통치자의 의무)를 다하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일침을 놓을 정도였습니다. BJP 내부에서 모디 경질론이 나왔지만, RSS의 지원과 당내 기반의 부재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2005년 3월 18일, 미국 국무부는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근거하여 모디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외국 공무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선출직 정부 수반이 이 조항으로 비자를 거부당한 사례는 모디가 유일했습니다. 영국은 2002년부터 모디와의 외교적 접촉을 중단했고, 유럽연합(EU) 의회는 2006년 구자라트 폭동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모디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냉정한 논리는 도덕적 원칙을 오래 붙들어두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무게가 커지자, 서방의 태도는 실용적으로 변했습니다. 2014년 모디가 총리 후보로 급부상하자, 미국은 이미 그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2012년 외교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도덕적 제재’가 ‘지정학적 이해관계’ 앞에서 무력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인도 국내에서는 더 치열한 법적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굴버그 학살 생존자이자 예산 자프리의 미망인인 자키아 자프리(Zakia Jafri)와 인권운동가 티스타 세탈바드(Teesta Setalvad)는 모디를 포함한 고위 관료 63명을 공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08년 인도 대법원은 구자라트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직 중앙수사국(CBI) 국장 라가반(R.K. Raghavan)이 이끄는 독립적인 특별조사팀(SIT)을 꾸렸습니다.

SIT는 수년간 방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10년에는 현직 주총리인 모디를 직접 소환하여 9시간 넘게 100개 이상의 질문으로 심문했습니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모디가 2002년 2월 27일 긴급 회의에서 경찰에 “불개입”을 지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012년 2월, SIT는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모디 주총리를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다(No prosecutable evidence)”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아메다바드 치안판사 법원은 SIT의 무혐의(Clean Chit)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자키아 자프리의 항소는 2017년 구자라트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24일, 인도 대법원은 자프리의 최종 청원을 기각하며 20년에 걸친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SIT의 수사가 공정했다고 판단하면서, 고발 측의 “거대 음모론”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고발 배후 세력이 “논란을 계속 부추기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까지 질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세탈바드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인권운동가를 보복 체포한 것”이라는 비판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법원이 모디의 형사적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문장은, 사실관계로는 분명히 성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도덕적 논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폭동 이후에도 국가 기관의 공모와 방임 정황, 증인 보호 실패, 수사 범위의 한계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개별 학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도 나왔습니다. 나로다 파티야 사건에서 전직 구자라트 장관 마야 코드나니(Maya Kodnani)는 28년형을, 바지랑 달(Bajrang Dal)의 바부 바지랑기(Babu Bajrangji)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굴버그 소사이어티 사건에서는 2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 11명이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빌키스 바노(Bilkis Bano) 사건은 더 복잡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임신 중이던 바노를 집단 성폭행하고 그녀의 가족 7명을 살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1명의 수감자가 2022년 8월 구자라트 주정부에 의해 사면·석방되었습니다. 이들은 석방 직후 화환을 목에 건 채 영웅처럼 환대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이 사면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재수감을 명령했지만, 이 사건은 “법적 무혐의와 정치적 책임은 별개”라는 비판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처벌받았지만, 국가 시스템 차원의 책임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 측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2002년 구자라트 폭동은 나렌드라 모디에게 이중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반대 진영에게 그는 영원히 ‘학살의 방조자’였습니다. 그러나 힌두 우파 진영에게 그는 “힌두교를 지킨 강인한 지도자”, 즉 ‘힌두 흐리다이 삼라트(Hindu Hriday Samrat, 힌두 마음의 황제)’로 추앙받았습니다.

모디는 이 위기를 파국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비판을 “구자라트의 자존심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하며 2002년 12월 주 의회 선거에서 182석 중 127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법적 무혐의는 2014년 총선 출마의 최소 조건을 충족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디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법적 면죄부가 아니라, 2002년의 화염을 덮을 만큼 거대한 새로운 서사였습니다. 폭동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그는 그 누구보다 맹렬하게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3.2 구자라트 모델: 바이브란트 구자라트, 쟈티그람, 타타 나노

2003년 9월, 아메다바드(Ahmedabad). 나브라트리(Navratri) 축제 기간에 맞춰 열린 낮선 행사에 인도 전역의 기업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행사장 정면에는 ‘바이브란트 구자라트(Vibrant Gujarat)’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폭동으로 1,000명 넘는 사람이 죽은 주(州)에서 투자 유치 행사를 여는 것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서방 세계가 등을 돌리고, 투자자들이 이탈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연단에 선 모디 주총리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업 CEO처럼 투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자라트에서는 레드 테이프(Red Tape, 관료주의적 규제) 대신 레드 카펫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훗날 ‘구자라트 모델(Gujarat Model)’이라 불리게 될 거대한 정치-경제 브랜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치적 생존과 개발의 등식

모디에게 경제 개발은 순수한 행정적 소명이기 이전에 정치적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2002년 폭동 이후 그에게는 두 가지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힌두 강경파'와 '학살의 방조자'. 이 두 꼬리표만으로는 구자라트 밖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3의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비카스 푸루시(Vikas Purush)', 개발의 남자. 피 묻은 셔츠를 벗고 개발이라는 깨끗한 슈트로 갈아입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이브런트 구자라트는 그 변신의 핵심 무대였습니다. 2003년 첫 행사에서 76건의 양해각서(MOU), 투자 약속 140억 달러. 2005년에는 226건, 200억 달러. 2007년에는 675건, 1,520억 달러. 2011년에는 8,380건, 4,620억 달러.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라탄 타타(Ratan Tata),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 쿠마르망갈람 비를라(Kumarmangalam Birla) 등 인도 재계의 내로라하는 거물들이 무대에 올라 구자라트를 칭송했습니다. 2007년 서밋에서 라탄 타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자라트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It is stupid if you are not in Gujarat)."

모디는 이 행사를 투자 설명회를 넘어 '인도판 다보스 포럼'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국제 거물들이 연사로 참여했고, 모디가 총리가 된 뒤에도 바이브런트 구자라트는 격년으로 이어져 2024년 제10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물론 MOU의 숫자가 곧 실제 투자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약 40조 루피 규모의 투자 약속 중 실제 집행된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서명은 쉽고, 이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디에게 중요했던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였습니다. "구자라트는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그 인식이 실제 자본을 끌어오고, 자본이 다시 인식을 강화하는 순환이 만들어 집니다. 바이브런트 구자라트는 그 순환의 시동 장치였습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를 제거하다

구자라트 모델의 본질은 '기업을 좋아한다'는 감정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인허가에 수개월씩 걸리는 지연. 둘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 셋째는 접촉 비용입니다. 수십 명의 관료를 만나며 치러야 하는 보이지 않는 대가.

모디는 투자촉진청(iNDEXTb)을 강화해 '단일 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기업이 시청·구청·도청·환경부·국토부를 따로 찾아다니는 대신, 한 곳에서 모든 인허가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관료들에게는 "규제자가 아니라 촉진자(Facilitator)가 되라"고 명령했고, 기업 민원 처리 속도를 인사 고과에 반영했습니다. 앉아서 결재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행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마을: 조티그람 요자나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디는 기업이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전기(電氣)부터 손을 댔습니다.

2003년 9월, 모디는 조티그람 요자나(Jyotigram Yojana, '빛의 마을' 계획)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 농촌의 전력 사정은 비참했습니다. 하루 8~14시간만 들어오는 전기, 그것도 전압이 불안정하

여 펌프가 수시로 고장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업용 전력과 가정용 전력이 같은 배전선을 쓰다 보니, 농민들이 전기를 과다 사용하면 마을 전체가 암흑에 빠졌습니다. 농업용 전기는 보조금을 받아 사실상 무료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하수를 무한정 퍼 올리고, 그 과정에서 전력 낭비와 도전(盜電)이 만연했습니다. 전력 회사의 재정은 악화되었고, 안정적 공급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디의 해법은 대담했습니다. 농업용 전력선과 비농업용 전력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60만 개의 전봇대를 새로 세우고, 15,500개의 변압기를 설치하고, 75,000킬로미터의 전선을 새로 깔았습니다. 총 비용 1,290코로르 루피(약 2,500억 원). 인도에서는 관료적 지연 때문에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모디는 1,000일, 약 2년 반 만에 완료했습니다. 2006년까지 구자라트의 18,000개 마을과 9,700개 촌락이 이 시스템에 연결되었습니다. 농민에게는 하루 8시간 안정적인 고압 전력이, 마을 가정과 소규모 상점에는 24시간 끊기지 않는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온다. 인도의 다른 주에서 여전히 꿈과 같은 이야기였던 것을 구자라트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전력이 안정되자 공장이 들어섰고, 공장이 들어서자 도로가 닦였습니다. 도이체뱅크(Deutsche Bank) 연구에 따르면 구자라트의 송배전 손실률은 2004년 35%에서 2014년 19%로 떨어졌고, 이는 인도 전국 평균 26%를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구자라트는 전력 잉여 주(州)가 되었고, 전력 회사들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이 1970년대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다진 것처럼, 쯔티그람은 구자라트 산업화의 뼈대였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조한 기후 탓에 만성적 물 부족에 시달리던 구자라트에서 모디는 나르마다 강(Narmada River)의 사르다르 사로바르 댐(Sardar Sarovar Dam) 높이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2006년 121.92미터, 2017년 138.68미터로 최종 완공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콘크리트 중력댐이 되었습니다. 환경 단체와 인접 주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메다 파트카르(Medha Patkar)가 이끄는 나르마다 바차오 안돌란(Narmada Bachao Andolan, 나르마다 강 살리기 운동)은 수십 년간 댐 건설에 맞서 싸웠고, 약 24만 명의 주민이 수몰 지역에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댐에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운하 네트워크를 타고 카치(Kutch)와 사우라슈트라(Saurashtra) 같은 건조 지대까지 흘러갔습니다. 동시에 NGO와 협력하여 11만 개 이상의 소형 체크댐(Check Dam)을 건설하고, 점적 관개(Drip Irrigation) 시스템을 보급했습니다. 고갈되던 지하수 수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구자라트는 인도 최대의 면화 생산지로 올라섰습니다.

항만과 도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약 1,600킬로미터)을 가진 구자라트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문드라(Mundra), 피파바브(Pipavav) 같은 세계적 수준의 민간 항만을 개발했습니다. 문드라 항은 아다니 그룹이 운영하며 인도 최대의 민간 항만으로 성장했고, 연간 화물 처리량이 1억 5,0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이 항만들은 고속도로와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물류 비용을 낮췄습니다. 구자라트의 도로는 "인도에서 가장 매끄러운 도로"라는 평가를 받았고, 인도 전체 수출의 약 20%가 이 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96시간의 결단: 타타 나노 유치

2008년 10월 3일, 인도 최대 그룹 타타(Tata)의 라탄 타타 회장이 콜카타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저가 자동차 '나노(Nano)'를 만들기 위해 서벵골주 싱구르(Singur)에 세우던 공장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었습니다.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격해졌고, 야당 지도자 마마타 바네르지(Mamata Banerjee)가 정치적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마하라슈트라 등 여러 주가 일제히 구매에 나섰습니다.

모디는 라탄 타타에게 단 한 단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스와가탐(Suswagatam).” 환영합니다.

모디는 2010년 사난드(Sanand) 공장 준공식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루피짜리 문자 메시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후 벌어진 일은 인도 행정의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도에서 대규모 공장의 토지 확보, 인허가, 기반 시설 조성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모디는 96시간 만에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아메다바드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사난드의 토지를 파격적인 조건 — 1제곱미터당 1루피의 상징적 가격 — 으로 제공하고, 초저금리 대출과 세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10월 7일, 타타 모터스는 나노 공장의 구자라트 이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새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벵골에서 28개월 걸린 건설 기간의 절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수도권 규제에 막혀 좌초되었을 때, 특정 도(道)의 지사가 사흘 만에 모든 인허가를 끝내고 공장을 유치한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주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좌초된 프로젝트를 구자라트가 96시간 만에 가져간 이 장면은, “모디 밑에서는 일이 된다”는 이미지를 인도 전역에 각인시켰습니다. 타타의 뒤를 이어 포드(Ford),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줄지어 구자라트에 공장을 세웠고, 사난드 일대는 ‘인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노 자체는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저가 자동차’라는 콘셉트는 “가난한 사람의 차”라는 낙인으로 작용했고, 생산은 축소되다 2018년 마지막 나노가 공장을 떠났습니다. 타타가 싱구르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서벵골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934크로르 루피의 배상 청구 소송은 2023년에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자라트 모델에서 나노의 흥망은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쫓겨나는 주와 환영하는 주”라는 대비가 만들어낸 상징이었습니다.

숫자의 빛과 그림자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구자라트의 GDP는 실질 기준으로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명목 기준으로는 연복리 약 15%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13% 성장’이라는 구호는 명목 기준의 특정 시기 수치를 상징적으로 압축한 것이며, 실질 성장률은 약 10% 내외로 평가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든 구자라트가 인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가 닦이고, 항만이 건설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구자라트는 기업하기 좋은 주(Ease of Doing Business) 평가에서 인도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숫자 뒤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비판을 낳았습니다.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 무케시 암바니 등 구자라트 출신 재벌들이 모디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급성장했고, 토지와 자원이 특정 기업에 헐값으로 돌아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다니 그룹은 모디 재임기에 문드라 항만, 발전소, 부동산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모디가 총리가 된 뒤에도 이 관계는 인도 정치의 뜨거운 쟁점으로 남게 됩니다.

경제 지표는 화려했지만, 인간 개발 지표(HDI)에서 구자라트는 경제 규모에 걸맞은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01년 인도 전체에서 6위였던 구자라트의 HDI 순위는 2007~2008년에 11위로 떨어졌습니다. 영양실조율, 여성 문맹률, 영아 사망률에서 구자라트는 인도 평균 수준에 머물거나 그 아래였습니다. 인도중앙은행(RBI)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0년 구자라트의 사회 부문 예산 비중은 5.1%로, 거의 모든 주보다 낮았습니다. 성장은 있었으나 고용은 빈약했고, 파이는 커졌으나 분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런던정경대(LSE)의 연구진은 모디 재임기에 구자라트의 성장률이 '가속'했는지에 대해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차별적인 가속의 증거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자라트는 모디 이전에도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 중 하나였고, 강한 상업 전통과 기업가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정희 시대 고속 성장이 분배 논쟁을 낳았던 것처럼, 구자라트 모델도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디 자신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자주 참조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국가가 자원을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단기간에 외형적 성장을 이룬 뒤, 그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패턴. 그가 참조한 한국 모델의 빛과 그림자를, 구자라트는 시차를 두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구자라트 모델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디는 2002년, 2007년, 2012년 주 의회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하며 13년간 구자라트를 통치했습니다. 부패와 정책 마비에 지친 인도의 중산층과 청년층에게, 구자라트에서 솟아오르는 굴뚝과 24시간 불 켜진 마을의 풍경은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구자라트에서 한 일을 인도 전체에서 하겠다"는 모디의 약속은 2014년 총선의 핵심 공약이 되었습니다.

2012년, 미국 타임(TIME)지는 표지에 모디를 올리며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디는 비즈니스를 의미한다(Modi Means Business)." 국제사회에서 비자조차 받지 못하던 인물이 글로벌 미디어의 표지 모델이 되기까지, 그 사이를 메운 것은 바이브런트 구자라트의 무대 위 조명과, 사난드 공장에서 굴러나온 나노의 바퀴와, 18,000개 마을에 24시간 켜진 전구였습니다.

3.3 힌두 마음의 황제: 힌두 민족주의와 개발의 결합

2002년 12월, 구자라트 주 의회 선거 유세장. 나렌드라 모디가 연단에 오르자 수만 명의 군중이 하나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힌두 흐리다이 삼라트! 힌두 흐리다이 삼라트!"

힌두 마음의 황제. 이 칭호는 원래 마하라슈트라주의 극우 정치인 발 타케레이(Bal Thackeray)의 것이었습니다. 타케레이는 뭄바이를 거점으로 시브 세나(Shiv Sena) 당을 창설한 인물로, 선거 유세에서 무슬림에게 퇴장을 요구할 정도로 노골적인 힌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나는 힌두의 표만 있으면 된다"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칭호가 이제 모디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불과 열 달 전,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폭동의 그림자가 걷히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모디를 학살의 방조자로 낙인찍었고, 미국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며, 유럽 각국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BJP는 182석 중 127석을 쓸어 담으며 압승했습니다. 모디는 부활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상처를 자존심으로 바꾸는 기술

모디가 선택한 전략은 사과도, 변명도,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구자라트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치환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구자라트의 자존심(Asmita)을 짓밟으려 합니다." 그는 유세장마다 이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중앙 정부(당시 국민회의당 집권), 국제 언론, 인권 단체의 비판은 모두 "구자라트의 발전을 시기하는 반(反)구자라트 세력"의 공작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폭동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질문은, 6,000만 구자라트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프레이밍은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질수록 구자라트인들은 더 강하게 모디에게 결집했습니다. 야당인 국민회의(Congress)가 모디를 공격하면 할수록, 유권자들은 그 공격을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질투로 받아들였습니다. 크리스토프 자프르로(Christophe Jaffrelot) 파리정치대학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모디는 자기 자신과 구자라트 주를 일체화(Personification)시킴으로써, "모디를 반대하는 것은 곧 구자라트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슷한 장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비판을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하고, 지도자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정치 기술. 차이가 있다면, 모디는 그 결속의 핵심에 '종교'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황제와 CEO, 두 개의 역할

모디는 종교적 열정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힌두 마음의 황제'라는 칭호만으로는 장기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전국 무대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비카스 푸루시(Vikas Purush, 개발의 남자)'라는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모디는 힌두 민족주의라는 뼈대 위에 경제 성장이라는 살을 붙였습니다. 두 가지가 결합하는 방식은 정교했습니다.

선거 유세장에서 그는 힌두교의 가치와 문명적 자부심을 열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지지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관료들에게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요구했고, 기업인들에게는 친기업 정책과 인프라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사원(Temple)도 중요하지만 화장실(Toilet)도 중요합니다." 그가 즐겨 사용한 이 화법은, 종교적 보수층과 실용적 중산층을 동시에 포섭하는 장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두 종류의 지지자에게 동시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힌두 보수층에게 모디는 힌두교를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도시의 중산층과 기업인에게 모디는 유능한 CEO형 주총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역할을 하나의 서사로 통합한 것입니다. "힌두교도가 잘사는 것이 곧 구자라트의 발전이며, 인도의 발전이다." 이 등식이 완성되는 순간, 종교와 경제는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장점으로 가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오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군대

이 결합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자라트의 급격한 도시화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빈곤을 벗어나 소비 대열에 합류했거나, 합류하기를 열망하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모디는 이들을 '네오 중산층(Neo-Middle Class)'이라 불렀습니다. 전통적 카스트 구분보다 경제적 상승 욕구가 강하고, 동시에 힌두 문화에 대한 소속감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디는 이들에게 고속도로와 스마트 도시와 태양광 발전소를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힌두 사원 건립과 전통 문화 부흥을 내세웠습니다. 발전소는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었고, 사원은 영적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결합하자 네오 중산층에게 모디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정체성을 동시에 대변하는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모디가 구자라트에서 3연임에 성공한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BJP의 182석 중 127석(2002년), 122석(2007년), 115석(2012년) 의석은 이 결합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의석은 조금씩 줄었지만, 다른 주에서 한 번 이기기도 어려운 선거를 세 번 연속 이긴 것입니다.

가우라브 야트라에서 사도바나까지

모디는 이 권력의 서사를 전파하는 데에도 혁신적이었습니다. 2002년 선거 직전, 그는 '가우라브 야트라(Gaurav Yatra, 긍지의 행진)'를 조직했습니다. 구자라트 전역을 순회하며 "구자라트의 자부심"을 외치는 대규모 행진이었습니다. 이 행진에서 그는 '미안 무샤라프(Miyan Musharraf)'라는 표현을 사용해 무슬림과 파키스탄, 그리고 야당을 동일시하는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카스트에 따라 분열되어 있던 힌두 표심이 '힌두'라는 하나의 정체성 아래 뭉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디의 언어는 변화했습니다. 노골적인 종교 수사는 줄어들고, '개발'과 '구자라트의 자부심'이 전면에 배치되었습니다. 자프르로 교수는 이 과정을 '일상화된 힌두뜨바(Banal Hindutva)'라고 분석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공기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2012년에는 '사도바나 야트라(Sadbhavana Yatra, 화합의 행진)'라는 단식 농성을 벌이며 무슬림과의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무슬림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포용의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진정한 화해라기보다 전국 무대를 겨냥한 이미지 변신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구자라트의 무슬림 거주 지역(아메다바드의 주하푸라 같은 곳)은 경제적 번영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BJP 후보 명단에 무슬림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찰위원회(Sachar Committee) 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구자라트 무슬림의 빈곤률은 주 평균보다 높았고, 공공 부문 고용에서의 대표성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같은 해 모디는 또 하나의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3D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동시에 수십 곳의 유세장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입니다. 마치 신처럼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이미지는 '하이테크 지도자'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전통적 언론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2014년 총선에서 전국 규모로 확대됩니다(제4장 4.1 참조).

결합의 강력함, 그리고 그 대가

'힌두뜨바 + 개발' 결합이 강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체성 정치는 핵심 지지층을 강하게 결속시킵니다. 개발 담론은 중도층과 기업인에게 "이 사람을 지지해도 된다"는 정당화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들을 섞으면 동원과 확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공학의 관점에서 이보다 효율적인 조합은 드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비교 대상을 찾자면, '민족중흥'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국가 정체성과 경제 개발을 하나로 묶었던 시기가 떠오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 한국이 결합한 것은 민족주의와 산업화였고, 모디가 결합한 것은 종교적 정체성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발이었다는 점입니다. 종교는 민족보다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다수파인 힌두교도를 강하게 통합할수록, 소수파인 무슬림은 더 깊이 소외되었습니다. 구자라트의 경제적 번영은 힌두교도 중산층에게는 체감되었지만, 폭동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무슬림들에게 그 번영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교과서는 힌두 중심주의로 재편되었고, 사회적 분리는 고착화되었습니다. 아메다바드에서는 힌두 거주지와 무슬림 거주지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무슬림에게 힌두 구역의 집을 팔지 않는 관행이 공공연해졌고, '디스터번스 에리어 법(Disturbed Areas Act)'이라는 구자라트 주법은 이를 사실상 제도화했습니다.

"경제만 잘 돌아간다면 약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다." 이 인식이 구자라트 중산층 사이에 확산되었을 때,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주의는 조용히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좁은 무대에서 넓은 무대로

2014년, 모디는 구자라트라는 무대를 넘어 뉴델리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장'이라는 성과표가, 다른 한 손에는 '힌두의 자부심'이라는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구자라트에서 완성된 이 결합의 공식은 2014년 총선 슬로건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의 발전을 (Sabka Saath, Sabka Vikas)"로 세련되게 포장되었습니다. 부패와 무능에 지친 인도 유권자들에게 모디는 "내가 구자라트에서 한 일을 인도 전체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자라트가 실험실이었다면, 인도 전체가 이제 본무대가 될 터였습니다.

'힌두 마음의 황제'라는 칭호는 모디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정치인으로 만들었지만, 세속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협하는 징후로도 읽혔습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디가 구자라트에서 보여준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종교와 자본과 대중의 열망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내는 새로운 권력의 문법이었습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4장. 뉴델리 입성: 모디노믹스 (2014-2019)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4.1 2014년 압승: 소셜미디어·홀로그램 캠페인

2014년 4월의 어느 저녁,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한 마을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 이 마을의 공터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 바닥에 쪼그려 앉은 농민들이 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허공에서 빔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3미터 높이의 남자가 무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구자라트 주총리 나렌드라 모디였습니다. 그는 팔을 벌리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모디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모디는 빛으로 만든 분신, 3D 홀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 2014년 인도 총선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선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치의 문법 자체가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왕조, 떠오르는 차이왈라

모디가 등장하기 전, 인도 정치의 중심에는 네루-간디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하나의 가문이 건국 이래 여당의 총재를 독점해 온 셈입니다. 자와할랄 네루가 초대 총리(1947~1964)를 지낸 이래, 그의 딸 인디라 간디, 손자 라지브 간디가 총리를 역임했고, 2014년 당시 집권당인 국민회의(Congress)의 부총재는 라지브의 아들 라훌 간디(Rahul Gandhi)였습니다. 네루의 증손자가 4대째 정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회의 주도의 연립정부(UPA)는 10년간의 집권 끝에 심각한 피로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정부 관리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달아 터졌습니다. 2G 통신주파수 할당 스캔들(약 1.76조 루피 규모의 국가 손실 추정), 석탄 광구 배정 비리(Coalgate), 커먼웰스 게임 비리가 연달아 폭로되면서 “부패의 연립정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 9.6%였던 GDP 성장률이 2013년에는 6.4%로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정책 마비(Policy Paralysis)’라 불렀습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8억 명에 달하는 35세 이하 유권자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조의 후계자가 아니라,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틈새로 모디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외부자’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차를 팔던 하층 카스트 출신(제1장 참조). 가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심지어 배우자도 없는 남자. 그러나 구자라트에서 13년간 주총리를 하며 연평균 10% 넘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실적의 사나이. 모디는 자기 인생 자체를 선거 캠페인의 서사로 만들었습니다.

허공에 나타난 사나이: 홀로그램 유세

인도의 크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남한 면적의 33배. 유권자 8억 1,400만 명. 공용어만 22개. 물리적으로 모든 곳을 돌며 유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디 캠프는 이 불가능을 기술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구자라트 주 선거에서 시험한 홀로그램 기술(제3장 3.3 참조)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수입한 3D 홀로그램 장비, 200여 대의 고성능 프로젝터, 400여 개의 위성 안테나가 동원되었습니다.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무대가 인도 전역의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원리는 '페퍼스 고스트(Pepper's Ghost)'라 불리는 19세기 무대 기법의 디지털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무대 전면에 설치된 투명 호일에 빔을 쏘면 실물 크기의 3D 입체 영상이 허공에 떠오릅니다. 스튜디오의 모디가 손을 흔들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의 모디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1,300회 이상의 홀로그램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1,4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이 '가상의 모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밤하늘을 가르며 나타난 거대한 빛의 형상. 힌두 신화에는 신이 여러 장소에 동시에 현신(顯身)하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모디의 홀로그램은 의도했든 아니든, 그 신화적 상상력의 회로를 자극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인상이 수천만 명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BJP는 홀로그램 캠페인에만 약 60억 루피(당시 환율로 약 1,200억 원)를 투입했습니다. 인도 정치사에서 가장 비싼 선거 캠페인이었습니다. BJP 전체의 2014년 선거 지출은 공식 신고 기준 7,140크로르 루피(약 1.2조 원)에 달했고, 이는 국민회의당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스마트폰 속으로 침투하다: 소셜미디어 전략

홀로그램이 시골의 밤하늘을 장악했다면, 도시의 낮은 소셜미디어가 지배했습니다. 모디는 2002년 구자라트 폭동 이후 주류 언론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많은 기자와 편집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모디는 이 장벽을 뛰어넘기로 했습니다. 언론을 거치지 않고 유권자의 손바닥 위로 직접 들어가는 것.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왓츠앱(WhatsApp)이 그 통로였습니다.

2014년 5월 기준, 모디의 트위터 팔로워는 390만 명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는 1,300만 건. 세계에서 버락 오바마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 인도의 지방 주총리였습니다. 모디는 인도 정치인 최초로 구글 행아웃(Google Hangouts)을 통해 네티즌과 실시간 대화를 했고, 자체 모바일 앱 'NaMo App'은 1,0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현재 모디의 X(구 트위터) 팔로워는 1억 명을 넘어 세계 정치인 중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진짜 무기는 모디 개인의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BJP가 조직한 'IT 셀(IT Cell)'이라 불리는 디지털 작전 본부였습니다. 이 조직은 아미트 샤(Amit Shah)의 지휘 아래, 약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전국에 배치하여 모디의 메시지를 100여 개 언어로 번역하고, 왓츠앱 그룹을 거쳐 실시간으로 유포했습니다. 전국 10만 개 이상의 페이스북 그룹이 운영되었습니다. 농민에게는 농업 정책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여성에게는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는 맞춤형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동원 체계는 훗날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확산 통로라는 비판도 받게 됩니다. BBC 다큐멘터리 '인도: 모디 질문(India: The Modi Question)'은 IT 셀이 무슬림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다큐멘터리의 국내 상영을 차단했습니다.

약점을 무기로: '차이 페 차르차'

선거 과정에서 결정적인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회의의 한 지도부 인사 마니 샹카르 아이어 (Mani Shankar Aiyar)가 공개 석상에서 모디를 조롱했습니다. "차나 팔던 사람이 총리가 되겠다고?" 한국이었다면 상대방의 출신을 비하한 발언으로 역풍을 맞았을 겁니다. 인도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디는 이 모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차이왈라(Chaiwala)입니다. 기차역에서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고통을 압니다."

그리고 전국 1,000개 이상의 찻집을 위성으로 연결한 '차이 페 차르차(Chai Pe Charcha, 차 한잔의 대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모디가 델리의 스튜디오에서 차를 마시며 전국의 시민과 화상으로 대화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차를 팔던 소년이 차를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장면. 이것은 네루-간디 가문의 귀족적 이미지와 정확히 반대편에 놓인 서사였습니다. 야당이 모디를 '차 장수'라고 깎아내릴수록, 모디의 '흙수저 영웅' 서사는 더 빛났습니다.

282석, 그리고 그림자

2014년 5월 16일 개표일.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BJP 단독 282석. 연립 파트너까지 합하면 NDA(국민민주동맹) 336석. 1984년 이후 30년 만에 단일 정당이 과반 의석(272석)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국민회의는 44석으로 추락했습니다. 인도 의회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를 '모디 물결(Modi Wave)'이라 불렀습니다. 유권자들은 BJP에 투표한 것이 아니라, 모디라는 브랜드에 투표한 것이었습니다.

모디의 득표율은 31%였습니다. 인도의 다당제 구조에서 이 수치는 압도적이었지만, 바꿔 말하면 69%의 유권자는 모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 표의 분산이 거대한 의석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 구조적 특성은 2024년 선거에서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제9장 참조).

그러나 이 화려한 승리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모디의 캠페인은 대도시에서는 '개발(Vikas)'을 말했지만, 힌두교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Hindutva)가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2억 명에 달하는 인도 무슬림들에게 이 선거 결과는 경축이 아니라 경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디는 그렇게 뉴델리에 입성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홀로그램이라는 21세기의 도구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를 정복한 남자. 인도 정치는 이제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모디 대 나머지'의 구도로 재편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내각에서 총리실(PMO)로 급격히 이동했고, 모든 결정은 모디라는 하나의 깃대기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4.2 메이크 인 인디아: FDI 2배 증가, PLI 제도

2014년 9월 25일, 뉴델리 비기안 바완(Vigyan Bhawan) 컨벤션 센터. 무대 중앙에 톱니바퀴로 온몸이 이루어진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역동적이되 우아한 이 기계 사자는 인도의 국장(國章)인 아쇼카 사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로고 아래에는 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Make in India.' 모디 총리는 전 세계 투자자를 향해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인도에 오십시오. 여기서 물건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길을 닦겠습니다."

취임한 지 넉 달. 모디가 가장 먼저 꺼내 든 경제 카드였습니다. 왜 제조업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려면 인도 경제의 기형적인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IT 강국의 역설: 공장이 없는 나라

인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방갈로르의 IT 엔지니어, 실리콘밸리의 인도인 CEO들. 맞습니다. 인도는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IT 아웃소싱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순다르 피차이(구글),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파라그 아그라왈(전 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의 수장들이 인도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 기준 서비스업이 GDP의 약 57%를 차지하는 반면, 제조업은 고작 15~16%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약 27%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였습니다. IT 기업이 아무리 잘나가도, 코드를 짤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입니다. 매년 인도의 노동 시장에는 1,200만 명의 청년이 새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에서 매년 대학 졸업자가 50만 명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24배입니다. 이 젊은이들 대부분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손으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공장이었습니다.

모디는 이 문제를 구자라트에서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총리 시절 그는 타타 자동차의 나노 공장을 유치하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지도자의 명성을 쌓았습니다(제3장 3.2 참조). 이제 그 경험을 국가 단위로 확장할 차례였습니다. 그가 참조한 발전 모델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7장에서 다룹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다: FDI 규제 해체

메이크 인 인디아의 첫 번째 수순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빗장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독립 이후 인도 경제는 '허가의 왕국(License Raj)'이라 불릴 만큼 폐쇄적이었습니다. 공장 하나 세우려면 수십 개의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고, 외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려면 미로 같은 규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1991년 만만한 싱의 경제 자유화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국방, 철도, 보험 등 핵심 분야는 외국 자본에 문을 걸어잠근 상태였습니다.

모디는 이 문을 과감하게 열었습니다. 방위 산업의 FDI 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이후 조건부 100%까지 확대했습니다. 철도 인프라에 100% 외국 투자를 허용했고, 보험 분야도 26%에서 49%, 다시 74%로 올렸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외국 기업이 한국의 방위산업체나 철도공사에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과 유사한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구자라트에서 검증한 '레드 테이프를 레드 카펫으로' 전략을 전국에 적용했습니다. 수십 개로 나뉘어 있던 인허가 절차를 온라인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각 주(州) 정부가 투자 유치를 놓고 경쟁하도록 '경쟁적 연방주의(Competitive Federalism)'를 도입했습니다. 구자라트가 타타 공장을 따냈듯이, 이제 28개 주가 서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인도는 2014년 142위에서 2019년 63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5년 만에 79계단을 뛰어오른 것은 이 순위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세계은행은 이후 이 순위의 데이터 조작 의혹으로 2021년 순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순위 산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순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숫자가 반응했습니다. 2013-14 회계연도에 약 360억 달러였던 연간 FDI 유입액은 2020-21 회계연도에 81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글로벌 자본 흐름이 주춤하면서 2023-24 회계연도에는 약 714억 달러로 조정되었지만, 인도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의 최대 수혜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월마트의 플립카트(Flipkart) 160억 달러 인수, 구글과 페이스북의 릴라이언스 지오(Jio) 투자 등 대형 딜이 줄줄이 성사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모디의 부름에 답하다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의 흐름 속에 한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Noida)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축구장 35개를 합친 크기의 이 공장에서 매달 수백만 대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공식에는 모디 총리가 직접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모디는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잡으며 "삼성인 인도의 꿈을 함께 짓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삼성은 이후에도 노이다 공장을 확장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까지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부터 첸나이(Chennai)에 뿌리를 내린 '인도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바람을 타고 생산 능력을 확충하며, 인도 시장 점유율 2위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인도법인(Hyundai Motor India Limited)이 봄베이 증권거래소(BSE)에 상장하며, 인도 증시 역대 최대 IPO(약 279억 달러 기업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본사가 인도 법인의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LG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 시장에서 인도 가전의 기준을 새로 썼습니다. 포스코는 오디샤주 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토지 수용과 환경 규제 문제로 10년 넘게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는 인도에서 '레드 카펫'과 '레드 테이프'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55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한-인도 양국 관계의 밀도에 비해 아직 잠재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PLI: "더 만들면 돈을 주겠다"

메이크 인 인디아가 문을 열고 자본을 들였다면, 이를 실제 생산으로 연결한 핵심 장치는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였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2016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되었고, 이것이 PLI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PLI는 14개 핵심 산업 분야(스마트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섬유, 식품가공 등)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약 1.97조 루피(약 32조 원)에 달합니다.

작동 원리는 직설적이었습니다. 기업이 인도에서 생산을 늘리고 매출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4~6%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세금 감면 같은 간접 혜택이 아니라, 기업의 통장에 직접 돈이 꽂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사후적인 혜택이라면, 인도의 PLI는 "지금 만들어라, 지금 돈을 주겠다"는 즉각적인 당근이었습니다.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분야는 스마트폰 제조였습니다. 2014년 인도의 휴대폰 공장은 2개에 불과했고,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모디 정부는 완제품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

로 올리는 동시에, 국내 생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채찍과 당근'을 병행했습니다. 삼성, 폭스콘(Foxconn), 위스트론(Wistron) 등이 잇달아 공장을 세웠습니다. 2024년 인도는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국으로 부상했으며, 연간 생산량은 3억 대를 넘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인도에서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의 약 14%가 인도 공장에서 나오며, 이 비율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계 사자는 울부짖었지만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FDI는 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목적지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을 GDP의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여전히 1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려한 투자 유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한 일자리로 이어졌느냐는 질문 앞에서 모디노믹스는 궁색해졌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비판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장애물도 남아 있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려면 수년이 걸렸고, 전력 공급은 불안정했으며, 물류 비용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베트남이 6개월 만에 공장을 가동하는 동안 인도에서는 3~5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이 가동되기까지의 과정,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 포스코 오디샤 제철소의 끝없는 토지 분쟁. '레드 카펫'이 깔린 곳은 총리의 연설대 앞이었고, 공장 현장에는 여전히 '레드 테이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과실은 아다니(Adani)와 릴라이언스(Reliance) 같은 거대 인도 재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3년 1월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조사기관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가 아다니 그룹의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모디-아다니 관계는 국제적 쟁점으로 비화했습니다.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며칠 만에 1,500억 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아다니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인도 대법원은 규제 기관의 추가 조사를 지시했지만 직접적인 위법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디 1기의 메이크 인 인디아는 인도 경제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문을 열었고, 자본이 들어왔고,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투자가 까다로운 나라'라는 인도의 오래된 꼬리표는 '가능성의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3 디지털 인디아: 아다르 ID, 잔단 요자나, UPI 혁명

2015년의 어느 무더운 오후, 오디샤(Odisha)주의 한 오지 마을입니다. 홀어머니 수니타(가명)는 낡은 피쳐폰에 도착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봅니다. 정부 지원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읍내 관공서까지 반나절을 걸어야 했고, 창구에서 만난 하급 관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금의 30%를 떼어주어야 했습니다. 뒷주머니에 돈을 챙기는 관리를 탈탈 수도 없었습니다. 수니타에게는 자신이 수니타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문과 홍채 정보가 담긴 '아다르(Aadhaar)' 카드가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잔단 요자나(Jan Dhan Yojana)'로 만든 은행 통장에 1루피의 누수도 없이 전액이 꽂힌 것입니다.

모디가 인도의 낡은 신경망을 뜯어내고 새로운 디지털 혈관을 이식한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금융 문맹 13억의 나라

2014년, 인도는 거대한 역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인력을 배출하는 나라였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은행 계좌조차 없었습니다. 정부가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보내면 중간에서 다 새어 나갔습니다. 라지브 간디 전 총리가 1985년에 남긴 말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정부가 1루피를 보내면 빈민에게 도달하는 돈은 15파이사에 불과하다.” 보조금의 85%가 중간 브로커, 유령 수혜자, 부패한 관료의 호주머니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모디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기술로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도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잔단(Jan Dhan, 은행 계좌)’, ‘아다르(Aadhaar, 생체 인식 신분증)’, ‘모바일(Mobile)’. 이 세 가지를 묶어 ‘JAM 트리니티(JAM Trinity)’라 불렀습니다. 수천 년간 인도 사회를 지배해 온 ‘중간자(middlemen)’들의 권력을 박탈하고, 중앙정부와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거대한 권력 재편이었습니다.

잔단 요자나: 한 명도 빠짐없이 통장을 만들어라

2014년 8월 28일, 모디는 취임 첫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예고했던 ‘프라단 만트리 잔단 요자나(Pradhan Mantri Jan Dhan Yojana, 총리 국민 금융 계획)’를 전격 발표합니다. 핵심은 간명했습니다. 잔액이 0원이어도 계좌를 열어주겠다. 루페이(RuPay) 직불카드를 무료로 주겠다. 상해보험도 붙여 주겠다. 은행 문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영 은행 직원들이 태블릿 PC를 들고 시골 마을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출범 첫날에만 1,500만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첫 주에 1,809만 개의 계좌가 열려 기네스북에 ‘1주일간 가장 많은 계좌를 개설한 기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잔단 요자나로 개설된 은행 계좌는 5억 6,16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 67%가 농촌·준도시 지역 계좌이고, 56%가 여성 명의 계좌입니다. 총 예금 잔액은 2조 6,700억 루피(약 43조 원)에 이릅니다.

물론 빈 깡통 계좌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2025년 7월 기준 전체 계좌의 23%인 1억 3,040만 개가 비활성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통장들은 곧 정부 보조금이 직접 꽂히는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아다르: 14억의 지문을 찍다

잔단 요자나가 배관을 깔았다면, 아다르(Aadhaar)는 그 배관에 물을 흘려보내는 밸브였습니다. 12자리 고유 번호에 지문과 홍채 정보를 담은 생체 인식 신분증,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지만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원 증명입니다.

아다르는 모디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전임 만모한 싱 정부에서 난단 닐레카니(Nandan Nilekani) — 인포시스(Infosys) 공동창업자 — 가 인도고유식별번호청(UIDAI) 초대 의장으로 부임해 설계하고 출범시킨 프로젝트입니다. 닐레카니가 IT 기업인의 감각으로 만든 기술 플랫폼을, 모디가 정치적 의지로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현재 14억 인구의 99% 이상이 아다르를 발급받았습니다.

아다르, 잔단 계좌, 모바일이 결합되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빈곤층에게 보내는 식량 보조금, 가스 보조금, 장학금, 연금을 중간 단계 없이 수혜자의 통장으로 직접 쏘아주는 ‘직접 혜택 이체(DBT, Direct Benefit Transfer)’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블루크래프트 디지털 재단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DBT 시스템을 통해 누적 3조 4,800억 루피(약 56조 원)의 예산 누수를 차단했습니다. 식량 배급(PDS) 부문에서만 아다르 기반 인증으로 1조 8,500억 루피를 절감했고, 농민 지원 프로그램 PM-KISAN에서는 2,100만 명의 부적격 수혜자를 걸러내 2,210억 루피를 아꼈습니다. 수혜자 수는 2014년 1억 1,000만 명에서 17억 6,000만 명으로 16배 늘었는데, 보조금 지출은 총 예산 대비 16%에서 9%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뇌물을 주지 않아도, 띠링 하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경험. 이것이 모디에 대한 빈곤층의 철벽 지지로 직결되었습니다.

UPI 혁명: 짜이 한 잔도 QR코드로

은행 계좌 보급이 1단계,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이 2단계였다면, 3단계는 결제 방식의 혁명이었습니다. 2016년 4월 인도 국립지불공사(NPCI)가 출시한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Unified Payments Interface)'가 그 주인공입니다.

UPI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복잡한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QR코드만으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오픈 소스 플랫폼입니다. 중국의 알리페이가 특정 기업 중심의 폐쇄형 시스템이라면, UPI는 공용 철로와 같습니다. 구글페이, 폰페(PhonPe), 페이티엠(Paytm), 왓츠앱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 공용 철로 위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에는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현금 의존도가 절대적인 인도 사회에서 디지털 결제가 뿌리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의 화폐개혁(다음 절에서 다룹니다)이 충격 요법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갑 속 현금이 휴지가 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디지털 지갑을 설치했고, 상인들은 가게 앞에 QR코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Reliance)의 통신 자회사 지오(Jio)가 4G 데이터를 사실상 무료로 가까운 가격으로 풀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폭증했습니다. 지오의 공격적 가격 정책으로 인도의 모바일 데이터 가격은 1GB당 약 0.17달러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되었습니다. 기반 위에 연료가 부어진 셈이었습니다.

성장세는 경이로웠습니다. 2017년 1월 446만 건이었던 UPI 월간 결제 건수는 2025년 월간 185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연간 거래량은 2,283억 건, 거래액은 299조 7,000억 루피(약 4,800조 원)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UPI를 세계 최대의 실시간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 인정했고, ACI 월드와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UPI는 전 세계 실시간 결제 거래량의 약 49%를 차지합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이 전 세계 실시간 결제의 절반을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서문 참조). 2026년 초 기준 UPI 이용자는 5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바이의 고급 쇼핑몰에서 길거리 채소 노점까지, 릭쇼(삼륜차) 기사에서 사원의 기부금함까지, 인도 전역이 QR코드로 뒤덮였습니다. 10루피(약 160원)짜리 짜이 한 잔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뛰고 현금 사회에서 바로 모바일 핀테크 사회로 직행한 것입니다. 한국이 1990년대 신용카드 대중화를 거쳐 2010년대 카카오페이·삼성페이에 도달했다면, 인도는 그 과정을 한꺼번에 건너뛰었습니다.

UPI의 성공에 주목한 국제사회는 이 시스템의 수출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싱가포르의 페이나우(PayNow)와, 2024년에는 프랑스·영국 등과 UPI 연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만든 공공 디지털 인프라가 글로벌 표준의 하나로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빛과 그림자: 효율의 축복과 감시의 공포

세계은행(World Bank)은 인도가 다른 나라라면 47년이 걸렸을 금융 포용 과제를 6년 만에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Paul Romer)는 아다르를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술 혁신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전광판 뒤편에 그림자도 짙습니다. 14억 인구의 지문, 홍채, 금융 거래가 하나의 디지털 ID로 묶이면서, 국가가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디지털 파놉티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2017년 인도 대법원은 역사적인 K.S. 푸타스와미(Puttaswamy) 판결에서 프라이버시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선언하며, 아다르의 과도한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후속 판결에서 아다르를 복지 수급과 세금 신고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가입에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하층민들은 이 시스템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아다르 인증 오류로 식량 배급을 거부당해 사망한 사례가 라자스탄주 등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과 사기 사건도 급증했습니다. 2024-25 회계연도에 디지털 결제 관련 사기 건수는 1만 3,500건을 넘었습니다.

모디는 이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관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14억을 하나의 그물망 안에 넣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인디아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자비의 손이자, 권력의 렌즈이기도 했습니다.

4.4 구조개혁의 명암: 화폐개혁, GST, 스와치 바라트

2016년 11월 8일 저녁 8시, 인도 전역의 TV 화면에 모디 총리의 얼굴이 떴습니다. 국민들은 여느 때와 같은 연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문장은 폭탄이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현재 유통되는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는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정까지 4시간.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의 86%가 종잇조각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대통령이 "내일부터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못 씁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새 화폐는 아직 충분히 찍어놓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은 돈과의 전쟁, 혹은 무모한 도박

모디가 내세운 명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부패한 부자들이 침대 매트리스 밑에, 벽 속에, 논밭에 묻어둔 '검은 돈(Black Money)'을 끄집어내겠다. 국경 너머 파키스탄에서 유입되는 위조지폐를 차단해 테러 자금줄을 끊겠다. 인도를 현금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강제 전환하겠다.

이 결정을 알고 있던 사람은 총리 본인과 극소수 측근뿐이었습니다. 인도준비은행(RBI) 총재조차 발표 몇 시간 전야야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의 비밀을 유지한 채 이 규모의 경제적 충격을 가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대혼란: 줄 서다 죽은 사람들

발표 직후 인도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구권 지폐를 은행에 입금하고 신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은행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ATM기에서는 신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찍은

2,000루피 지폐는 크기가 달라 기존 ATM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줄에서 100명 이상의 시민이 탈진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현금 의존도가 절대적인 농촌 경제와 중소 상공업은 마비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종자를 살 현금이 없어 파종을 포기했습니다. 공장들은 임금을 줄 돈이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결혼식 시즌이었던 11월, 수백만 가정이 하객에게 대접할 음식을 살 현금이 없어 식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RBI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화폐개혁 직후 2016-17년 3분기 GDP 성장률은 7.5%에서 6.1%로 급락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CMIE)는 화폐개혁으로 1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전 RBI 총재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은 화폐개혁을 "장기적 비용이 단기적 이익을 압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99.3%의 아이러니

결과는 역설적이었습니다. 모디가 "소각하겠다"고 공언한 검은 돈은 소각되지 않았습니다. 무효화된 지폐의 99.3%가 은행으로 회수되었습니다. 부자들은 하인, 친척, 노숙자의 계좌를 동원해 돈을 분산 입금하는 등 온갖 편법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인도준비은행의 공식 보고서가 이 수치를 확인했을 때, 비평가들은 "정책의 목표 자체가 실패했다"고 공격했습니다.

2023년, 인도 대법원도 이 사안을 심리했습니다. 4대 1의 의견으로 화폐개혁의 합헌성은 인정했지만, 반대 의견을 낸 B.V. 나가라트나(Nagarathna) 대법관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이 규모의 경제적 충격을 가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모디의 완승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은 자신이 겪는 불편함을 "국가를 위한 애국적 희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행 앞에서 줄을 서면서도 "부자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모디는 이 감정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패 기득권과 싸우는 성전"이라는 프레임을 완벽하게 작동했고, 그에게 '행동하는 지도자', '청렴한 개혁가'라는 이미지를 굳혀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충격 요법은 앞서 다룬 UPI와 디지털 결제의 강제 확산을 앞당기는 의도치 않은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GST: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금

화폐개혁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2017년 7월 1일, 모디는 또 하나의 거대한 지뢰를 해체합니다.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이었습니다. 1947년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조세 개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인도는 주(State)마다 세법이 달랐습니다. 29개 주가 제각각 소비세, 부가가치세, 입국세, 오락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럭이 구자라트에서 타밀나두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주 경계를 넘을 때마다 세금을 내기 위해 검문소에서 며칠씩 대기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경기도세, 충청도세, 경상도세를 따로따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류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인도는 사실상 29개의 분리된 경제권이었습니다.

모디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금, 하나의 시장(One Nation, One Tax, One Market)”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01번째 헌법 개정까지 감행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앙세와 지방세를 단일한 GST로 통합한 것입니다.

시행 초기의 혼란은 극심했습니다. 0%, 5%, 12%, 18%, 28%의 다섯 구간으로 나뉜 세율은 “하나의 세금”이라는 슬로건과 정면으로 모순되었습니다. 빈번한 규정 변경과 IT 시스템 오류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세금 신고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야당은 GST를 “가바르 싱 텍스(Gabbar Singh Tax)”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이 안정되자 긍정적 효과가 드러났습니다. 주 간 검문소가 사라지면서 물류 이동 시간이 2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지하 경제 거래가 양지로 나오면서 세수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25년 4월 GST 월간 징수액은 2조 3,700억 루피(약 38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등록 납세자 수는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 8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75%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GST는 인도를 사실상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시켰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가 바로 이 GST 통합이었습니다.

스와치 바라트: 화장실이 사원보다 중요하다

경제 개혁과 나란히, 모디가 심혈을 기울인 사회 개혁이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일,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에 맞춰 시작된 ‘스와치 바라트 아비얀(Swachh Bharat Abhiyan, 클린 인디아 미션)’입니다.

모디는 붉은 성채(Red Fort) 연설에서 금기를 깬습니다. “사원을 짓는 것보다 화장실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힌두 민족주의자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청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2019년 간디 탄생 150주년까지 ‘야외 배변 없는 인도(Open Defecation Free India)’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숫자가 필요합니다. 2014년 당시 인도 농촌 가구의 62%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약 5억 5,000만 명이 야외 배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야외 배변 인구의 약 60%가 인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이것은 위생 문제를 넘어 안전과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적 없는 들판으로 나가야 하는 여성들은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정과 학교, 공공장소에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5년 동안 약 1억 1,000만 개의 화장실이 건설되었고, 2019년 10월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ODF(Open Defecation Free)’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모디 총리 자신이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은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안경 모양의 스와치 바라트 로고는 인도의 모든 지폐와 공문서에 인쇄되어 모디의 존재감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물론 화장실을 지어놓고도 창고로 쓰거나, 물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인도 국가표본조사국(NSS)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이 있는 가구 중에서도 실제 사용률은 95% 수준으로 10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문화적 관습이 인프라를 앞섰습니다. 그러나 위생 문제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가장 가난한 여성들의 일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캠페인은 모디에게 ‘간디의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선사했고, 농촌 여성들

사이에서 견고한 지지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통의 정치학

화폐개혁, GST, 스와치 바라트. 이 세 가지 구조개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수반했지만, 모디는 그 고통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국가를 위해 쓴 약을 삼키자”는 호소는 내셔널리즘적 감정과 결합해 역설적인 결집력을 발휘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조직적 무능을 애국심으로 포장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수십 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구조적 모순을 깨뜨린 유일한 지도자”라고 칭송했습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며 모디가 “어려운 결정을 피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굳혔고, 그 이미지가 2019년 재집권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5 안보 내셔널리즘: 우리 타격, 발라코트 공습

2019년 2월 26일 새벽 3시 30분, 인도 공군의 미라주(Mirage) 2000 전투기 편대가 어둠을 가르며 이륙합니다. 목표는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을 넘어 파키스탄 영토 깊숙한 곳, 카이베르 파크툽와(Khyber Pakhtunkhwa)주 발라코트(Balakot)에 위치한 테러 단체 훈련 캠프입니다. 1971년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인도 전투기가 파키스탄 국경을 넘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새벽의 출격은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안보 doktrine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자, 모디를 ‘인도의 수호자(Chowkidar)’로 각인시킨 정치적 모멘텀이었습니다.

전략적 인내의 폐기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떠올리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1947년 분리 독립 이후 네 차례 전쟁을 치른 두 나라는, 카슈미르(Kashmir)라는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묶여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ISI)은 테러 단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인도를 공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십 년간 벌여왔습니다. 2001년 12월 인도 의회(Parliament) 건물 자체가 무장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 9명이 사망했고, 2008년 11월에는 뭄바이에서 파키스탄 기반 테러 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LeT)의 무장 대원 10명이 타지마할 호텔 등을 60시간 동안 점거하며 166명을 살해했습니다.

역대 인도 정부의 대응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Restraint)’였습니다. 핵무장 국가 간의 확전을 우려해, 외교적 항의와 국제 사회 호소에 그치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한 것입니다. 2008년 뭄바이에서 166명이 사망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만모한 싱 정부는 군사적 보복을 자제했습니다. 많은 인도 국민이 느낀 감정은 분노와 무력감이었습니다.

모디의 등장은 이 공식을 바꾸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처음에는 평화의 제스처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취임식에 파키스탄 나와즈 샤리프 총리를 초대했고, 2015년 크리스마스에는 샤리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예고 없이 파키스탄 라호르를 깜짝 방문하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파탄코트 공군 기지 테러가 터지자, 모디는 냉정하게 판을 뒤집었습니다. “대화와 테러는 양립할 수 없다.”

우리(Uri): 통제선을 넘다

2016년 9월 18일, 카슈미르의 우리(Uri) 지역에 위치한 인도 육군 기지에 파키스탄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침투했습니다. 새벽 기습으로 19명의 인도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인도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사건 발생 11일 후인 9월 29일 밤, 모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 육군 특수부대(Para SF)가 야간을 틈타 통제선을 도보로 넘어 침투했습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의 테러리스트 발진 기지(Launch Pads)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고, 상당수의 테러리스트와 파키스탄 군 관계자를 사살한 뒤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다음 날 이를 '외과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식 발표'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인도군이 비공식적으로 통제선 부근에서 소규모 작전을 수행한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적으로 LoC 월경 작전을 인정하고 홍보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의 "인도는 핵 보유국인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볼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우리: 외과수술적 타격(Uri: The Surgical Strike)〉으로 만들어져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영화 속 대사 "하우스 더 조시?(How's the Josh? — 사기가 어떻습니까?)"는 모디 지지자들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모디는 선거 유세장에서 이 대사를 직접 외치기도 했습니다.

폴와마와 발라코트: 1971년 이후 최초의 공습

2019년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2월 14일, 더 큰 비극이 터졌습니다. 잠무 카슈미르의 폴와마(Pulwama)에서 폭약을 가득 실은 차량이 중앙예비경찰부대(CRPF) 수송 행렬에 돌진했습니다. 40명의 대원이 사망했습니다.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테러 단체 자이쉬-에-무함마드(JeM, Jaish-e-Mohammed)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자살 폭탄 테러범이 파키스탄 국적자가 아니라, 카슈미르 현지 출신의 22세 청년 아딜 아메드 다르(Adil Ahmed Dar)였다는 사실입니다. 카슈미르의 급진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모디는 군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2일 후인 2월 26일 새벽, 인도 공군 미라주 2000 전투기 편대가 파키스탄 영공을 침범해 발라코트의 JeM 훈련 캠프에 정밀 유도탄을 투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타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수부대의 지상 침투가 아니라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이었고, 통제선 인근이 아니라 파키스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핵무장 국가 간에 공군력을 동원해 상대방 영토 깊숙이 폭격을 감행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비난단 중령과 60시간의 위기

다음 날 파키스탄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국 전투기 간의 공중전(Dogfight)이 벌어졌고, 인도 공군의 구형 미그-21(MiG-21) 전투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조종사 아비난단 바르타만(Abhinandan Varthaman) 중령이 파키스탄군에 생포되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핵 보유국 둘이 전면전 직전까지 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압력과 모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직면한 파키스탄 임란 칸(Imran Khan) 총리가 “평화의 제스처”라며 아비난단 중령을 60시간 만에 송환했습니다. 콧수염에 붕대를 감은 채 당당하게 인도 쪽 국경을 넘어온 아비난단 중령의 모습은 TV를 통해 인도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그는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비난단은 비르 차크라(Vir Chakra) 훈장을 받았고, 2022년 그룹 캡틴(Group Captain)으로 진급했습니다.

진실 공방,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

발라코트 공습의 실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수많은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주장했지만, 로이터, AP 등 서구 언론과 유럽 위성 분석 기관 디지털 글로브(DigitalGlobe)의 위성 사진 분석은 “폭탄이 숲에 떨어져 나무만 쓰러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공습 다음 날 외국 기자단을 현장에 데려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디에게 팩트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 국민들이 느낀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우리 전투기가 적의 안방까지 쳐들어갔다.” 이 감정의 에너지를 자신의 권력으로 치환하는 것이 모디의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안보가 선거를 집어삼키다

발라코트 공습은 2019년 총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실업률 상승, 농촌 경제 침체, 화폐개혁의 후유증 등 모디 정부의 경제적 실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야당 국민회의당(INC)의 라훌 간디는 프랑스제 라팔(Rafale) 전투기 도입 비리 의혹을 파고들며 공세를 폈습니다. “초키다르 초르 하이(Chowkidar Chor Hai, 파수꾼이 도둑이다)! ”

모디는 이 공격을 역이용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 앞에 ‘Chowkidar(파수꾼)’를 붙이고, “#MainBhiChowkidar(나도 파수꾼이다)”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지지자들이 자신의 SNS 이름 앞에 ‘초키다르’를 붙였고, 온라인은 온통 “나도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유세장에서 모디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적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때린다(Ghar mein ghus ke marenge)! ”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실업, 물가, 농민 부채 같은 생활밀착형 이슈는 ‘국가 안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야당의 경제 실정 비판은 ‘반국가적 행위’로 매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안보 내셔널리즘이라는 양날의 검

결과는 모디의 압승이었습니다. 2019년 총선에서 BJP는 2014년의 282석보다 많은 303석을 차지했습니다. 안보 내셔널리즘과 힌두 민족주의가 결합한 폭발적 시너지의 결과였습니다.

모디는 인도의 대외적 전략을 ‘수세적 방어’에서 ‘적극적 억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우리 타격과 발라코트 공습은 군사적 효용성을 넘어, 14억 국민에게 “우리는 강대국이다”라는 심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칼에는 양날이 있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야당은 “파키스탄의 영웅이 되려는 자들”로 매도되었고, 비판적 언론은 “국가의 적”으로 몰렸습니다. 카슈미르의 무슬림 주민들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안보 내셔널리즘은 인도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갑옷이 되었지만, 동시에 인도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적 공간을 압축하는 프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5월,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다시 한번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카슈미르 파헬감(Pahalgam)에서 관광객 26명이 살해된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모디 정부는 인더스강 수계 조약(Indus Waters Treaty)의 사실상 중단, 외교관 추방, 영공·항구 봉쇄 등 2019년을 넘어서는 수준의 조치를 취했고, 양국 간 군사적 교전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듯했습니다. 이 사태의 전개는 제9장에서 다룹니다.

모디가 인도 정치에 도입한 '안보 내셔널리즘'이라는 도구는, 그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를 가두기도 하는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한번 깨어난 대중의 보복 심리는, 지도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5장. 힌두트바 실현: 모디 2기 (2019-2024)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5.1 힌두 의제 완성: 370조 폐지, CAA, 람 사원

2019년 8월 5일, 뉴델리의 습기가 의사당 건물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방 상원(라자 사바) 연단에 아미트 샤(Amit Shah) 내무장관이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슈미르(Kashmir) 계곡에서는 이미 3만 5천 명의 추가 병력이 배치를 마쳤고, 전화선과 인터넷이 차단되었으며, 전직 주총리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이 가택 연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미트 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헌법 370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당이 함성과 야유로 동시에 들끓었습니다. 70년 동안 인도 정치의 성역이었던 조항이, 단 몇 시간 만에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370조였을까요. 이 조항을 이해하려면, 1947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인도의 건국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카슈미르를 다스리던 힌두교도 왕(마하라자) 하리 싱은 무슬림이 인구 다수인 자기 영토를 인도에 편입할지, 파키스탄에 편입할지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측 무장 세력이 카슈미르를 침공하자, 하리 싱은 인도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며 편입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헌법 370조, 카슈미르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 보장이었습니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카슈미르는 자체 헌법, 자체 깃발, 자체 법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하나의 나라 안에 제주도가 별도의 헌법과 별도의 국기를 가지고, 나머지 한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이 조항은 참을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안에,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만 특별 대우를 받는 셈이니까요. 모디가 몸담았던 RSS(민족의용단)와 그 정치적 분신인 BJP(인도국민당)는 수십 년간 370조 폐지를 당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제1장 1.3 참조).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도 이 뇌관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카슈미르 문제는 핵무장 국가 파키스탄과 직결되어 있었고, 잘못 건드리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디는 달랐습니다. 2019년 총선에서 2014년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둔 그는, 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BJP는 303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했고, 모디는 이를 “힌두트바(Hindutva, 힌두 민족주의) 의제를 실행하라는 국민적 위임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취임 후 불과 3개월, 그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밀함으로 370조를 제거했습니다. 대통령령을 통해 370조의 법적 기반을 허물고, 의회에서 재편법을 통과시켜 잠무-카슈미르라는 하나의 주를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라는 두 개의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y)로 쪼갰습니다. 주(州)에서 직할지의 격하. 이는 자치에서 중앙 직접 통치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모디와 아미트 샤는 이를 “한 국가, 한 헌법, 한 깃발”의 실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힌두 지지층에게 이 소식은 축제였습니다. 잠무 지역 힌두교도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고, 인도 전역의 BJP 지지자들

은 불꽃놀이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카슈미르 계곡의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5개월간 인터넷이 차단되었고, 수백 명의 정치 활동가가 구금되었으며, 통행금지 속에 800만 주민의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2023년 12월, 인도 대법원은 370조 폐지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사법적으로도 모디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카슈미르 주민들의 눈에 이 판결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영원히 지워진 확인서에 가까웠습니다.

370조 폐지의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2019년 12월, 모디 정부는 또 하나의 뇌관을 터뜨렸습니다. 시민권 개정법(Citizenship Amendment Act, CAA)입니다. 이 법의 표면은 인도주의적입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온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자인교, 파르시교 신자만 해당되고, 무슬림은 빠진다는 것. 인도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가 시민권 부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법이 국가 시민 등록부(NRC)와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민권 증빙 서류가 없는 가난한 무슬림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지만, 같은 처지의 힌두교도도 CAA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슬림만 국적을 잃고 구금 센터로 보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델리 남부의 샤heen 바그(Shaheen Bagh)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시작했고, “우리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겠다(Kagaz Nahi Dikhayenge)”는 구호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2020년 2월에는 뉴델리 북동부에서 힌두-무슬림 간 유혈 충돌이 벌어져 5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무슬림이었습니다(2002년 구자라트 폭동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제3장 3.2 참조).

CAA는 제정 후 4년 넘게 시행 규칙이 공고되지 않은 채 사문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3월 11일, 총선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 모디 정부가 시행 규칙을 전격 공고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힌두 민족주의 지지층에게 보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CAA에 따라 실제로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태. CAA는 법률이라기보다 상징 정치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요디아(Ayodhya)의 람 사원(Ram Mandir) 건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2월, 힌두 극우 세력 수만 명이 아요디아의 바브리 모스크(Babri Masjid)를 맨손으로 부숴했습니다. 16세기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이 이슬람 사원 자리가, 힌두교의 신 라마(Ram)의 탄생지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원 파괴 후 벌어진 종교 폭동으로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은 현대 인도 역사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7년 뒤인 2019년 11월, 인도 대법원은 이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분쟁 부지에 힌두 사원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인정하며, 그 땅을 힌두교 측에 넘겨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스크를 파괴한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2020년 8월 5일, 370조 폐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날, 모디 총리는 아요디아를 방문해 람 사원 착공식(부미 푸잔, Bhoomi Pujan)을 주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를 강타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모디는 은벽돌을 직접 놓고 힌두 사제들과 함께 의식을 치렀습니다. 사원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는 찬드라칸트 솀푸라(Chandrakant Sompura)였습니다. 구자라트 출신의 이 노건축가는 3대에

걸쳐 힌두 사원을 설계해 온 가문 출신으로, 높이 161피트(약 49미터)의 나가라(Nagara) 양식 사원을 구상했습니다. 분홍빛 라자스탄 사암으로 지어진 이 거대한 건축물은 철근을 쓰지 않는 전통 공법을 고집했습니다. 1천 년을 건널 사원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총선을 몇 달 앞두고 거행된 축성식(프라나 프라티슈타, Pran Pratishtha)에서 모디는 사실상 힌두교의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증인으로 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선 자리는 제단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모디는 이 사원이 “수세기에 걸친 노예 심리로부터의 해방”이며, “인도 문명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굴 제국의 유산을 지우고, 인도의 정체성을 힌두교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사 전쟁의 승전보였습니다. 개장 첫날 50만 명이 몰렸고, 2024년 한 해 동안 아요디아를 찾은 방문객은 1억 3,550만 명에 달했습니다.

370조 페지, CAA 제정, 람 사원 건설.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놓으면 각각 헌법 문제, 이민 정책, 종교 시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묶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인도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세속 국가’에서 ‘힌두 국가’로 바꾸는 일관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뿌리는 RSS 창립 이래 이어져 온 힌두트바 이데올로기에 닿아 있습니다(제1장 1.2 참조). 지지자들에게 모디는 약속을 지킨 결단력의 지도자였습니다. 반대자들에게 그는 헌법이 보장한 다원주의를 허무는 분열의 장본인이었습니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 모디는 RSS가 창립 이래 꿈꿔 온 핵심 의제를 모두 현실로 만들었고, ‘힌두 흐리다이 삼라트(Hindu Hriday Samrat)’, 힌두 마음의 황제라는 칭호를 더 이상 비유가 아닌 사실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대한 정치적 지각변동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주(州)마다 제각각이었던 법 체계가 중앙으로 통합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간소해진 측면이 있었지만, 종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은 공급망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이다 공장, 현대차의 첸나이 공장에 인도의 ‘사회적 통합’이란, 정치 분석 보고서 속 문장이 아니라 공장 정문 앞 시위대의 규모와 직결되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5.2 코로나19 대응: 봉쇄, 백신 마이트리, 경제부양

2020년 3월 24일 밤 8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제스처는 없었습니다. 굳은 표정, 낮은 목소리. “오늘 밤 12시부터 21일간 인도 전역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예고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13억 8천만 인구에게 주어진 준비 시간이, 단 4시간이었습니다. 기차가 멈췄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도로 위에서, 현대사에서 비극적인 장면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에는 약 1억 명의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을 떠나 대도시의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일하며, 고향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1970~80년대 서울로 올라온 시골 청년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다릅니다. 1억 명입니다. 봉쇄령이 떨어지자, 이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돈도 없고, 교통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띄엄띄엄 아래, 아기를 안고, 짐을 이고, 걸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330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1차 봉쇄 기간에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 가운데 약 3,500만 명이 걷거나 비정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공식 집계만으로 198명이 이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굶주림과 탈진으로 쓰러진 이들까지 합하면 실제 숫자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모디 정부의 ‘준비 없는 충격 요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모디의 봉쇄 결정에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의료 인프라는 14억 인구를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0.5개에 불과했고, 시골 지역의 의료 시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인도 전역에 퍼지기 전에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규모의 봉쇄를 단행한 것입니다. 모디는 이를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전쟁에 비유하며,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21일만 견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냄비를 두드리고 촛불을 켜라고 요청했고, 수백만 명이 발코니로 나와 그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중의 심리를 결집시키는 능력, 이것은 모디가 가진 강력한 정치적 재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쇄가 벌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21년 봄에 도착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병상은 바닥났으며, 산소가 사라졌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산소통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절박한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의료용 산소의 일일 수요는 4월 12일 3,842톤에서 5월 초 11,000톤으로 세 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산소를 운반할 극저온 탱크로리는 전국에 1,200대뿐이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 나시크의 한 병원에서는 산소 탱크 누출로 22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델리에서는 소형 산소통이 원래 가격의 25배인 2만 5천 루피에 암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화장터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갠지스강 위로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인도 정부의 공식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약 4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 발표한 초과 사망(excess mortality) 추정치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WHO는 2020~2021년 인도의 코로나19 관련 초과 사망자가 약 47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식 통계와 열배 가까운 차이. 이 숫자는 인도 정부가 격렬히 반박했지만, 화장터와 묘지의 데이터, 지방 행정 기관의 사망 신고 기록이 WHO의 추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모디에게 향했습니다. 2021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는 “인도는 많은 생명을 구한 나라 중 하나”라고 자축했습니다. 그 직후 서벵골 주 선거를 위한 대규모 정치 집회가 열렸고, 힌두교 최대 축제인 쿨브 멜라(Kumbh Mela)에 수백만 명이 갠지스강에 모여 목욕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쿨브 멜라가 열린 우타라칸드주에서는 그 기간 코로나19 전파율이 1,800% 급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모디 정부가 방역보다 선거와 종교 행사를 우선시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모디가 꺼내 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백신 마이트리(Vaccine Maitri, 백신 우정)’입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Pharmacy of the World)’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제약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사인 인도혈청연구소(SII)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코비실드(Covishield)’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했고, 바라트 바이오텍이 자체 개발한 ‘코백신(Covaxin)’도 승인되었습니다. 모디는 이 제조 능력을 외교 무기로 바꿨습니다. 자국민 접종이 아직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이웃 나라들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90여 개국에 2억 3천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무상 제공하거나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시노백 백신으로 개발도상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을 때, 인도가 그 대항마로 나선 것입니다. 백신 병마다 모디의 이름이 새겨졌고, 수혜국 정상들은 모디에게 감사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모디는 이를 인도 고대 철학인 ‘바수다이바 쿠투바캄(Vasudhaiva Kutumbakam, 온 세상은 한 가족)’의 실천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있을 때, 인도가 글로벌 리더의 책임을 보여줬다는 서사였습니다. 비록 2차 대유행 때 국내 백신 부족으로 수출을 중단하는 곡절을 겪었지만, 백신 마이트리는 인도의 소프트 파워를 크

게 끌어올린 외교적 성과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인프라가 위기 대응의 핵심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모디 1기 때 구축한 아다르(Aadhaar) 신분증 시스템과 연동된 디지털 백신 접종 플랫폼 '코윈(CoWIN)'을 통해, 인도는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10억 회 접종을 달성했습니다(디지털 인디아와 UPI 결제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 대해서는 제4장 4.3 참조). 14억 인구의 백신 접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모디 정부가 추진해 온 '디지털 인디아'의 실전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돌파하기 위해 모디가 내건 슬로건은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 자립 인도)'였습니다. 2020년 5월, 그는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20조 루피(약 2,66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이 구호는, 한국의 1970년대 '수출입국' 정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현금 살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8억 명이 넘는 빈곤층에게 무상 곡물을 제공하는 식량 안보 프로그램(PMGKAY)으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구조개혁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PMGKAY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으로 시작되었지만, 정치적 인기에 힘입어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말, 모디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억 명에게 매달 5킬로그램의 쌀이나 밀을 무상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의 연간 비용은 약 2조 루피(약 240억 달러). 세계 최대 규모의 식량 복지 정책이 사실상 영구화된 것입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를 도입해 반도체, 전자, 제약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했고, 중소기업(MSME)에 담보 없는 대출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은, 모디에게 "중국을 떠나 인도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기업들에게 보낼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에도 즉각적인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이다 공장과 현대차의 첸나이 공장이 봉쇄로 멈춰 섰고, 글로벌 매출에 타격이 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코로나19는 한국 기업들에게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인도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고, 모디 정부는 PLI 제도라는 당근을 흔들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는 주요 경제국 중 빠른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2025년에는 일본을 넘어 세계 4위 경제 대국에 등극했습니다. 인구 14억의 내수 시장과 젊은 노동력, 디지털 인프라가 만들어낸 성장 동력이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 결과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모디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고통이라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 그리고 '포스트 차이나'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역설적 기회.

모디 2기의 코로나19 대응은 그의 통치 방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미흡한 준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민첩성과 취약한 사람들이 먼저 쓰러지는 구조적 잔혹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는 백신을 나르고 경제를 부양하며 권력을 다졌지만, 갠지스강 위에 떠오른 시신들은 그 권력이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5.3 내부 저항: 농민 시위, 언론 자유 논란

2021년 11월 19일 아침,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TV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날은 시크교 창시자 구루 나낙(Guru Nanak)의 탄생일, 인도 북부 최대 명절 구루푸라브(Gurpurab)였습니다. 평소의 단

호한 어조는 간데없었습니다. 모디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법을 만들었지만, 일부 농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취임 이후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무릎 꿇린 것은 야당도, 국제사회의 압력도 아니었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수도로 올라온 농민들이었습니다.

세 개의 법, 하나의 분노

사건은 1년 2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9월, 모디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농업 관련 3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농산물 유통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기존의 정부 관리 도매시장, 즉 만디(Mandi) 체제를 넘어 농민이 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면 중간 수수료가 줄고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가 제조업을 바꿨듯, 농업도 시장의 힘으로 현대화하겠다”는 모디노믹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펀자브(Punjab)와 하리아나(Haryana)의 농민들에게 이 법안은 ‘생존에 대한 사형선고’로 읽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소지원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이었습니다. MSP는 1960년대 녹색혁명 이후 인도 농업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제도로, 연방정부가 밀·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소 구매가격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쌀 수매 제도에 해당합니다. 정부 관리 만디가 약화되면, MSP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은 직감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아다니(Adani)나 릴라이언스(Reliance) 같은 거대 농식품 기업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은 그들의 하청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 과정도 분노를 키웠습니다. 상원에서 야당이 표결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구두 투표로 날치기에 가깝게 처리되었습니다. 헌법상 농업은 주(州)의 관할 사항인데, 연방정부가 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는 법안의 내용만큼이나, 모디식 일방통행 국정 운영 자체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델리 찰로: “나, 델리로 간다”

2020년 11월, 펀자브와 하리아나에서 수만 명의 농민이 트랙터를 몰고 뉴델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델리 찰로(Dilli Chalo)’, 힌디어로 “델리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입을 막았지만, 농민들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델리 진입이 차단되자, 그들은 싱후(Singhu), 티크리(Tikri), 가지푸르(Ghazipur) 등 수도 외곽의 주요 경계 지점을 점거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 침구, 발전기, 세탁기까지 갖추고 일종의 자치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시크교 전통의 공동 주방 랑가르(Langar)에서는 하루 세 끼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자원봉사 의사들이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농민 단체가 ‘통합 농민 전선(Samyukta Kisan Morcha)’을 결성하며 카스트, 종교, 지역을 넘어선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될 현장이었습니다.

정부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시위 현장 주변에 쇠못을 박고 콘크리트 바리케이드를 세웠으며,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여당 인사들과 친정부 미디어는 시위대를 ‘칼리스탄(Khalistan, 시크교 분리주의)

테러리스트'나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인도의 공화국 기념일에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일부 폭력 사태로 번지고 시위대 일부가 붉은 요새(Red Fort)에 진입하자, 정부는 이를 빌미 삼아 탄압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2월의 영하 추위, 6월의 50도 폭염,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1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 단체 집계 기준 700명 이상이 추위, 질병, 사고,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 숫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거부했습니다.

왜 모디는 물러섰는가

그렇다면 1년 넘게 버티던 모디는 왜 갑자기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했을까요. 답은 인도 정치의 작동 방식에 있었습니다. 2022년 초, 인도의 '민심 풍향계'로 불리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와 편자브주의 선거가 코앞이었습니다. 농민 시위의 불길에 BJP의 핵심 지지 기반인 우타르프라데시 서부의 자트(Jat) 농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표심을 잃으면 모디 3기(Modi 3.0)로 가는 길이 끊길 수 있었습니다.

권력은 결국 투표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디는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2021년 12월, 의회가 공식적으로 3개 법안을 폐기했고, 농민들은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요구한 MSP의 법적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농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드론으로 최루탄을 투하했습니다. 법안은 사라졌지만, 갈등의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1월, 농민 지도자 자그짓 싱 달레왈(Jagjit Singh Dallewal)이 MSP의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달레왈의 단식은 52일간 이어졌고, 73세 노인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서 전국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단식 중단을 권고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디 정부가 농민 법안을 철회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농민들의 근본적 요구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재갈 물린 펜: 언론 자유의 추락

농민 시위가 도로 위의 저항이었다면, 모디 2기의 또 다른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의 입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인도의 순위는 모디 집권 이후 꾸준히 추락했습니다. 2014년 140위였던 순위는 2023년 161위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도 159위에 머물렀습니다. 180개국 중 하위권, '심각한(very serious)' 등급입니다. RSF는 인도의 언론 환경을 "비공식적 비상사태(unofficial state of emergency)"라고 표현했습니다.

언론 통제는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첫째, 미디어 소유 구조의 재편입니다. 모디 총리와 가까운 재벌들이 주요 언론사를 사들이면서 비판적 목소리가 사라져 갔습니다.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의 릴라이언스 그룹은 70개 이상의 미디어를 소유하며 8억 명의 인도인에게 도달하는 거대 미디어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말,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 그룹이 인도의 대표적 비판 언론이던 NDTV를 인수한 사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RSF는 이를 "주류 언론의 다원성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 시민들은 이런 친정부 미디어를 '고디 미디어(Godi Media)'라고 불렀습니다. '고디'는 힌디어로 '무릎'이라는 뜻인데, '모디(Modi)'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권력의 무릎 위에 앉은 애완견 언론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한국 독자에게 이 상황은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70~80년대 한국에서도 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하고, 보도 지침을 내려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도에서는 국가가 직접 언론을 소유하는 대신, 친정부 재벌이 시장 논리를 빌려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사법적 탄압입니다. 모디 정부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선동죄와 대테러법인 불법활동방지법(UAPA)을 언론 통제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케랄라 출신 기자 시디크 카판(Siddique Kappan)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집단 성폭행 사건을 취재하러 가다가 체포되어, 테러 공모 혐의로 2년 넘게 수감되었습니다. 팩트체크 매체 '알트 뉴스(Alt News)'의 공동 설립자 모하메드 주베이르(Mohammed Zubair)는 과거 트윗을 문제 삼아 구속되었습니다. 뉴스 포털 '뉴스클릭(NewsClick)'은 중국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UAPA 수사를 받았고, 창립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취재 자체가 범죄가 되는 나라에서, 기자들은 자기 검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외신에 대한 보복입니다. 2023년 1월, 영국 BBC가 2002년 구자라트 폭동 당시 모디의 역할을 다룬 다큐멘터리 "인도: 모디 문제(India: The Modi Question)"를 방영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즉시 유튜브와 트위터에서 해당 영상 링크를 차단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이 다큐를 상영하려던 학생들은 구금되었습니다. 며칠 뒤, 세무 당국이 델리와 뭄바이의 BBC 사무소를 급습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비판적 보도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었습니다(모디의 안보 민족주의의 기초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4장 4.5 참조).

인도는 인터넷 차단에서도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디지털 권리 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인도에서 시행된 인터넷 차단 횟수는 700회를 넘었습니다. 카슈미르에서의 장기 차단, 농민 시위 현장에서의 차단,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명목으로 한 차단까지. 5년 연속 세계에서 인터넷 차단을 가장 많이 시행한 나라라는 기록이었습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인도를 '자유 국가'에서 '부분적 자유 국가'로 강등했습니다.

농민들은 바리케이드를 뚫었습니다. 그들의 트랙터는 입법부의 독주를 멈춰 세웠고, 선거라는 민주적 장치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그 승리를 전할 마이크는 하나 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14억 인구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그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디 2기의 인도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5.4 아다니 사태: 정경유착 의혹

2023년 1월 24일, 뉴욕의 한 사무실에서 보고서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사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다니 그룹: 세계 3위 부호는 어떻게 기업 역사상 최대의 사기를 저질렀는가." 106페이지에 담긴 폭로는 이후 열흘 만에 1,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0조 원의 시가총액을 증발시켰습니다. 인도 증시 전체가 휘청였고, 보고서의 충격파는 대양을 건너 뉴델리의 정치판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업 스캔들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다니 그룹의 운명은 모디 총리의 권력과 정확하게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짜이 파는 소년과 다이아몬드 중개상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는 대학을 중퇴하고 뭄바이에서 다이아몬드 중개상으로 시작한 인물입니다. 모디와 마찬가지로 구자라트 출신이고, 자수성가했으며, 겸손한 출발점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두 사람의 궤적이 교차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모디가 구자라트 주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입니다.

모디가 '바이브런트 구자라트(Vibrant Gujarat)' 투자 유치 행사를 열 때, 아다니는 가장 앞줄에서 돈을 대고 사업을 실행하는 파트너였습니다. 모디는 토지를 할당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했으며, 아다니는 항만과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제3장에서 살펴본 '구자라트 모델'의 이면에는 이 두 사람의 공생 관계가 있었습니다(제3장 3.3 참조).

2014년 5월, 모디가 총리로 당선되어 뉴델리로 향할 때 그가 탄 비행기의 동체에는 '아다니(ADANI)'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총리 당선자가 특정 기업의 전용기를 타고 수도에 입성하는 장면은 인도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두 사람의 관계를 압축하는 한 장의 사진으로 기억합니다.

인프라 제국의 탄생

모디 집권 이후, 아다니 그룹의 팽창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항만, 공항, 전력, 석탄, 방산,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미디어까지. 정부가 공항 민영화를 추진하자, 공항 운영 경험이 전무한 아다니 그룹이 묵바이를 포함한 6개 주요 공항의 운영권을 독식했습니다. 환경 규제가 완화된 곳에서는 석탄 광산이 승인되었고,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를 인수하며 해외로도 뻗어 나갔습니다. 가우탐 아다니의 자산은 급증하여 한때 세계 부호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2A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A는 아다니(Adani)와 암바니(Ambani)입니다. 모디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이 두 재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야당 지도자 라훌 간디(Rahul Gandhi)는 의회에서 모디와 아다니가 함께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총리가 된 뒤 아다니의 자산이 어떻게 이렇게 늘었습니까?" 모디는 끝내 아다니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독자에게 이 구도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자원을 특정 기업에 몰아주어 고속 성장을 이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재벌 모델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 성장은 치열한 수출 경쟁을 통해 검증되었지만, 아다니의 성장은 주로 정부 인프라 사업의 독점적 수주에 기반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아닌 정치적 연줄이 성장 엔진이었다는 의혹, 그것이 아다니 사태의 핵심입니다(제3장 3.3의 정실 자본주의 논의 참조).

힌덴버그의 폭탄

2023년 1월 24일에 공개된 힌덴버그 보고서는 2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물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아다니 일가가 모리셔스, 아랍에미리트, 카리브해 등 조세 회피처에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들을 통해 아다니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부풀려진 주가를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위험한 레버리지 구조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셋째,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대주주 지분율을 75%로 제한하는 규정을 역외 법인을 이용해 우회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힌덴버그는 아다니 그룹의 주요 상장사가 "85% 이상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열흘 만에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매체의 표현에 따르면, 증발한 금액은 코스타리카 전체 GDP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25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는 전격 취소되었고, 가우탐 아다니는 세계 부호 순위 3위에서 단숨에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씨티그룹은 아다니 채권의 담보 가치를 0으로 책정했고, S&P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를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인도에 대한 공격”

아다니 그룹은 413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내놓았습니다. 힌덴버그의 주장을 “맨해튼의 매도프(사기범)”가 쓴 “계산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면서, 보고서의 진짜 목적은 “특정 회사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인도의 독립성과 성장 스토리에 대한 계산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업 비리 의혹을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모디 정부와 BJP도 같은 논리에 올라탔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야당의 합동조사위원회(JPC) 구성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야당 의원의 마이크가 꺼지고 발언 기록이 속기록에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훌 간디는 아다니 관련 발언을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아 한때 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인도 대법원은 SEBI에 조사를 명령했지만, SEBI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2024년 1월, 대법원은 별도의 특별수사팀(SIT) 구성이 불필요하다며 SEBI의 조사를 신뢰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힌덴버그가 후속 보고서를 통해 SEBI 위원장 자신이 아다니 그룹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규제 기관의 독립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시자를 감시할 사람이 없는 구조, 그것이 인도 금융 시장이 마주한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아다니 사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가 가우탐 아다니와 그의 조카 사가르 아다니(Sagar Adani)를 뇌물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기소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다니 측이 인도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2억 6,500만 달러(약 3,500억 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 뇌물은 인도 여러 주의 전력 구매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다니 그룹은 즉각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우탐 아다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법 체계 안에서 제기된 이 기소는, 힌덴버그 보고서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매도 투자사의 보고서는 시장의 판단에 맡길 수 있었지만, 연방 대배심의 기소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케냐는 아다니 그룹과의 공항 건설 계약을 취소했고, 여러 국제 금융기관이 아다니와의 거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야당은 즉시 모디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총리와 가장 가까운 사업가가 미국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총리는 왜 침묵하는가.” 그러나 모디와 BJP는 이번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장 모델의 그림자

아다니 사태가 남긴 질문은 기업 한 곳의 비리 여부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모디노믹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디의 경제 전략은 '내셔널 챔피언(National Champion)' 모델입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을 국가가 육성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고 성장을 견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글로벌 경쟁을 통해 재벌의 역량을 검증받았다면, 아다니의 사업은 대부분 국내 인프라 독점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정치적 연줄이 성공의 열쇠인 구조에서는 효율성보다 충성이, 혁신보다 인맥이 보상받습니다.

야당은 이를 '크로니 캐피탈리즘(Crony Capitalism, 정실 자본주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립 인도 (Atmanirbhar Bharat)'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국가 주도 성장이 실제로는 소수 측근 재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디 정부가 도입한 '선거 채권(Electoral Bonds)' 제도가 불투명한 기업 기부금을 집권당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다니 그룹은 살아남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GQG 파트너스가 19억 달러를 투자하며 신뢰를 회복시켰고, 주가는 서서히 반등했습니다. 2024년 6월 무렵,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힌덴버그 보고서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가우탐 아다니도 다시 세계 부호 상위권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의 미국 기소로 주가는 다시 급락했고, 아다니 그룹은 또 한 번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권력은 때때로 화려한 공항 터미널과 거대한 항만 크레인 뒤에 자신을 숨깁니다. 로버트 카로가 뉴욕의 도로와 다리 뒤에서 로버트 모지스의 권력을 추적했듯, 아다니 사태는 인도의 고속도로와 발전소 뒤에 숨은 권력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힌덴버그의 보고서에서 시작된 의혹은, 미국 법무부의 기소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숫자를 감시하고,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은, 모디 3기를 맞이한 인도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6장. 글로벌 리더십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6.1 다중 제휴 전략: 미국(쿼드)·러시아(BRICS) 균형

2024년 7월 8일 저녁,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료보(Novo-Ogaryovo) 대통령 관저. 3연임에 성공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나렌드라 모디가 전용기에서 내렸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악수 대신 양팔을 벌렸고,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격정적인 포옹을 나눴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를 '곰 포옹(Bear Hug)'이라 불렀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날 러시아 미사일이 키이우의 오희마딧(Okhmatdyt) 어린이 병원을 강타해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다음 날이면 워싱턴에서 나토(NATO) 창립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병원 잔해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세계에서 피비린내 나는 범죄자를 포옹하는 모습은 거대한 실망이자 평화에 대한 파괴적 타격이다."

하지만 모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푸틴과 테라스에서 짜이(Chai)를 마시고, 골프 카트를 타고 관저의 마구간을 구경하며 네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전통적인 남아시아 이웃 국가 대신 모스크바를 택한 것은 관례를 깬 일이었습니다. 서방의 시각에서 이 장면은 배신에 가까웠지만, 모디에게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권력의 문법이었습니다.

왜 그는 하필 이 시점에, 하필 이 장소를 택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모디가 설계한 '다중 제휴(Multi-alignment)'라는 외교 전략의 궤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과거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시절 인도의 외교 원칙은 '비동맹(Non-alignment)'이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소극적 중립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 재편될 때도 인도는 한동안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디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모두의 편에 서서, 오직 인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공세적 실리주의를 택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풀어 말하면, 동네의 모든 유력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만 챙기는 영리한 처세술입니다. 다만 그 동네가 지구 전체이고, 유력자들이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 전략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숫자로 드러납니다. 먼저 러시아 쪽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인 2021년, 인도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5~20달러 폭락하자, 모디 정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24~25 회계연도에 이르면 러시아는 인도 원유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 원유의 세계 최대 수입국 자리를

군했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50배 가까운 폭증입니다. 인도의 정유사들은 이 싼 원유를 정제하여 디젤과 항공유로 만든 뒤 유럽에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챙겼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Reliance Industries)는 2024년 12월,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Rosneft)와 하루 50만 배럴 규모의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인도의 외무장관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Subrahmanyam Jaishankar)는 서방의 비판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유럽이 하루 오후에 사들이는 러시아산 가스가 인도가 한 달간 수입하는 원유보다 많다.” 그의 발언은 인도 국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위성 국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14억 인도인의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모디는 미국으로부터도 최고 수준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워싱턴 국민 방문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백악관 만찬에 모디를 초대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는 드문 영예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디는 두 번째 합동 연설을 한 인도 총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선물 보따리도 화려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엔진(GE F414)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고고도 무인기(MQ-9B) 도입 합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icron)의 인도 투자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은 왜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디의 행보를 묵인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14억 인구의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유일한 대항마입니다. 모디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4자 안보 대화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그것이 나토(NATO) 같은 군사동맹으로 변질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쿼드가 ‘반중국 봉쇄 전선의 전초기지’로 비치면 중국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모디는 쿼드를 해양 안보,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 표준, 인프라 협력 같은 실용적인 기능별 묶음으로 활용했습니다. 군사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실익은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모디는 러시아·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도 핵심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2024년 브릭스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 등을 받아들이며 확장되었을 때, 인도는 이 플랫폼을 달러 중심 금융 구조의 개혁과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를 요구하는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브릭스가 중국 주도의 반서방 블록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테이블에 앉되, 중국의 테이블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이 정교한 줄타기에 예상치 못한 파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가 의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살해된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가 하르딕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jjar)의 죽음에 인도 정부가 개입했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 존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인도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양국은 외교관을 서로 추방했고, 인도-캐나다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파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미국 법무부(DOJ)는 인도 정부 요원으로 지목된 니킬 굽타(Nikhil Gupta)를 미국 땅에서 시크교 분리주의 활동가 구르파트완트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파트너인 인도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는 혐의는 양국 관계의 근저를 흔드는 사안이었습니다. 인

도 정부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지만, 서방의 시선은 냉랭해졌습니다. 모디가 국제 무대에서 쌓아온 '책임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미지에 깊은 흠집이 생긴 것입니다 (제3장 3.4 참조).

설상가상으로,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에 새로운 시험대를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무역의 큰 악당"이라 부르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 압박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시기에 쌓아 올린 인도-미국 관계의 밀월이 재조정(recalibration)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모디 정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 미국을 역으로 압박하는 대답함을 보였습니다. 인도의 외교적 유연성은, 어느 한 축이 흔들릴 때 다른 축으로 무게를 옮기는 시소의 역학에 가까웠습니다.

모디의 이런 행보는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와 겹치는 지점이 많습니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이라는 안보의 기둥과 한중 경제 관계라는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며 '전략적 모호성'을 고민할 때, 모디는 14억 인구와 거대 시장이라는 무기를 들고 '전략적 선명성'을 주장합니다. "인도는 평화의 편이며, 인도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이 문장에는 모호함이 없습니다.

권력은 드러내지 않을 때 강력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모디는 그 법칙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세계 무대에서 화려하게 전시했습니다. 푸틴과의 포옹도, 바이든과의 악수도, 시진핑과의 회담도 모두 14억 인도의 생존과 부상을 위한 연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모디에게 외교는 명분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비즈니스이며, 다중 제휴는 인도가 강대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모디는 지금 전 세계에 그만의 해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미국과의 외교 위기, 트럼프 2기의 관세 압박은 이 해법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 균열이 금으로 번질지, 아니면 봉합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6.2 G20 의장국: 글로벌 사우스 맹주

2023년 9월 9일 오전, 뉴델리 중심가의 프라가티 마이단(Pragati Maidan) 단지 안에 새로 지어진 복합 컨벤션 센터 '바라트 만다팜(Bharat Mandapam)'.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의장석에서 황금빛 의사봉을 내려쳤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연합을 G20의 정식 회원으로 맞이합니다." 55개국을 대표하는 아프리카 연합(AU) 의장이 연단으로 걸어 나오자, 모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G20 창설 이래 극적인 확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 지역 기구가 정식 회원이 된 것입니다. 13억 인구의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장면을 연출한 사람은 모디였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G20 의장국을 한 번 맡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디에게 2023년의 G20은 국제 행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도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라는 서사를 14억 국민의 가슴에 새기는 정치적 대관식이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디가 이 무대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추적해보면, 권력이 이미지를 먹고 자라는 메커니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모디는 G20을 뉴델리라는 한 도시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인도 전역 60개 도시에서 200회 이상의 관련 회의를 열어 전 국토를 G20 전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잔 바기다리(Jan Bhagidari)', 즉 '국민 참여'라는 이름 아래 시골 마을 학생들까지 G20 퀴즈 대회에 참가시켰습니다.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7,000만 명 이상이 이 참여 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G20은 관료들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모디의 선언은 사실상 "이 성공은 나의 성공이고, 곧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국민에게 "우리도 해냈다"는 자부심을 심어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모디는 G20에서 추구했습니다. 다만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이고, G20은 외교 무대라는 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모디가 G20에서 보여준 주목할 리더십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대변자를 자임한 것이었습니다. G20 본회의가 열리기 훨씬 전인 2023년 1월, 모디는 전 세계 125개 이상의 개발도상국 정상들을 화상으로 불러 모아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정상회의(Voice of Global South Summit)'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곧 인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한 문장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지쳐 있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국가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화상 형식의 G20 정상회의를 한 차례 더 성공적으로 주관함으로써,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이 용어가 한국 독자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진국 클럽인 G7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세계, 주로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세계의 압도적 다수이지만,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테이블에서는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국가들입니다. 모디는 이 거대한 다수의 목소리를 자신이 대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대표적 성과가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이었습니다. 2023년 6월, 모디는 G20 회원국 정상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AU의 정식 가입을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의 55개국을 하나의 목소리로 묶어 세계 경제 논의에 참여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이 제안은 여러 이익이 겹치는 수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필요한 표를 모을 수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맞서 아프리카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자체의 운영도 모디의 외교적 수완이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G20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중국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공동선언문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예비 회의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합의가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시진핑은 불참했고, 푸틴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가 점쳐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디는 물밑에서 치열한 문구 조정을 벌였습니다. 서방이 요구하는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 대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하고, 전쟁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영토 보전의 원칙을 강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3개 조항 전체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뉴델리 정상선언(New Delhi Leaders' Declaration)'이 나왔습니다. 성장, 기후, 에너지, 디지털 전환, 개발 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담은 이 선언은 "중재자 인도"의 역량을 증명하는 외교

적 승리였습니다.

모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G20을 말잔치가 아닌 실물 성과의 플랫폼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바이오 연료 동맹(Global Biofuel Alliance)을 출범시켜 에너지 전환의 의제를 선점했고,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의 양해각서(MOU)를 성사시켰습니다. IMEC는 인도에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항만·에너지·데이터 연결 구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서방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사우디, UAE,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서명에 참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023년 10월 이후 격화된 가자 분쟁이 중동의 역학을 뒤흔들면서, IMEC의 실질적 진전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현실이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인도가 자국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를 글로벌 사우스에 전파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전 국민 생체 인식 신분증 ‘아다르(Aadhaar)’와 통합 결제 시스템 ‘UPI’를 다른 개발도상국에 무료로 전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4장 4.2~4.3 참조). “우리의 기술이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는 메시지는, 인도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나라로 격상시키려는 포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과 겹치는 지점입니다. 다만 인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국이 만든 기술 모델 자체를 세계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권력의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정상들이 이동하는 길목의 슬럼가는 대형 가림막으로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수천 명의 노점상이 거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빛나는 인도’를 보여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잠시 지워져야 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는 ‘인디아(India)’ 대신 고대 산스크리트어 국명 ‘바라트(Bharat)’가 적힌 명패가 놓였는데, 이는 영국 식민 유산을 지우고 힌두 문명 국가의 정체성을 내세우려는 모디의 민족주의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제3장 3.2 참조).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G20 회원국들이 인도의 시민·정치적 권리 후퇴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그 목소리는 축제의 소음에 묻혔습니다.

공동선언문의 우크라이나 관련 문구를 둘러싼 타협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방 일부에서는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모디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낸 의장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모디는 이 무대에서 도덕적 심판자가 아닌 철저한 실리 추구자로 서 있었습니다.

G20의 성공은 곧바로 국내 정치 자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도 거리 곳곳에 모디의 얼굴과 G20 로고가 담긴 포스터가 도배되었고, 집권당 BJP는 “인도가 비슈와 구루(Vishwa Guru, 세계의 스승)로 복귀했다”고 선전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한 모디의 강력한 정치적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이 G20이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라는 타이틀은 구호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개발도상국의 요구, 부채 부담, 기후 자원, 식량 가격, 디지털 격차 같은 절박한 문제들을 국제회의의 문서와 제도로 번역하고, 그 과정에서 선진국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모디는 G20 의장국을 맡으며 바로 그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인도 자신이 거대한 신흥국이자 시장 국가이기에 “대변자”이면서 “당사자”라는 이중 정체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내부에도 이해충돌은 존재합니다. 부채국과 채권국, 산유국과 비산유국, 중국과의 거리를 두려는 나라와 가까이하려는 나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선언문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라트 만다팜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서구의 명령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디는 G20이라는 무대를 통해 인도를 '회의장 운영자'에서 '의제 설계자'로 올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없던 자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21세기 권력이 작동하는 세련된 방식임을 그는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증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니다. 하지만 첫 발은 분명히 내디뎠습니다.

6.3 인도-태평양 전략: 액트 이스트(Act East), 중국 견제

2014년 11월, 미얀마 네피도(Nay Pyi Taw). 동남아시아 정상회의장에 선 나렌드라 모디는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인도의 '룩 이스트(Look East)' 정책은 이제 '액트 이스트(Act East)' 정책이 됩니다." '보다'를 '행하다'로 바꾼 것뿐인데,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인도는 동남아시아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 시선을 거둬들이고 직접 뛰어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모디는 취임 반년 만에 이토록 서둘러 외교 정책의 이름표를 바꿨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먼저 인도의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내건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라는 거대한 그물망이 인도를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미얀마의 차우크푸 항구, 그리고 지부티의 해군 기지.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점들은 인도를 병풍처럼 둘러싸는 형태를 이룹니다. 전략가들은 이를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인도 입장에서 그것은 목을 조여 오는 올가미에 가까웠습니다. 모디는 '보고만 있으면 질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액트 이스트의 본질은 동남아시아와 더 친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가 남아시아의 울타리를 넘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광활한 해양 공간에서 자기 자리를 찾겠다는 지정학적 도약이었습니다. 모디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2018년 공화국 선포일 행사에 아세안(ASEAN) 10 개국 정상들을 모두 초청하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인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뉴델리의 라지파트(Rajpath) 대로를 동남아 정상들이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도는 이제 남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시각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디의 동쪽 행보에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든 것은 회의장이 아니라 전장이었습니다. 2020년 6월, 히말라야의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했습니다 (제4장 4.5 참조).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양측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총기 사용이 금지된 접경 지대의 관례에 따라 양측 군인들은 쇠파이프와 못 박힌 곤봉, 돌멩이로 싸웠습니다. 인도군 20명이 전사했습니다. 해발 4,000미터가 넘는 차갑고 어두운 협곡에서 벌어진 이 원시적 전투는, 인도에게 하나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 국경의 평화도 따라올 것이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갈완 이후 모디 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관리'에서 '견제'로 급선회했습니다. 틱톡(TikTok)을 비롯한 중국산 앱 수백 개가 하룻밤 사이에 인도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동시에 차단한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의 인도 내 투자에는 정부 사전 승인이 필수가 되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가입도 막판에 철회되었습니다. 관세 장벽 없이 밀려들 중국 제조품이 '메이크 인 인디아'를 박살낼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모디는 대외적으로 "국경의 평화 없이 정상적인 관계도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내적으로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를 외쳤습니다 (제4장 4.1 참조).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장기적 국가 과제로 설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디가 꺼내든 외교적 카드가 쿼드(Quad)였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4자 안보 대화 체제입니다. 과거 인도는 비동맹의 전통에 따라 쿼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완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모디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쿼드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백신 파트너십, 신기술 공급망, 해양 감시(MDA) 등 실질적인 협력을 주도했습니다. 말라바르(Malabar) 해상 훈련에서는 4개국 해군이 대잠전과 방공 작전을 함께 수행하며 실전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모디는 절묘한 선을 그었습니다. 쿼드가 나토(NATO)처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는 분명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인도의 국방 무기 상당수가 여전히 러시아제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대량 수입했습니다. 서방이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물을 때, 모디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편입니다.” 이것이 인도가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실체입니다. 쿼드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브릭스(BRICS)에서는 비서방 진영과 손을 잡으며, 러시아에서는 싼 원유를 사고, 미국에서는 제트 엔진 기술을 이전받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앉되 어느 한쪽에 완전히 묶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2024년 10월, 예상치 못한 해빙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실제지배선(LAC)에서의 군사 이격(disengagement)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4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히말라야 국경의 긴장이 한 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같은 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모디와 시진핑(Xi Jinping)은 5년 만에 공식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국경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외교·안보 분야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갈완의 피로 점철된 관계에 봉합의 실이 꿰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가 인도의 서쪽 국경에서 터졌습니다. 2025년 4월, 카슈미르 파할감(Pahalgam)에서 무장 세력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기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 규정했고, 양국 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완화되는 순간에 파키스탄과의 위기가 고조된 것은, 모디의 다중 전선 외교가 가진 구조적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한 전선을 봉합하면 다른 전선이 열리는 지정학적 딜레마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모디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모디는 한국을 중국 제조업을 대체할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핵심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이다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인도 내수 시장 2위에 올라선 것은 모디의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 즉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의 한 축에 한국을 배치하겠다는 국가 설계의 일부입니다 (제7장 7.3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바지라(Vajra, 벵라)’라는 이름으로 히말라야 국경에 배치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군과 대치하는 인도 육군에게 한국의 기술력은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모디는 한국 기업들에게 “레드 테이프(관료주의)를 없애고 레드 카펫을 깔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면서도 무역 분야 협상에는 불참했습니다.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열어주겠다며 유혹하면서도 문턱은 낮추지 않는 인도의 모순, 이것이 한국 기업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디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를 미-중 패권 경쟁의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중국과는 이격 함의로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쿼드와 아르테미스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유대는 더욱 강화하는 것. 그것이 모디가 설계한 21세기 인도의 생존법입니다. 그 전략이 빨라질수록, 한반도와 인도 대륙을 잇는 보이지 않는 줄은 더욱 팽팽해질 것입니다.

6.4 우주 강국: 찬드라얀 3호 달 착륙

2023년 8월 23일 오후 6시 4분(인도 표준시), 벵갈루루의 ISRO 관제센터. 수백 명의 과학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Chandrayaan-3)'가 달 표면을 향해 마지막 하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업계에서 '공포의 15분'이라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엔진을 역분사 하며 속도를 줄이고, 센서가 지형을 읽고,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착륙 지점을 수정합니다. 지구에서 신호가 도달하는 데만 1.3초가 걸리니, 이 순간만큼은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며칠 전, 러시아의 루나 25호가 바로 이 단계에서 제어를 잃고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우주 강국 러시아도 실패한 그 관문을, 인도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착륙선 비크람(Vikram)의 고도 수치가 줄어듭니다. 100미터, 50미터, 10미터. 그리고 0. 화면에 "India is on the Moon"이라는 문구가 떴을 때, 관제센터는 환호로 뒤집어졌습니다. 사리를 입고 이마에 빈디를 찍은 여성 과학자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모디 총리는 화상 화면 앞에서 인도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승리이자, 인류 전체의 승리입니다."

인도는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내려본 적 없는 달의 남극(South Pole) 부근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인도였습니다.

이 성공이 더욱 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의 실패입니다. 2019년 찬드라얀 2호는 착륙 직전 통신이 끊기며 달 표면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ISRO 위원장 K. 시반(K. Sivan)이 실의에 빠져 눈물을 흘리자, 모디 총리가 그를 안아주며 "삶에는 기복이 있습니다"라고 위로한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이 그 포옹에 함께 울었습니다. 찬드라얀 3호의 성공은 그 눈물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ISRO는 2호의 실패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분석했습니다. 착륙선의 다리를 보강하고, 연료를 늘리고, 착륙 알고리즘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모든 실패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실패 기반 설계(Failure-based Design)'를 적용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설계도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착륙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찬드라얀 3호에 투입된 예산은 약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0억 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의 제작비(1억 6,500만 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달에 간 셈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인도에는 '주가드(Jugaad)'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서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임기응변의 지혜를 뜻합니다. 한국어로 옮기면 '없으면 없는 대로 굴린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찬드라얀 3호에도 이 정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나사(NASA)처럼 고출력 로켓으로 달까지 직선으로 날아가는 대신, 인도는 지구 궤도를 빙빙 돌며 중력의 힘을 빌려 속도를 높이는 '슬링샷(Slingshot)' 방식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연료를 획기적으로 아꼈지만, 달까지 4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느리지만 싸고, 싸지만 정확한 길. 짜이를 팔며 한 푼 한 푼 아끼는 법을 체득한 소년의 생존 감각

이 국가의 우주 공학에까지 스며든 것처럼 보입니다 (제1장 1.1 참조).

사실 인도의 우주 이야기는 찬드라얀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됩니다. 1960년대, 인도는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였습니다.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우주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인도 우주 개발의 아버지’ 비크람 사라바이(Vikram Sarabhai) 박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넓은 영토에 흩어진 수억 인구에게 날씨 정보를 전하고, 재난을 예보하고, 오지의 학교에 교육 방송을 보내려면 인공위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주 기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초기 ISRO의 과학자들은 로켓 부품을 자전거 짐칸에 싣고 발사장으로 날랐고, 소달구지로 위성 코를 운반했습니다. 성당 건물을 빌려 관제소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의 ‘헝그리 정신’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ISRO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유산 위에 새로운 층을 쌓았습니다. 그는 국가가 독점하던 우주 산업의 문을 민간에 열었습니다. 2020년 민간 우주 진흥 기구인 ‘IN-SPACe’를 설립하여 스타트업들이 ISRO의 시설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카이루트(Skyroot)는 인도 최초의 민간 로켓을 쏘아 올렸고, 아그니쿨(Agnikul)은 3D 프린팅으로 로켓 엔진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디는 “우주 분야의 족쇄를 풀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것은 인도판 스페이스X(SpaceX)의 탄생이었습니다.

달 남극을 목표로 삼은 것 자체가 전략적 계산이었습니다. 달 남극에는 영구 음영 지역이 많아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은 식수가 될 뿐 아니라,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소는 로켓 연료입니다. 미래에 달 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화성으로 나아가려면, 달 남극은 ‘우주관 주유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Artemis) 계획과 중국의 창어(嫦娥) 계획이 모두 달 남극을 겨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도가 그곳에 먼저 도달함으로써,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닌 달 남극의 자원 경쟁에서 독자적인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6월,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에 서명했습니다. 27번째 서명국이 된 것입니다. 이 협정은 달과 화성 등 우주 탐사의 원칙을 규정하는 다자 프레임워크로, 사실상 미국의 우주 질서에 편입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별도의 국제달연구기지(ILRS)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도가 아르테미스 쪽에 깃발을 꽂은 것은 우주에서도 ‘다중 제휴’의 한 축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쿼드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미국과 기술을 공유하되, 독자적 역량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양면 전략입니다.

모디는 착륙 지점에 ‘시브 샤크티(Shiv Shakti)’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힌두교의 창조와 파괴의 신 시바(Shiva)와 우주적 에너지를 뜻하는 샤크티(Shakti)의 결합입니다. 2019년 추락한 찬드라얀 2호의 충돌 지점은 ‘티랑가(Tiranga, 인도 삼색기)’로 명명했습니다. 실패의 현장에 국기의 이름을, 성공의 현장에 신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과학 위에 문명을 얹고, 기술 위에 정체성을 덧씌우는 모디의 서사 전략이 우주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 3.2 참조).

찬드라얀 3호의 뒤를 이어 쏟아진 성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발사된 태양 관측 위성 아디티아-L1(Aditya-L1)은 2024년 1월 라그랑주 L1 지점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지점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 균형점으로, 위성이 최소한의 연료로 태양을 끊임없이 관측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인도는 달 남극에 이어 태양 관측의 프런티어에도 발을 디뎠습니다.

다음 목표는 인도인 우주비행사를 자체 우주선으로 쏘아 올리는 유인 프로젝트 '가간얀 (Gaganyaan, 하늘의 탈것)'입니다. 2024년 2월, 무인 시험비행(TV-D1)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승무원 탈출 시스템과 우주선 모듈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유인 비행 목표 시점은 2026년으로 재설정되었습니다. 성공한다면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독자적으로 우주비행사를 궤도에 올린 네 번째 나라가 됩니다. 2035년까지 독자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2040년에는 인도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장기 로드맵도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독자에게 이 이야기는 묘한 울림을 줍니다. 한국 역시 누리호를 쏘아 올리며 독자적 우주 발사 능력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인도의 저비용 고효율 발사 기술과 한국의 정교한 전자·통신 기술이 결합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요? 실제로 양국은 달 탐사 데이터 공유와 우주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아르테미스 협정의 서명국이라는 사실은, 미래의 달 탐사에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소달구지로 위성을 나르던 나라가, 달의 어둡고 차가운 곳에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고, 태양을 향한 관측소를 띄우고, 유인 우주선의 시험비행까지 마쳤습니다. 그 여정은 모디 개인의 업적이 아닙니다. 60년 전 자전거에 로켓 부품을 싣고 달리던 과학자들의 꿈이, 수만 명의 엔지니어 손끝을 거쳐, 38만 킬로미터 밖 달 남극의 먼지 위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궤적은 달 너머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7장. 한국과 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7.1 역사적 기초: 타고르 '동방의 등불', 허왕후 전설, 1973년 수교

2019년 2월 2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서울평화상 수상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상금 20만 달러 전액을 갠지스강 정화사업 기금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이 아니라 13억 인도 국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부심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기이한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서기 48년, 인도의 아유타국(Ayuta) 공주 수리라트나(Suriratna)가 부모의 꿈에 나타난 신의 계시를 따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가락국. 그녀는 김수로왕과 혼인하여 허황옥(Heo Hwang-ok), 즉 허왕후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이 전설 속 부부를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사실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아유타'가 인도 북부의 아요디아(Ayodhya)를 가리키는 것인지,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인도 측의 동시대 기록이 없고, 후대의 민족주의적 재해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에서 좋은 이야기는 때로 조약보다 오래갑니다. 사람의 마음에 붙는 서사가 한번 생기면, 그 위에 정상회담과 투자 협정과 방산 계약 같은 차가운 숫자들이 안정적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모디 총리는 이 전설의 외교적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5년 방한 시, 2019년 서울평화상 수상 시, 한국 교민 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한국과 인도는 사돈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설은 그의 정치적 기반인 힌두 민족주의와도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아요디아는 힌두교의 주신 라마(Ram)의 탄생지로, 모디와 집권당 BJP가 힌두 부흥 운동의 핵심 성지로 삼는 곳입니다. 고대 신화의 땅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혈연의 서사. 모디에게 이것은 종교적 상징성과 외교적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소재였습니다.

실제로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2018년 11월,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단독 방문했습니다. 한국 영부인으로는 16년 만의 단독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모디는 김 여사를 아요디아의 디왈리(Diwali) 축제에 주빈으로 초청했고, 두 사람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딱딱한 외교 의전이 아니라 축제의 불빛 아래에서 나누는 감성 외교. 이 장면은 인도 국민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먼 나라'에서 '친척의 나라'로 바꾸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화적 연결고리가 오늘날 어떻게 K-팝, K-드라마와 만나 새로운 한류 외교로 이어지는지는 제9

장 9.4에서 다루겠습니다.

허왕후 전설보다 시간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 울림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가 남긴 네 줄의 시입니다.

1929년,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 기자가 한국 방문을 요청했으나 일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르는 미안함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짧은 시를 기고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네 줄짜리 시. 그러나 이 시가 식민지 조선에 미친 영향은 네 줄의 분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같은 제국주의의 아픔을 겪는 나라를 향해 “너는 잊혀진 약소국이 아니라 빛나던 등불이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위로이자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타고르의 시는 오늘날까지 한국 교과서에 실려 인도를 ‘정신적 형제의 나라’로 기억하게 합니다.

모디 총리는 이 시의 가치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서울에서 열린 한국 교민 간담회에서 그는 타고르의 시를 직접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타고르가 예언한 대로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 되어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학적 유산을 현재의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솜씨. 이것이 모디 식 ‘스토리텔링 외교’의 핵심입니다.

전설과 시 사이에, 총알과 메스로 맺어진 인연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갓 독립한 인도는 중립을 택했습니다. 전투 부대 대신 의료 부대를 보냈습니다. 제60공수야전병원(60th Parachute Field Ambulance), 346명의 의료 인력으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지휘관은 A.G. 랑가라즈(Rangaraj) 중령. 이들은 1950년 11월 부산에 도착한 직후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총 대신 메스를 들었지만, 이들이 겪은 전쟁은 전투병 못지않게 가혹했습니다. 중국군이 유엔군 방어선을 뚫고 밀고 내려오던 1950년 겨울, 제60부대는 후퇴 명령을 받았으나 의료 장비를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송 차량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낡은 증기 기관차 한 대를 찾아내 장비를 싣고 빠져나왔습니다. 1951년 3월에는 미군 제187공수연대와 함께 한국전쟁 두 번째 규모의 공수 작전인 ‘툼호크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랑가라즈 중령을 포함한 12명의 인도 장교가 낙하산을 메고 적진 상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의료 장교가 공수 작전에 자원한 것입니다. 이들은 3년여간 2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치료했고, 미군과 한국군 양쪽에서 부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적갈색 베레모의 천사들(Maroon Angels)’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정전 협정 과정에서 인도의 역할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인도는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남한도 북한도 중국도 거부하는 포로 2만 2,000여 명의 송환 문제를 중재했습니다. K.S. 티마이야(Thimayya) 장군 지휘 아래 인도군 약 5,000명이 비무장지대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병력은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들을 관리하고, 송환 의사를 확인하고, 본국 귀환 절차를 집행하는 임무였습니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극도로 까다로운 과업이었습니다. 티마이야 장군은 이 임무를 완수한 공로로 인도 군부 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훗날 인도 육군참모총장에 올랐습니다.

의료진 346명이 피를 닦고, 5,000명의 병사가 포로를 중재한 이 경험. 인도가 한반도에서 보여준 것은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적극적 관여였습니다. 총을 쓰지 않았기에 한국의 전쟁 기억에서 이 나라의 이름은 자주 빠지지만, 인도 없이 정전 협정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1973년 12월의 공식 수교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기보다 오래된 인연의 제도적 확인이었습니다. 다만 수교 후에도 양국은 한동안 '예의 바른 이웃'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냉전 구도 아래 인도는 비동맹의 맹주였고, 한국은 확고한 반공 국가였습니다. 인도의 사회주의식 폐쇄 경제와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는 서로 다른 궤도를 달렸습니다.

흐름이 바뀐 것은 1991년 인도의 경제 개방 이후입니다. 인도가 문을 열자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1997년), 현대자동차(1996년), 삼성전자(1995년). 이들은 당시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 망설이던 인도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하는 와중에도 한국 기업들은 남았습니다. 이 선택이 신뢰가 되었고, 신뢰는 시장 점유율이 되었습니다.

허왕후의 배에서 타고르의 시로, 적갈색 베레모의 천사들에서 1973년 수교로, 그리고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2,000년에 걸쳐 층층이 쌓인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 위에 오늘의 외교와 경제와 안보 협력이 서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는 이 이야기의 가치를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전설을 현재의 외교 자산으로, 시인의 예언을 총리의 연설로, 전쟁터의 우정을 전략적 신뢰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7.2 특별 전략적 동반자 격상: 2015년 모디 방한, 역대 정부 협력 심화

2018년 7월, 뉴델리 인근 노이다(Noida).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장에 두 나라의 정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두 사람은 의전 차량 대신 지하철을 타고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두 정상이 승객들 사이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사진이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퍼포먼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의 사진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장면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2015년 5월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취임 이듬해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은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특별(Special)'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붙였습니다. 외교적 수사에서 단어 하나의 추가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라는 격식을 부여한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일본, 러시아 등 전통적 강대국과 나란히 한국이 이 목록에 올랐다는 것은 모디가 한국을 어떤 위치에 놓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관계의 '격상'이 중요한 이유는 개별 사업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격상 이전에는 무역이든 투자가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처리합니다. 격상 이후에는 정상급 합의 아래에서 외교, 경제, 안보의 여러 트랙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한 분야가 흔들려도 다른 분야가 버텨주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것이 '특별 전략적'이라는 틀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2015년 공동성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디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서 한국을 "특권적 파트너"로 호명했습니다(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전체 구상과 전략에 대해서는 제4장 4.2 참조). 그리고 한국 기업 전용 투자 해결 창구인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를 인도

상공부 내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기업들을 위해 정부 부처 안에 전담 창구를 만드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외교부 안에 '인도 투자 원스톱 센터'를 별도로 차린 것과 비슷합니다.

이 격상이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났다면,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도 중시 기조는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인도 관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과 인도를 미·중·일·러 수준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신남방 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했고, 인도는 이 정책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모디 총리의 '동방행동 정책(Act East Policy)'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인도로 외교의 폭을 넓히려 했고, 인도는 동아시아로 진출하여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방향이 일치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민 방문은 이 시너지가 구체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례적으로 뉴델리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외교 의전에서 총리의 공항 영접은 최고 수준의 예우입니다. 두 정상은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 라인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인도 땅에서 인도 노동자들의 손으로 세계 시장을 향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현장. 모디에게 이 공장은 '메이크 인 인디아'의 성공을 증명하는 쇼케이스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신남방 정책'의 결실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단독 방문했습니다.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 참석. 정상이 아닌 영부인의 방문이었지만, 파급력은 정상 방문 못지않았습니다. 인도 언론은 "한국 퍼스트레이디가 축제의 불빛 아래에서 인도 국민과 함께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딱딱한 외교가 아닌, 마음이 오가는 감성 외교. 이것이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급격히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2023년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와 G20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방산 협력 확대, 공급망 안정화, 핵심 기술 협력.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가동되면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의 실질적 걸림돌이 하나 해소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 했고, 이 기조 아래 2026년 2월에는 제6차 외교·안보 대화(Foreign Affairs-Security Dialogue)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차관급 대화 채널이 정례화된 것은 양국 관계가 정상 간 개인적 케미를 넘어 관료적 습관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숫자로 보면, 양국 교역은 아직 목표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한-인도 교역액은 약 269억 달러. 2030년까지 500억 달러라는 목표까지는 거의 두 배를 더 키워야 합니다. CEPA가 2010년 발효된 이후에도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은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복잡한 주(州)별 규제, 낮은 물류 인프라 수준, CEPA 자체의 낮은 개방도가 병목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CEPA 개선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양측은 상품 관세 인하 범위 확대와 서비스·투자 분야의 추가 자유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국이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조적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 시장이자 생산 기지입니다. 인도에게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제조 노하우를 가진 멘토이자 투자자입니다. 이 상호 보완성은 어느 한쪽의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015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격상은, 그래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국 관계를 개인적 인연이나 일시적 필요가 아닌 제도적 틀 위에 올려놓은 행위였습니다. 정상이 바뀌어도, 경기가 흔들려도, 안보 환경이 변해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든 것. 외교에서 이보다 어려운 일은 드뭅니다.

7.3 경제 모델로서의 한국: "구자라트를 한국처럼" 발언

2018년 10월 7일, 인도 북부 데라둔(Dehradun). 우타라칸드(Uttarakhand) 투자 정상회의를 개막하는 자리에서 모디 총리가 과거를 회고했습니다.

"2001년 10월 7일, 내가 처음으로 구자라트 주총리(Chief Minister)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정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완전히 새내기였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자라트 개발의 롤모델이 누구냐'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미국처럼', '영국처럼'이라고 답합니다. 나는 다르게 답했습니다. '구자라트를 한국처럼 만들고 싶다'고."

기자가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모디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구자라트의 인구와 한국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나는 그 점을 아주 정밀하게 연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언은 2018년 데라둔 연설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지만, 모디가 한국 모델에 집착한 시간은 그보다 훨씬 앞섭니다. 2001년 구자라트 주총리 취임 직후부터, 2015년 서울 방문 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인도에 이식하고 싶다"고 말한 순간까지, 그는 반복적으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리서비스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의 분석이었습니다.

모디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왜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이었을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규모의 유사성입니다. 구자라트의 인구는 약 6,000만 명. 한국은 약 5,000만 명. 미국이나 중국을 모델로 삼으면 규모 차이가 너무 커서 현실적 벤치마크가 되지 못합니다. 한국은 구자라트와 비교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둘째, 국가 주도 산업화입니다. 한국은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관료 기구가 자원을 배분하고, 민간 기업이 실행하는 구조로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인도처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국가의 역할을 관철시킨 사례. 권위주의 산업화(중국식)와 순수 시장주의(미국식) 사이에서, 한국은 모디가 취할 수 있는 중간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수출 주도 성장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았던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구자라트 역시 인도 내에서 해양 무역의 거점이었고, 모디는 이 전통을 현대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고 싶어 했습니다.

넷째, 재벌 시스템입니다. 한국 정부가 현대, 삼성, 포스코 같은 소수의 대기업을 '국가 챔피언'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만든 방식. 모디는 릴라이언스(Reliance), 아다니(Adani), 타타(Tata) 같은 인도 대기업에 유사한 역할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정부-재벌 협력 구조가 구자라트의 정부-기업 관계 설정에 참조점이 된 것입니다.

모디는 이 구조를 구자라트에서 실험했습니다. 바이브런트 구자라트(Vibrant Gujarat) 투자유치 서밋을 만들어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바이브런트 구자라트의 시작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제3장 참조).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타타(Tata) 자동차가 서벵골 주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나노(Nano) 공장 부지를 포기했을 때, 모디는 불과 며칠 만에 구자라트로 유치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료주의 레드 테이프(Red Tape) 대신 레드 카펫을 깔아주겠다"는 그의 말은 한국 정부가 1960~70년대에 보여주었던 '빨리빨리' 행정의 인도판이었습니다.

구자라트에는 한국과의 접점이 물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POSCO)가 구자라트에 냉연 강관 공장을 운영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T가 협력하여 K-9 바지라 자주포를 조립하는 하자(Hazira) 공장이 구자라트에 있습니다. 모디에게 한국 기업은 슬로건이 아니라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전수하는 실체였습니다.

총리가 된 후, 모디는 구자라트의 실험을 인도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의 핵심 논리는 한국 모델에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서비스업(IT 아웃소싱) 중심의 기형적 성장 구조를 가진 인도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을 심어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그 제조업의 모범 답안으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세운 공장들을 가리켰습니다.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은 이 전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8년 준공된 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시설입니다.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준공 테이프를 끊으며 전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인도도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첸나이 공장은 인도 내수 2위이자 최대 수출 기업의 기반이 되었고, LG전자는 인도 가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각 기업의 인도 사업 이야기는 제8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모디는 한국 기업의 성공을 자신의 정책적 성과로 적극 홍보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재벌 시스템이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닦은 방식을 인도에도 적용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아다니, 타타 같은 인도 대기업을 '국가 챔피언'으로 육성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한국의 박정희 시대에 정부가 현대, 삼성, 포스코를 키웠던 것과 구조 면에서 닮은 방식입니다.

물론 이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5,000만의 단일 국가입니다. 인도는 14억 인구에 28개 주가 각각 다른 규제와 세금 체계를 가진 연방 국가입니다. 한국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디가 '구자라트'라는 주(州) 단위를 한국과 비교한 것 자체가 이 현실을 반영합니다. 인도라는 대륙을 통째로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구자라트라는 한 조각은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협력이 소비재를 넘어 반도체, 전기차, AI 같은 첨단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반도체 자립'을 국가 과제로 삼고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 기업들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생산연계장려금, PLI)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모디에게 한국은 '따라 배우고 싶은 선배'인 동시에, 인도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줄 '현실적인 파트너'입니다.

“구자라트를 한국처럼.” 2001년의 이 발언은 24년이 지난 지금, 인도 전체를 무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한국만큼 빠르고 매끄러울 수 있을지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7.4 방산·안보 협력: K-9 바지라, 군사정보 공유, NSG 지지

2019년 1월, 구자라트주 하지라(Hazira). L&T의 방산 공장에서 모디 총리가 K-9 바지라(Vajra) 자주포 위에 올라섰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그의 사진이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총리가 직접 무기 위에 올라타는 장면은 인도 정치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려 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이 무기는 외국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인도 땅에서 인도 노동자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

K-9 바지라는 한-인도 방산 협력에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성과로 꼽힙니다. ‘바지라’는 힌두 신화에서 인드라(Indra) 신이 사용하는 번개의 무기를 뜻합니다. 이 이름 자체가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정체성이 결합된 산물입니다.

사업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 국방부는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155mm 52구경 자주포의 국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당시 한화테크윈)가 러시아의 2S19 므스타(Msta)-S를 꺾고 선정되었습니다. 결정적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능과 현지 생산.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원칙에 따라, 첫 10문은 한국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90문은 인도의 L&T가 구자라트 하지라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는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고, 100문 전량이 2020년까지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이 완제품을 파는 대신 기술을 이전하고, 인도가 스스로 만드는 구조. 이것이 모디가 원하던 방식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응한 방식이었습니다.

K-9 바지라가 진정한 시험대를 만난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그해 6월,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고원의 갈완(Galwan) 계곡에서 유혈 충돌을 빚었습니다. 45년 만의 사상자 발생이었습니다(갈완 충돌의 전체 경과와 인도-중국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제6장 6.3 참조). 인도군은 K-9 바지라를 라다크(Ladakh) 고원에 긴급 배치했습니다. 해발 4,000미터 이상,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 공기가 희박해 일반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고, 사막용으로 설계된 장비의 한계가 드러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K-9 바지라는 이 악조건에서 기동성과 타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인도 군 수뇌부는 만족했습니다.

만족은 추가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인도 국방안보위원회(CCS)가 K-9 바지라 2차 사업, 즉 100문 추가 도입을 공식 승인했고, 같은 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5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약 2억 5,300만 달러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1차 사업에서 50%였던 인도 현지 생산 비율은 2차 사업에서 60%로 높아집니다. 현지화 비율의 상승은 한국 측의 기술 이전이 더 깊어진다는 뜻이고, 인도 방산 산업의 자체 역량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문 추가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이며, 고해발 운용에 최적화된 엔진 업그레이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K-9 바지라는 인도 육군 포병 전력의 중추가 됩니다.

방산에서 추가 주문은 첫 주문보다 어렵습니다. 첫 주문은 기대와 약속으로 성사됩니다. 추가 주문은 실제 운용 결과, 정비 체계의 안정성, 부품 공급의 신뢰성,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을 확인해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K-9 바지라가 추가 주문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인도의 신뢰가 종이 위의 약속을 넘어 실전에서 확인된 신뢰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무기 거래만이 아닙니다. 양국은 안보 대화의 제도화도 진행했습니다.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 채널이 신설되었고, 해군 간 연합 훈련과 상호 항구 기항이 확대되었습니다.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상 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를 이룹니다. 방산 협력은 하드웨어, 정보 공유는 소프트웨어, 2+2 대화는 운영 체제.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상호 지지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핵공급국그룹(NSG)을 포함한 4대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인도의 조기 가입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외교 의례가 아닙니다. NSG의 핵심 회원국인 한국이 인도를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 편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인도는 이 지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반대 방향의 지지도 있습니다. 인도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해 왔습니다. 서로의 핵심 안보 이슈에서 등을 지켜주는 관계. 경제 협력은 경기 변동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규범에 기반한 이런 상호 지지는 장기 신뢰를 쌓는 방식입니다.

K-9 바지라의 포구가 히말라야 고원을 향해 있을 때,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필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신뢰가 함께 장전되어 있습니다.

7.5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 미-중 사이 유사 딜레마

한국의 외교관에게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이런 답이 나올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에 서겠느냐는 질문." 인도의 외교관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비슷한 답이 돌아옵니다. 용어만 약간 다릅니다. 한국은 이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 부르고,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라 부릅니다. 말은 다르지만,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의 구조는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봅니다. 안보의 핵심은 한미 동맹입니다.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핵우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흡수하는 시장입니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때 중국이 한국에 가한 경제 보복은 이 딜레마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도의 상황을 봅니다. 인도는 쿼드(Quad)와 러시아 전통 우호 관계, 중국과의 3,000km 국경 대치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모디의 '다중 제휴(Multi-alignment)' 전략, 즉 어느 한쪽 진영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고 사안별로 유연하게 연대하는 접근법은 이 복합 방정식에서 나온 것입니다(인도의 다중 제휴 전략과 쿼드·BRICS 참여의 구체적 양상은 제6장 6.1 참조,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체 구도는 제6장 6.3 참조).

구조를 비교하면 유사성이 드러납니다. 두 나라 모두 안보 면에서는 미국과 긴밀하고, 경제 면에서는 중국과 얽혀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한국에게는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고 그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인도에게는 파키스탄이라는 오랜 적국이 있고, 역시 중국이 그들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구조의 유사성입니다.

이 유사한 딜레마가 양국을 자연스러운 파트너로 만듭니다. 미-중 어느 한쪽을 완전히 택할 수 없는 나라들끼리 손을 잡으면, 개별 국가로서는 불가능한 협상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서 한-인도 협력이 가지는 핵심 논리입니다.

2024년 10월, 인도와 중국은 실질통제선(LAC) 일대의 병력 분리에 합의했습니다. 2020년 갈완 충돌 이후 4년 넘게 지속된 군사 대치의 부분적 해소였습니다. 이 합의로 인도의 전략 환경이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파할감(Pahalgam) 사태가 터지면서 인도는 다시 파키스탄과의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파할감 위기의 전개와 인도-파키스탄 관계에 대해서는 제4장 4.5 및 제9장 참조). 한쪽 전선이 잠잠해지면 다른 쪽에서 불이 붙는 패턴. 인도의 안보 환경은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비슷한 강도로 복합적입니다.

이 공통된 딜레마가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중 갈등이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 전쟁으로 번지면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은 양국 모두에게 생존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집중된 생산 시설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인도는 이 분산의 수혜자가 되려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과 인도 모두 창립 멤버로 참여한 것은 이 논리의 제도화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같은 핵심 소재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 기술을, 인도는 거대한 시장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더 넓은 그림이 있습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을 대변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맹주를 자임합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지향합니다. 서방 G7과 나머지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3년 인도가 G20 의장국을 수행할 때 한국이 적극 협력한 것은 이 가능성의 예고편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T의 K-9 바지라 부품 공급 계약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한국-인도-미국 1.5트랙 대화가 열려 삼국 간 협력의 비전과 시너지를 논의했습니다. 방산 계약과 전략 대화가 같은 달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제와 안보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인도-미 삼각 대화의 등장은 양자 관계가 삼자 관계로 확장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기에, 오히려 "완벽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협력"을 발전시킬 여지가 큼니다. 규범에 기반한 해양 질서, 공급망의 탄력성, 방산 공동 생산, 첨단 기술 협력. 이런 의제들은 '편 가르기'의 언어가 아니라 '능력 구축'의 언어로 움직입니다.

능력 구축은 외교적 수사보다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것만이 전략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8장. 인도에 뿌리내린 한국 기업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8.1 삼성전자 30년: 1995년 진출,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 AI 전환

2018년 7월 9일, 뉴델리 외곽 노이다(Noida). 한쪽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다른 한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펼쳐진 것은 축구장 스물네 개를 합친 크기의 공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모디 총리는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제조가 만나면 세계 최고의 제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장은 연간 1억 2천만 대의 휴대전화를 만들 수 있는, 단일 건물 기준 세계 최대의 모바일 공장이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나란히 서서 버튼을 누르는 사진 한 장이, 한국 기업과 인도 정부의 관계를 압축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5년, 삼성전자가 인도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노이다 공장은 직원 수백 명이 TV를 조립하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1991년 경제 개방의 문을 열었지만, 거리에는 아직 ‘라이선스 라지(License Raj)’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관료들이 온갖 허가권을 쥐고 흔들던 시절, 외국 기업에게 인도는 기회인 동시에 미로였습니다.

삼성엔 그 미로를 걸어가기로 결심한 기업이었습니다. 1996년 노이다에 공장을 세우고 TV 생산을 시작했고, 2003년에는 냉장고, 2007년에는 휴대전화로 생산 품목을 넓혀갔습니다. 한 번에 도약한 것이 아니라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간 것입니다. 이 ‘단계적 현지화’는 인도의 복잡한 관세 구조와 현지 부품 의무 사용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정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인도를 위해, 인도에서 만든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전압은 불안정합니다. 정전도 잦습니다. 삼성은 전압이 흔들려도 고장 나지 않는 TV와 냉장고를 따로 설계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강력한 사운드 기능을 탑재하고, 데이터 요금이 비싼 환경을 감안해 데이터 절약 모드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서울 본사가 아니라, 벵갈루루(Bengaluru)와 노이다에 있는 삼성의 인도 연구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벵갈루루 연구소는 한국 밖에서 규모가 큰 삼성 소프트웨어 연구 거점입니다. 수천 명의 인도 엔지니어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노이다 공장 확장은 삼성의 인도 전략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삼성은 7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능력을 6,800만 대에서 1억 2천만 대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갤럭시 스마트폰은 인도 안에서 팔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외치던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포 더 월드(Make in India, Make for the World)’라는 구호가 이 공장에서 현실이 된 셈입니다(제7장 7.3 참조).

모디 정부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가 이 성장에 불을 지폈습니다(제4장 4.2 참조).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정부가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삼성은

글로벌 기업 가운데 선두주자로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정부가 공장을 많이 돌리는 기업에 상금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에서 더 많이 만들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PLI 제도 아래에서 삼성은 스마트폰, IT 하드웨어, 전자부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센티브를 수령하며, 인도를 내수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수출 거점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삼성은 인도에서 'AI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 힌디어와 인도 지방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 주는 '갤럭시 AI'는 22개 공식 언어가 쓰이는 나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도 AI가 일하고 있습니다. 불량품을 자동으로 골라내고, 전력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공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제조 AI가 삼성 노이다 공장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빛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4년 9월, 첸나이(Chennai) 인근 스리페룸부두르(Sriperumbudur)에 있는 삼성 가전 공장에서 1,500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었습니다. 공장 앞에 '무기한 파업'이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월급을 2만 5천 루피에서 3만 6천 루피로 올려달라는 것,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달라는 것, 그리고 새로 만든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노동조합센터(CITU)가 파업을 지원했고, 지역 정치인들이 노동자 편에 섰습니다.

파업은 3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삼성은 '불법 파업'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고, 타밀나두 주정부가 중재에 나선 끝에 10월 16일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삼성은 월 5천 루피의 생산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노조 인정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025년 1월 27일,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삼성인도노동조합(SIWU: Samsung India Workers' Union)이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노조가 공식 인정된 것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오스틴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로, 이곳에서는 노조 대표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 파업은 임금 분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도성장의 과실이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 그것은 어떤 나라에서든 경제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목소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인도 30년은 모디노믹스의 성장 그래프와 겹칩니다. 1995년 TV 한 대를 조립하던 작은 공장이, 연간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찍어내는 세계 최대의 제조 허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은 인도인들에게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되었고, 정부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노동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2 현대차 도전과 성공: 1996년 단독 투자, 2024년 최대 IPO

1998년, 인도 자동차 딜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동차 회사가 터번을 쓰는 시크교도의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도록 차체 지붕을 높인 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의 이름은 상트로(Santro).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 내놓은 첫 번째 전략 차종이었습니다. '톨보이(Tall Boy)'라는 별명이 붙은 이 작은 차는 출시 첫 해에 수만 대가 팔리며 인도 국민차 반열에 올랐

습니다. 인도인의 몸에 맞는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 그 출발점이 현대차 인도 성공 신화의 씨앗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땅을 밟은 것은 상트로 출시 2년 전인 1996년이었습니다. 남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에 공장 터를 닦았습니다. 당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인도 현지 기업과 손을 잡고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만들어 진출했습니다. 위험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도 시장은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라는 거인이 지배하고 있었고, 도로 인프라는 형편없었으며, 관세와 규제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이런 시장에 외국 기업이 혼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도박을 택했습니다. 100% 단독 투자. 합작 파트너 없이 현대차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품질이었습니다. 합작 파트너가 끼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현대차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품질은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정몽구 회장의 철학이 인도까지 그대로 관철된 것입니다.

이 승부수가 적중한 이유는 철저한 현지화에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도로의 울퉁불퉁함을 견디는 단단한 서스펜션, 50도까지 치솟는 더위를 이기는 강력한 에어컨, 경적을 수시로 울리는 운전 문화를 감안한 고내구성 클락션을 장착했습니다. 부품의 90% 이상을 인도 현지에서 조달하는 공급망을 구축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포드(Ford)와 GM은 인도에 들어왔다가 수조 원을 날리고 철수했습니다. 두 회사는 글로벌 표준을 인도에 적용하려 했고, 현대차는 인도 표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인도 자동차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디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로 인프라가 개선되고, 중산층의 소득이 늘면서 SUV 수요가 폭발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크레타(Creta)라는 소형 SUV를 내놓았고, 이 차는 인도 SUV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마루티 스즈키가 작은 해치백에 집중하는 사이, 현대차는 SUV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1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현대차 인도 판매의 63%가 SUV입니다.

첸나이 공장은 인도 안에서만 차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등 80여 개국으로 차를 수출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모디 총리가 강조하는 '인도에서 만들어 세계로'라는 구호를, 현대차는 모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제7장 7.2 참조).

2024년 10월, 현대차는 인도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인도 법인(HMIL: Hyundai Motor India Limited)을 뭄바이 증시에 상장한 것입니다. 공모 규모 33억 달러(약 2조 7,870억 루피), 한화로 약 4조 5천억 원.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였습니다. 1억 4,219만 주를 주당 1,960루피에 내놓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전체 청약이 2.37배 초과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보다 7% 하락한 1,819루피로 마감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팔았다'는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한국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비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상장 시점 기업 가치는 약 19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첫날의 하락은 인도 자본시장이 외국 기업에게도 냉정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IPO의 의미는 주가 등락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상장을 통해 '외국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인도 국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 증시에 상장해서 한국인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금 조달을 넘어, 인도 사회 안에서 현대차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정부 규제를

받을 때, 노사 갈등이 생길 때, '우리 회사'라는 인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큼니다.

1996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첸나이 공장 기공식에서, 2024년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IPO까지. 28년이 걸렸습니다. 그 여정의 밀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8.3 LG·포스코·550개 기업: 가전 장악, 제철소, 다양한 산업 진출

인도 가정집에서 모기가 TV를 보다 도망갑니다. 농담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입니다. LG전자가 인도 시장을 위해 만든 '모기 퇴치 TV'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내보냅니다. 말라리아와 뎅기열이 매년 수십만 명을 감염시키는 나라에서, TV가 건강을 지키는 가전이 된 것입니다. 이 제품 하나가 LG전자의 인도 전략을 설명합니다. 기술을 인도인의 삶에 맞추는 것, 그것이 LG가 인도 가전 시장을 장악한 방법이었습니다.

1997년 인도에 진출한 LG전자는 인도 소비자의 일상을 연구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전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냉장고 안의 채소 보관 칸을 대폭 키웠습니다. 정전이 잦은 환경에서도 냉기를 유지하는 '에버쿨(Evercool)' 기능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인도인들이 즐겨 먹는 요거트 '커드(Curd)'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전용 발효 기능을 냉장고에 탑재했습니다. 향신료가 강한 인도 음식에 맞춘 '탄두리 모드' 전자레인지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쌓이자,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LG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해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인도 냉장고와 세탁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TV와 에어컨 시장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이다와 푸네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1만 5천 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스리 시티(Sri City)에 6억 달러 규모의 새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은 인도 내수에 더해 중동,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 수출까지 겨냥한 '지역 허브'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디 정부가 인도 전역의 농촌까지 전력을 공급하면서, 전기가 들어오는 마을마다 LG 가전의 잠재 고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LG가 소비자의 거실을 장악했다면, 포스코(POSCO)는 인도 산업의 뼈대인 철강을 공급하려 했습니다. 포스코의 인도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라 인내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2005년, 포스코는 동부 오디샤(Odisha) 주에 120억 달러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짓겠다는 야심찬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포항제철소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삼도 뜨기 전에 멈추었습니다. 공장 부지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했고, 환경 단체가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주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사업이 표류하다 결국 포스코는 오디샤 프로젝트를 접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이 주민 반대와 행정 소송에 막혀 10년 넘게 해마다 포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인도의 연방제 구조에서 중앙 정부가 아무리 환영해도, 주 정부와 지역 사회가 막으면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교훈을 포스코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제3장 3.2 참조).

포스코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거대한 일관제철소 대신,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자동차용 냉연 강판을 생산하는 가공 중심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나온 강판은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이고, 타타모터스, 마힌드라, 폭스바겐 등 인도 내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수록 포스코의 존재감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포스코는 이제 아다니 그룹(Adani Group)과 손잡고 친환경 그린스틸(Green Steel) 일관제철소 건설을 다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기반 제철 공정을 인도에서 구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디샤에서 쓰러졌다가 마

하라슈트라에서 일어서고, 이제 그린스틸이라는 새로운 판에서 재도전하는 이 끈기가 인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삼성, 현대, LG, 포스코 너머에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약 55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인도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효성은 스파덱스 공장을 돌리고, 롯데는 초코파이로 인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래에셋은 인도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자산운용사로는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두며 수탁고 수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현지 지점을 열어 기업 금융과 리테일 금융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도 한국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인도에서 '바지라(Vajra, 힌디어로 번개)'라는 이름을 달고 기술 이전 방식으로 현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BGMI)'는 인도 청소년 사이에서 국민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부품, 소재, 물류, 금융, 식품, 게임에 이르기까지 인도 경제의 혈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길을 닦고, 중견기업과 협력사가 그 길을 따라 들어오는 구조.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은 몇몇 회사의 모험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있습니다.

8.4 반도체 굴기와 한국: ISM 70% 보조금, 심텍·삼성 참여

모디 총리에게는 한 가지 한이 있습니다. "인도는 50~60년 전에 반도체를 시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는 여러 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1960년대 인도에는 반도체 연구의 씨앗이 있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관료주의 속에서 그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삼성이라는 회사를 통해 반도체의 길에 올랐고, 대만은 TSMC를 키워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칩을 설계하는 인재는 넘쳐났지만, 칩을 찍어내는 공장은 단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번에는 버스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이 구체화된 것이 인도 반도체 미션(ISM: India Semiconductor Mission)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돈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중앙 정부가 사업비의 50%를, 주 정부가 20%를 보조합니다. 기업은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대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이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정부가 건설비의 70%를 현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보조금은 미국의 칩스법(CHIPS Act)이나 유럽의 반도체법과 비교해도 공격적인 수준입니다.

이 파격적인 조건에 선두로 반응한 것은 미국의 마이크론(Micron)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구자라트주 사난드(Sanand)에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ATMP)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2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사난드는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부터 개발해 온 산업 도시입니다(제7장 7.3 참조). 모디가 직접 설계한 산업 인프라 위에 반도체 공장이 올라가는 것,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PCB) 전문 기업 심텍(Simmtech)이 마이크론 공장 인근에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입니다. 반도체는 칩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칩을 엮을 기판이 필요하고, 그 기판을 만드는 데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심텍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동반 진출하는 형태이지만,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보조금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

습니다.

심텍의 진출이 가지는 의미는 규모 이상입니다. 반도체 생태계는 하나의 공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칩 제조사 옆에 기관 회사가 있어야 하고, 패키징 장비 회사가 있어야 하며, 클린룸을 관리하는 업체까지 모여야 합니다. 심텍의 진출은 이 생태계의 첫 번째 한국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한 기업이 들어가면 협력사가 따라가고, 협력사가 들어가면 또 다른 기업이 그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부품 기업들이 인도로 이동하는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인도 정부의 구매는 집요합니다. 모디 총리는 삼성 경영진을 만날 때마다 반도체 투자를 요청해 왔습니다. 삼성은 아직 인도에 반도체 제조 공장(팹)을 짓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팹은 전력, 물, 폐수 처리,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수백 가지 변수를 계산해야 하는 초대형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평택이나 미국의 텍사스에 공장을 세우는 것과 인도에 세우는 것은 리스크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삼성은 벵갈루루와 노이다의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인도 엔지니어가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도 반도체 생태계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인도 내 R&D 거점을 유지하면서 제조 진출 시점을 가늠하는 전략입니다.

인도 토종 기업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타타 전자(Tata Electronics)는 대만의 PSMC(Powerchip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와 손잡고 구자라트에 반도체 팹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최대 재벌 타타 그룹이 반도체 제조에 뛰어든 것은, 이 산업이 국가적 의지를 넘어 민간 자본의 실질적 투자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뜻합니다.

인도의 반도체 굴기는 한국에 기회이자 시험입니다. 70%라는 파격적인 보조금과 14억 인구의 전자 제품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동시에 불안정한 전력, 부족한 초순수, 복잡한 관료주의는 반도체 제조의 기본 조건을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인도가 반도체에 쏟아붓는 돈과 의지는 진지합니다. 한국 기업이 이 판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의 양국 경제 관계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5 도전과 과제: 정전·수질 문제, 관료주의, 노사 갈등, 세무 테러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에서는 여름이면 디젤 발전기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인도의 전력망은 여름 폭염이 찾아오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고 없이 전기가 끊기고, 전압이 출렁입니다.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서 전력이 1초라도 끊기면 공정 중이던 제품이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공장 안에 자체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료의 몇 배나 비싼 경유를 태워서라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의 산업용 전력 공급 안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인도에서 공장을 돌린다는 것은 '공장 옆에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 문제는 전력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는 초순수(Ultra Pure Water)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불순물이 극도로 적은 물이어야 합니다. 인도는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첸나이는 2019년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 도시 기능이 마비될 뻔했습니다. 우기에는 홍수가 나고, 건기에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기후 변화가 이 변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장 안에 정수 처리 시설과 폐수 재활용 시스템을 직접 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것은 추가 비용입니다. 인도 정부가 반도체 공장 유치에 70%의 보조금을 내걸어도, 전력과 물이라는 기초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공장은 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관료주의는 인도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이 빠짐없이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모디 총리는 “관료주의의 빨간 테이프(Red Tape)를 걷어내고, 투자자를 위한 빨간 카펫(Red Carpet)을 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순위에서 인도는 142위에서 6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숫자로 보면 큰 진전입니다. 현장의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중앙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내놓아도, 주 정부와 지방 관료 수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기도 하고, 세무 당국의 해석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것을 ‘세무 테러(Tax Terrorism)’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Nokia)는 인도 공장을 운영하던 중 세무 당국으로부터 수천 억 원 규모의 소급 과세 청구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보다폰(Vodafone)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2007년 보다폰이 홍콩의 허치슨 와포아로부터 인도 사업을 인수했을 때, 인도 세무 당국은 이 거래에 소급하여 약 20억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보다폰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인도 의회는 2012년 법률을 개정해 소급 과세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래에 사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 그것이 인도에서 가능했습니다. 2021년에야 모디 정부가 이 소급 과세 조항을 폐지하고 보다폰에 징수액을 환급했지만, 한 번 각인된 ‘세무 테러’의 이미지는 외국 투자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제10장 10.4 참조).

한국 기업들도 이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품 수입 관세의 분류 기준이 바뀌거나, 약속받았던 인센티브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포스코의 오디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앙 정부는 대환영이었지만, 주 정부 차원의 토지 수용과 환경 허가에서 10년 넘게 막혔습니다. 모디 총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인도의 연방제 구조에서는 중앙의 방침이 지방 말단까지 일관되게 관철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이 ‘집행의 간극’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노사 갈등은 최근 빠르게 부상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2024년 삼성 첸나이 공장의 37일 파업은 인도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이 경제 성장 속도만큼 빠르게 자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월급 인상, 8시간 근무, 노조 인정이라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파업을 이끈 것은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였고, 이 조직은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SIWU의 공식 등록을 명령한 것은, 사법부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사용자의 반대보다 우선시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도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개혁에 대한 농민 저항이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번진 사례(제5장 5.3 참조)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이 수반하는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인도에서 노조는 한국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인도의 노조는 정치 정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지역 정치인이 노동자 편에 서고, 노사 분쟁이 정치 쟁점이 됩니다. 기업과 정치 세력 사이의 힘겨루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 고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수직적 관리 방식이 인도 노동자들의 토론 문화, 권리 의식과 충돌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0.1밀리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품질 기준을 현지 직원들이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찰타 하이(Chalta Hai, 대충 괜찮다)’라는 인도식 유연함과 한국식 정밀함 사이의 거리는, 교육과 시간으로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숙련 인력의 높은 이직률도 문제입니다. 인도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은 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기업 간 인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저임금 생산 기지'라는 인도의 매력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떠날 수 있는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14억 인구,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노동력. 이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중력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30년간 쌓아온 제조 인프라, 현대차가 28년에 걸쳐 구축한 부품 공급망, LG가 인도 가정 깊숙이 파고든 브랜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전이 나면 발전기를 돌리고, 물이 부족하면 정수 시설을 짓고, 관료주의에 막히면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그 인내의 축적이 550개 한국 기업을 인도 경제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약속의 땅이면서 인내의 땅입니다. 한국 기업에게 인도는 중국을 대신하는 '넥스트 차이나'가 아닙니다. 인도는 인도입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거대한 게임판이며, 그 규칙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9장. 인도의 한류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9.1 한류의 시작: 북동부 접합에서 전국 확산, OTT 시청률 370% 폭증

2000년 9월,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Manipur)주 임팔(Imphal) 시내 극장가에 기묘한 적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인도에서 오래된 분리주의 무장단체 중 하나인 혁명인민전선(Revolutionary People's Front, RPF)이 힌디어 영화와 힌디어 위성 채널의 시청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극장 문이 닫히고, TV에서 샤루칸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RPF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볼리우드는 '인도화(Indianisation)'의 도구이며, 힌디어 심장부의 봉건적 가치관을 마니푸르에 이식하는 문화 제국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군은 6,000~8,000개의 힌디 영화 비디오 카세트와 CD를 압수해 불태웠습니다.

문화적 공백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모레(Moreh) 국경무역 시장을 통해 중국, 태국, 한국산 전자제품이 유입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담긴 불법 복제 CD와 DVD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한 장에 10~30루피, 한국 돈으로 200~500원 남짓한 이 해적판 디스크들이 마니푸르 문화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마니푸르를 비롯한 북동부 7개 주, 이른바 '일곱 자매(Seven Sisters)'는 인도 본토와는 인종·언어·문화가 뚜렷이 다른 지역입니다. 몽골계 외모를 가진 이 지역 사람들은 델리나 뭄바이의 대도시에서 인종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했고, 볼리우드 스크린에 자신과 닮은 얼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배우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과 코, 피부색은 북동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가족을 중시하는 정서,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절제된 로맨스는 마니푸르의 전통적 가치관과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니푸르 사회학자 오토짓 크셰트리마움(Otojit Kshetrimayum)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종적 유사성과 씨족 공동체 문화의 공통점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 아리랑 TV가 마니푸르 케이블 네트워크에 송출되기 시작하면서 한류는 해적판 DVD의 단계를 넘어 정규 미디어로 진입했습니다. 가족 드라마, 로맨스 영화, 여행 프로그램, 요리 쇼가 쏟아져 들어왔고, 마니푸르의 청년들은 TV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임팔의 시장에서는 한국 가수의 얼굴이 붙은 포스터가 볼리우드 배우를 밀어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송혜교와 배수지의 사진이 안내 사진으로 걸렸습니다. 이웃한 나가랜드(Nagaland)주 정부는 2008년 코히마에서 인도-한국 음악 페스티벌을 공식 개최했고, 수천 명의 청년이 한국 뮤지션의 공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의 주류 사회는 이 현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델리와 뭄바이의 언론에서 북동부의 한국 열풍은 '그들만의 하위문화'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14억 인도 중 고작 수천만 명이 사는 변방의 유행이 인도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모디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2016년, 릴라이언스 그룹의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가 통신사 '지오(Jio)'를 출범시키며 4G 데이터 가격을 사실상 무료로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제4장 4.3 참조). 이 혁명적 가격 파급의 배경에는 모디 정부가 전국 단위로 추진한 광케이블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1GB 데이터 가격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루피(한화 약 170원)까지 떨어지자, 14억 인도인의 손에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쥐어졌습니다. 모디 총리가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라고 역설한 그 데이터 고속도로 위에서, 북동부의 찻잔 속 태풍이었던 한류가 인도 전역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기폭제는 2020년의 코로나19였습니다. 모디 정부가 내린 전국적 봉쇄(Lockdown)는 세계에서 길고 엄격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갇힌 14억 인구가 스마트폰과 OTT 플랫폼으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MX플레이어 같은 플랫폼들은 영미권 콘텐츠가 바닥나자, 신선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쉬운 K-드라마를 공격적으로 전면 배치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태원 클라쓰>가 인도 중산층의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이 터졌습니다.

이 시기 넷플릭스 인도에서 K-드라마의 시청률은 전년 대비 370% 이상 폭증했습니다. 볼리우드 특유의 과장된 연출과 3시간짜리 상영 시간, 필수적인 군무와 노래에 피로감을 느끼던 인도 시청자들에게, 16부작의 정교한 구성과 절제된 감정선, 세련된 영상미를 갖춘 한국 드라마는 완전히 새로운 문법이었습니다. OTT 플랫폼들은 힌디어, 타밀어, 텔루구어 더빙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는 영어를 구사하는 도시 엘리트에 국한되었던 한류 소비층을 소도시와 농촌의 대중으로 확장했습니다. MX플레이어는 'K-Drama' 카테고리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특이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볼리우드, 할리우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축이 된 것입니다.

북동부의 반군이 볼리우드를 금지했을 때 그들이 만든 것은 문화적 진공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그 진공을 메웠고, 모디 정부의 디지털 혁명이 그것을 전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금지에서 시작된 대안이 주류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9.2 BTS·블랙핑크와 Z세대: 1,500만 소비자, 커버댄스·팬아트 창작

मुंबай의 한 대학교 축제 무대 위에서 열일곱 살 소녀 다섯 명이 블랙핑크의 안무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은 K-팝 콘서트 현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한 참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유튜브로 안무를 배웠어요. 한국어 가사도 거의 외웠어요. 선생님이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고 물으면 대답하죠. '제 꿈은 서울에 가는 거예요.'"

이 풍경은 인도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평균 연령 28세, 3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젊은 나라입니다. 페이스북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내 K-팝과 K-드라마의 적극적 소비자는 약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국가의 전체 인구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 K-팝 팬덤 규모에서 인도는 이미 6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BTS는 인도 Z세대에게 음악 그룹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Love Yourself' 메시지는 인도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 예기치 않은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의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극심한 학업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IIT(인도공과대학) 입시의 합격률은 1~2%에 불과하고, 시험에 실패한 학생의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카스트 제도의 그림자, 가부장적 가족 구조, 동성

에 혐오가 여전히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BTS의 메시지는 이 억압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도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한 인도 팬의 말을 빌리면, “BTS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블랙핑크는 여성 팬층에 다른 종류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표현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블랙핑크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당당함, 자신감, 스타일의 자율성은 인도 소녀들에게 ‘자기 결정권’의 시각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블랙핑크의 패션과 메이크업은 모방의 대상을 넘어, 보수적 사회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선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인도 팬들이 수동적 소비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프로슈머(Prosumer)’, 즉 생산하는 소비자입니다. 주인도 한국문화원(KCCI)이 매년 개최하는 ‘전인도 K-팝 콘테스트(All India K-Pop Contest)’에는 수천 팀이 참가합니다. 예선전은 인도 전역의 도시에서 열리고, 본선에 오르는 팀만 1,200개가 넘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 인도 대표로 참가합니다.

커버 댄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는 인도 팬들이 직접 그린 BTS 팬아트, 창작 팬픽(Fan Fiction),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쏟아집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서는 조직적인 팬클럽이 스트리밍 캠페인을 기획하고, 아이돌 생일에 맞춰 자선 활동을 벌입니다. 2022년 BTS 멤버 정국이 인도 영화 ‘RRR’의 주제곡 ‘나투나투(Naatu Naatu)’를 흥얼거리는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인도 아미(ARMY)들은 소셜 미디어를 도배하며 열광했습니다. 한국의 팝스타가 인도의 문화를 소비하고, 인도의 팬이 다시 한국 스타에 열광하는 쌍방향 문화 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열풍은 언어의 장벽마저 허물었습니다. 글로벌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Duolingo)에서 한국어는 인도 내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외국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라이브 방송을 자막 없이 보겠다는 열망이 수십만 명의 인도 청소년을 한국어 교실로 이끌었습니다. 인도 내 한국어 학습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듀오링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어는 인도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외국어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2020년, 모디 정부가 발표한 국가교육정책(NEP 2020)은 한국어를 인도 학교의 제2외국어 권장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어가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문화원과 주한 인도대사관의 공동 건의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폭발적 수요였습니다(제7장 7.1 참조).

K-팝은 인도 사회에서 예기치 않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종교, 지역, 언어로 끊임없이 분절되는 인도 사회에서, K-팝 팬덤은 이 모든 경계를 무시하는 ‘중립적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브라만(최상위 카스트) 소녀와 달리트(불가촉천민) 소년이 같은 커버 댄스 팀에서 춤을 추고,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같은 팬클럽에서 활동합니다. K-팝이라는 공통 분모 앞에서 인도의 고질적인 사회적 장벽은 잠시 녹아내립니다. 한 인도 문화 연구자의 표현을 빌리면, “K-팝은 인도 청년들에게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평등한 취향’의 상징”입니다.

1,500만이라는 숫자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는 8억 명을 넘어섰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K-팝을 접하지 못한 수억 명의 인도 청소년이 잠재적 소비자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마케팅에 K-팝 이미지를 활용하고, 한국 기업들이 Z세대 타겟 마케팅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3 K-뷰티·K-푸드·K-패션: 라이프스타일 전반 확산

드라마와 음악으로 시작된 동경은 스크린을 넘어 인도인들의 화장대, 식탁, 옷장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소비 패턴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K-뷰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약진은 '유리알 피부 (Glass Skin)'라는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 전통적으로 인도 뷰티 시장은 짙은 색조 화장, 강한 아이라인, 밝은 피부톤을 강조하는 서구 브랜드가 장악해 왔습니다. K-드라마 속 배우들의 투명하고 촉촉한 피부는 이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색조로 덮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한국식 스킨케어 철학이 인도 여성들의 뷰티 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인도 K-뷰티 시장은 2024년 약 4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1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25.9%로, 인도 전체 뷰티 시장 성장률(12%)의 두 배가 넘습니다. K-뷰티 구매자 수도 2024년 약 1,190만 명에서 2030년 2,7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도 최대 뷰티 플랫폼 나이카(Nykaa)에서 한국 브랜드는 플랫폼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알엑스(COSRX), 토니모리(TONYMOLY), 더페이스샵(The Face Shop), 라네즈(LANEIGE) 같은 브랜드가 인도 여성들의 스킨케어 루틴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인도에서 통한 이유 중 하나는 의외의 접점에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Ayurveda)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인삼, 녹차, 달팽이 점액, 시카(Cica) 같은 천연 성분을 강조하는 한국 화장품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화학 성분보다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K-뷰티의 철학이 아유르베다의 자연주의 전통과 맞닿는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10단계 스킨케어 루틴, 시트 마스크, 에센스, 토너 패드 같은 제품군은 유튜브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소개를 거쳐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K-푸드의 확산은 더 극적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 소주잔을 부딪치는 장면은 인도 시청자들의 식욕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한국 라면이 인도에서 성공한 배경에는 인도인들의 매운맛 선호가 있습니다. 마살라와 칠리에 단련된 인도인의 미각에게 한국 라면의 매운맛은 낯선 도전이 아니라 익숙한 쾌감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이 연결의 상징입니다. 유튜브에서 시작된 '불닭볶음면 챌린지(Fire Noodle Challenge)'는 인도 전역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처럼 번졌습니다. 삼양식품의 2024년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 3,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 100개국에서 연간 10억 개 이상 판매되는 글로벌 히트 상품이 되었고, 인도는 이 성장의 핵심 시장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마트 수입 코너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한국 라면이 이제는 블링크(Blinkit), 제프토(Zepto) 같은 퀵커머스 앱을 거쳐 10분 안에 배달됩니다. 떡볶이, 김밥, 김치찌개는 델리와 뭄바이의 레스토랑 메뉴판에 올랐습니다. 인도의 특수한 식문화를 고려한 현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채식주의자인 점을 고려해 젓갈을 뺀 비건 김치, 고기 성분을 제거한 채식 라면이 출시되었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도를 위해 닭고기와 양고기 베이스의 한식 메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은 미각의 체험을 넘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먹던 그 음식을 나도 먹는다"는 문화적 만족감을 줍니다.

K-패션의 확산 속도도 무섭습니다. <이태원 클라쓰>의 박서준 스타일, <오징어 게임>의 트레이닝복, 블랙핑크의 무대 의상은 인도의 온라인 패션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형 패션 이커머스 민트라(Myntra)와 아지오(Ajio)에는 'K-Drama Style', 'K-Pop Fashion'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오버사이즈 티셔츠, 버킷햇, 파스텔 톤 의류, 카고 바지가 인도 대학가의 유니폼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원색적인 인도 전통 의상과 대조되는 한국 패션의 단정하고 미니멀한 미학은 도시 청년들에게 '세련된 현대성'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라이프스타일 확산의 밑바닥에는 삼성, LG, 현대차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30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제8장 8.1, 8.3 참조). 인도 가정의 거실에는 삼성 TV가, 주방에는 LG 냉장고가, 차고에는 현대차가 있는 풍경은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에 대한 거부감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 신뢰가 화장품, 식품, 패션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입니다. 한국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로 인식하던 인도 소비자들이 이제는 'ढाँद고 싶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9.4 역사적 유대와 심리적 거리의 축소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서기 48년 허황후(許黃后) 전설로 거슬러 올라가는 2,000년의 인연, 1929년 타고르가 한국에 보낸 시, 그리고 2018년 아요디아 디포츠사브 축제에서 김정숙 영부인이 주빈으로 초대받은 일까지, 양국을 잇는 실타래는 여러 겹으로 엮여 있습니다(제7장 7.1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역사적 토대가 현대의 한류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입니다.

문화 수용에는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콘텐츠라도, 그것이 완전히 낯선 문화에서 온 것이라면 수용에 저항이 생깁니다. 허황후 전설과 타고르의 시,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우호적 교류는 한국을 인도인들에게 '완전한 타국'이 아닌 '먼 친척'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K-드라마가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깊은 기저에는 이 심리적 거리의 축소가 있습니다.

정서적 공통분모도 작용합니다. 한국의 '정(情)' 문화와 유교적 가치관은 대가족 중심의 인도 사회 정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할리우드 콘텐츠가 개인주의와 자유분방함을 다룬다면, 한국 콘텐츠는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순수한 사랑, 권선징악 같은 가치를 현대적 세련미로 포장하여 전달합니다. 인도인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자신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깊이 공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남인도의 타밀어(Tamil)와 한국어 사이에 '엄마', '아빠' 같은 유사 단어가 수백 개 존재한다는 학설은 이 친밀감에 학문적 근거를 더합니다. 두 언어 사이의 음운적·문법적 유사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대에 해양 무역로를 거친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학설 자체가 양국 국민 사이에 '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음식은 이 문화적 융합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매운맛을 즐기는 인도의 식습관과 한국의 음식 문화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인도의 로티(roti)나 난(naan) 옆에 김치가 놓이고, 한국의 양념치킨 소스가 인도의 파니르(paneer) 요리에 접목됩니다. 일방적인 문화 전파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 힌두교의 성스러운 도시 중 하나인 이곳에서 열린 디포츠사브(Deepotsav) 축제에 김정숙 영부인이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수만 개의 기름등잔이 사라유(Sarayu) 강변을 밝히는 이 축제에서, 힌두 민족주의의 성지에 한국의 영부인을 초대하는 것은 파격이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한국과 인도가 2,000년 전부터 피로 엮인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허왕후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아요디아와 한국의 김해를 잇는 이 서사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인도인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9.5 경제적 파급: 호감도 84.5%(세계 2위), 제품 구매의향 70% 이상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26개국 2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 인도의 한국 문화 콘텐츠 호감도는 84.5%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86.3%)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인도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은 85.3%로, 이 항목에서는 UAE(85.9%)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38.8%)이나 이탈리아(48.7%)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 호감도는 곧장 지갑을 엽니다. 같은 조사에서 한류 경험자의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은 인도가 70.7%로, 이집트(75.6%), 사우디아라비아(73.0%), UAE(72.9%), 베트남(72.1%)에 이어 세계 5위권에 들었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한국 제품은 음식(64.7%), 한국 여행(61.8%), 한국 식당 방문(61.4%), 화장품(54.0%), 의류(52.8%) 순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소비가 관련 산업의 구매로 이어진다고 답한 비율은 57.9%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한국 기업의 현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SUV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인도 백색가전 시장의 선두 그룹입니다. 이들 기업이 3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현지화 전략의 성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류가 이 기업들에게 안겨준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입니다.

1990년대 후반, LG와 삼성이 처음 인도에 진출했을 때 한국은 '가성비 좋은 가전을 만드는 나라' 정도의 이미지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제품과의 차별화는 쉽지 않았습니 다. 한류가 이 인식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련되고 힙(hip)하고 닳고 싶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선진국'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몰고, LG 가전을 쓰는 것은 '합리적 선택'을 넘어 '트렌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중국 제품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2020년 이후 인도-중국 국경 갈등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제품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 전담 원스톱 서비스인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를 설치하고, 투자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 모디 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이것이 메이커인 인디아의 성공 모델"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한국 제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증이었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제7장 7.2 참조).

한류의 경제적 파급은 대기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크래프톤의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GMI)'는 인도의 국민 게임으로 등극했습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인도의 국민 간식이 되었습니다. K-뷰티 시장은 2030년까지 1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K-푸드는 인도의 거대한 가공식품 시장에서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웹툰, 게임 같은 서비스 산업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밋빛 수치 뒤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같은 KOFICE 조사에서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인도에서 52.7%로, 전체 26개 조사 대상국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24.9%)", "단조롭고 진부하다(22.0%)", "지나치게 상업적(21.1%)"이라는 반응이 주요 부정 요인이었습니다. 한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반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84.5%라는 호감도와 52.7%라는 부정 인식이 공존하는 이 역설은, 한류가 인도에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신선함이 퇴색하면서 '콘텐츠의 질'과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다음 단계의 과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볼리우드와의 경쟁도 여전히 치열합니다. TV와 라디오의 프라임 타임은 여전히 인도 영화 음악이 장악하고 있으며, K-팝이 인도의 주류 음악 시장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84.5%라는 호감도와 70%가 넘는 구매 의향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14억 인구의 마음에 닿은 한류는 유행이 아니라, 한국과 인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구조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인도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 그 숫자가 어떤 정치적 선언이나 외교적 수사보다 두 나라의 미래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제10장. 3연임과 2047년의 꿈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10.1 2024년 총선: 연립 정부 구성, 3연임

2024년 6월 4일 오후, 뉴델리의 BJP 본부. 대형 전광판에 개표 결과가 올라올 때마다 당사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240. 숫자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선거 전 모디 총리가 직접 의회에서 "BJP 단독 370석, NDA 400석 돌파"를 장담했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과반선 272석에 32석이 모자란 240석.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선거 자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민주주의 행사였습니다. 등록 유권자 9억 7천만 명. 투표소 105만 곳.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44일간 7단계에 걸쳐 치러진 이 선거에 6억 4,200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히말라야 해발 4,000미터 산골 마을에는 코끼리 등에 전자투표기(EVM)를 싣고 올라갔고, 라자스탄 사막에서는 낙타가 투표 장비를 날랐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전 국민이 한 달 반 동안 돌아가며 투표하는 셈입니다.

선거 전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성공적 외교 무대, 찬드라안 3호의 달 남극 착륙, 7~8%대의 고속 성장. 모디의 '강한 인도' 이미지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브키 바르 400 파르(이번에는 400석 돌파)." 선거 슬로건은 아예 개헌 가능성까지 넘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출구조사들도 일제히 BJP의 압승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개표함을 열자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충격의 진원지는 아요디아(Ayodhya)였습니다. 모디가 2024년 1월 직접 봉헌식을 주재한 람 사원이 있는 곳, 힌두 민족주의의 심장부인 파이자바드(Faizabad) 선거구에서 BJP 후보가 떨어진 것입니다. 30년에 걸친 힌두트바 운동의 숙원이 이루어진 바로 그 도시에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제5장 5.1 참조).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주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80석 중 BJP가 가져간 것은 33석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에는 62석을 휩쓸었던 곳입니다. 대신 야당인 사마즈와디당(SP)이 37석을 차지하며 약진했습니다.

무엇이 '모디 매직'의 효력을 약화시켰을까요.

전문가들은 화려한 거시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서민의 고통을 지목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광범위한 빈곤, 높은 청년 실업률, 물가 상승이 BJP의 선거 야망을 좌절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7%가 '실업'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GDP가 8.2% 성장했다는 숫자는 뭍바이의 고층 빌딩과 방갈로르의 IT 캠퍼스에서는 실감이 났지만, 비하르 농촌의 청년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야당 연합 '인디아(INDIA, Indian National Developmental Inclusive Alliance)' 블록의 선전이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이끄는 의회당(Congress)은 52석에서 99석으로 거의 배로 늘었고, INDIA 블록 전체로는 234석을 확보했습니다. 라훌 간디가 밀어붙인 "BJP가 400석을 넘기면 헌법을 뜯어고칠 것"이라는 내러티브는 예상 이상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달리트(Dalit)와 기타후진계층(OBC) 유권자들 사이에서 "내 예약 할당제(reservation)가 없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할당제는 달리트와 OBC에게 교육과 공직 진출의 거의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 앞에서, 람 사원의 감동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모디는 지역 정당들과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안드라 프라데시의 찬드라바부 나이두(Chandrababu Naidu)가 이끄는 텔루구 데삼당(TDP) 16석, 비하르의 니티시 쿠마르(Nitish Kumar)가 이끄는 자나타 달 연합(JD-U) 12석. 이 두 정당이 '킹메이커'가 되었습니다. NDA(국민민주동맹) 전체로 293석을 모아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지만, 이것은 2014년 336석, 2019년 353석과는 결이 다른 승리였습니다.

6월 9일, 모디는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Rashtrapati Bhavan)에서 세 번째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초대 총리가 1962년 달성한 이래 62년 만의 3연임. 역사적 기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누려왔던 '제왕적 총리'의 지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연립 파트너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지역적 요구—재정 배분, 인프라 투자, 일자리, 주(州) 권한 확대—를 수용해야 하는 '조정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에 빗대면, 대통령 단독 국정 운영에서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로 전환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밀어붙이기의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합의를 거친 정책의 내구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가 '정책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권의 배분'으로 흐를 것인가입니다. 모디 3기의 출발선은 바로 이 딜레마 위에 놓였습니다.

모디는 취임 후 당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아픔(Tees)"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압승이 아닌 승리가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짜이왈라 출신의 정치인이 74세의 나이에 세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면서 직면한 것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권력의 재정의였습니다.

10.2 모디 3기 개혁: 노동법 통합, GST 개편, FTA 체결, 세계 4위 경제

연립 정부라는 새로운 정치적 조건 아래서도, 모디 3기 정부의 경제 개혁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에서 드러난 '서민 경제의 고통'이라는 숙제가 개혁의 속도를 재촉했습니다. 모디는 2025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차세대 개혁 태스크포스(Task Force for Next-Generation Reforms)"의 구성을 발표하며, "개혁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신념의 첫 번째 시험대는 노동법이었습니다.

인도의 노동법은 '규제의 정글'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앙정부 법률만 29개, 주 정부 규정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1947년 독립 이후 시대별로 덧붙여진 법률들이 서로 모순되고, 같은 사안을 다른 법이 중복 규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이 각각 20개씩 존재하는 상황을 상상하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늘릴수록 준법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 채용을 꺼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설이 벌어졌

습니다.

모디 정부는 이 복잡한 법률들을 네 개의 노동 코드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임금 코드(Wages), 노사관계 코드(Industrial Relations), 사회보장 코드(Social Security), 산업안전·보건·근로 조건 코드(OSH). 법안 자체는 이미 2기 때 의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은 정치적 고려와 노조의 반발, 주 정부들의 미온적 태도로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3기 정부는 이 숙제를 밀어붙일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기그 워커(Gig worker)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연금(PF)과 보험(ESI) 혜택을 확대하고, 여성의 야간 근무를 허용하며, 기업의 해고와 고용 절차를 투명하게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이 되려면,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고용을 감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노이다(Noida)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짓고, 현대자동차가 첸나이(Chennai)에서 연간 80만 대를 생산하는 것은 인도 제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노동법의 경직성은 여전히 투자를 결심하는 외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입니다.

두 번째 축은 GST(상품서비스세, Goods and Services Tax) 체계의 고도화입니다. 2017년 도입된 GST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금”이라는 기치 아래 인도를 단일 시장으로 묶어낸 역사적 성과였습니다(제4장 4.4 참조). 주마다 제각각이던 간접세를 통일해 물류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세수 기반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한 세율 구간(0%, 5%, 12%, 18%, 28%)과 빈번한 규정 변경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모디 3기 정부는 이 세율 구간을 5%와 18% 두 개로 대폭 줄이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일상 소비재와 의약품의 세율을 낮추고, 소형차,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에 대한 세율도 낮추거나 면제하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20만 루피(약 1,900만 원, 12 lakh rupees) 이하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도 시행했습니다.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포석입니다.

세 번째 축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모디 정부는 보호무역과 전략적 개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막판에 빠져나간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양자 협정에서는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UAE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2022년 5월 발효), 호주와의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2022년 12월 발효)에 이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의 무역경제동반자협정(TEPA)을 2024년 3월 서명하고 2025년 10월 발효시켰습니다. EFTA 측은 15년간 1,000억 달러의 대인도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영국과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체결도 타결되었고, EU와의 FTA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의 목표는 하나의 숫자로 수렴합니다. 세계 4위 경제. IMF의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인도의 명목 GDP는 4조 1,870억 달러에 도달하여 일본(4조 1,860억 달러)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했습니다. 2014년 모디 취임 당시 세계 10위였던 경제가 11년 만에 4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네 번째 자리. 1인당 GDP도 같은 기간 1,438달러에서 2,880달러로 두 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순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위를 지탱하는 산업의 질입니다. GDP 6%대 성장이 서비스업과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제조업이 고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면, 인도는 ‘큰 나라의 큰 내수 시장’으로만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숫자는 올라갔습니다. 그 숫자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올라갔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10.3 비크시트 바라트 2047: 독립 100주년 선진국 진입 비전

20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렌드라 모디는 이 해를 향해 하나의 거대한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비크시트 바라트(Viksit Bharat). '발전된 인도', 즉 선진국 인도입니다. 그는 현재부터 2047년까지의 25년을 '암리트 카알(Amrit Kaal, 감로의 시대, 황금기)'이라 명명하며, 이 기간 동안 인도가 개발도상국의 껍데기를 벗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목표 수치는 야심 찹니다. GDP 30조~40조 달러. 1인당 소득 15,000~18,000달러. 빈곤률 5% 이하. 기대수명 80세 이상. 문해율 100%. 현재 인도의 1인당 소득이 약 2,880달러임을 감안하면, 22년 안에 5~6배를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평균 7~10%의 실질 성장을 22년간 유지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간 연평균 8~9% 성장하며 이룬 '한강의 기적'과 비슷한 속도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다만 한국은 당시 인구 3,000만~4,000만이었으며, 인도는 14억입니다.

모디는 이 비전의 정신적 토대로 '5대 결의(판치 프란, Panch Pran)'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선진국 도약이라는 확고한 목표. 둘째, 식민지적 사고방식의 완전한 탈피. 셋째,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자부심. 넷째, 국가 통합과 연대. 다섯째, 시민의 의무 이행. 경제 수치만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프로젝트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인디아(India)' 대신 '바라트(Bharat)'라는 고대 산스크리트어 국호가 적힌 명패를 사용한 것은 이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비전의 물리적 토대는 인프라입니다. '가티 상티(Gati Shakti)'로 불리는 국가 인프라 마스터플랜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망 건설 계획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16개 중앙 부처와 주 정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GIS 기반으로 연결하여, 도로를 깔았는데 다음 달에 다시 파서 가스관을 묻는 식의 비효율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모디는 지난 10년간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낡은 철도를 현대화했으며, 공항 수를 74개에서 149개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2047년의 인도에는 뭄바이-델리 간 고속철도가 달리고, 스마트 시티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라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핵심 동력은 인구입니다.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었습니다. 평균 연령 28세. 전 세계가 고령화로 신음할 때, 인도만이 향후 30년간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거대 경제권입니다. 모디는 이 '인구 배당 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을 비전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PM 비크시트 바라트 로즈가 요자나(PM Viksit Bharat Rozgar Yojana)'라는 1조 루피(약 160억 달러) 규모의 고용 계획을 발표했고, 3천만 명의 청년에게 취업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 정책(NEP 2020)을 개혁하여 코딩, AI, 로봇공학 등 미래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도 청년 전략의 일환입니다.

에너지와 우주는 비전의 양 날개입니다. 모디는 2025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10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비화석연료 에너지 비중 50%라는 2030년 목표를 2025년에 조기 달성했다고 발표하며, 그린 수소와 태양광 분야에서의 세계적 리더십을 자임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독자 우주 정거장 '바라티야 안타릭시 스테이션(Bharatiya Antariksh Station)' 건설 계획을 세우고, 가가냐안(Gaganyaan)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제6장 6.4 참조). 300개 이상의 우주 스타트업이 위성 기술과 우주 탐

사 혁신에 뛰어들었습니다. 2023년 찬드라얀 3호의 달 남극 착륙 성공이 열어준 문이 민간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정치적으로 유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위대함으로 정당화”하는 데 장거리 목표만큼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이 수십 년에 걸친 구체적 산업 정책과 교육 투자의 누적으로 이루어졌듯, 비크시트 바라트도 슬로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측정 가능한 중간 목표로 쪼개져야 합니다. 제조업 고용 비율, 교육 성취도, 행정 디지털화 수준, 기후 적응 역량. 이런 것들이 숫자로 따라붙지 않으면, 2047년이 가까워질수록 비크시트 바라트는 비전에서 허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모디는 국민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쿼텀 점프를 원합니다.” 그 점프가 14억 명 모두를 태우고 갈 수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0.4 남겨진 과제: 불평등 심화, 청년 실업, 제조업 정체, 민주주의 후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모디 시대 인도의 그림자는 네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등. 인도의 경제 성장은 ‘K자형’입니다. K자의 위쪽 획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다니(Adani), 암바니(Ambani) 같은 재벌 그룹은 항만, 공항, 에너지, 통신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며 천문학적 부를 축적했습니다(제5장 5.4 참조). 프리미엄 SUV, 고급 아파트, 명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이 그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K자의 아래쪽 획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하르 농촌에서 하루 200루피(약 3,200원)에 일하는 농업 노동자, 뭄바이 다라비 슬럼에서 쪽방에 사는 일용직 가족. 옥스팜(Oxfam)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가 8억 명 이상에게 무료 식량을 배급해야 하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그 성장이 얼마나 불균등한지를 보여줍니다. 무료 식량 프로그램은 선정(善政)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8억 명이 스스로 먹고살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청년 실업. 이것이 네 과제 중 제일 뼈아픈 것입니다. 인도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25년 기준 약 14.9%입니다. 여성 청년의 경우 16.3%에 달하고, 케랄라주의 여성 청년 실업률은 44%에 이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다. 하위직 공무원 1만 명 모집에 수만 명의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가 몰리는 풍경은 인도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인도의 규모는 차원이 다릅니다. 매년 1,200만 명의 젊은이가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매년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셈입니다. ‘인구 배당 효과’가 모디 정부의 자랑이지만, 배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과 기술 훈련이 산업의 수요와 맞물리지 않으면, 인구 배당은 ‘인구 재앙(Demographic Disaster)’으로 바뀝니다.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고전한 결정적 이유도 바로 이 청년들의 분노였습니다.

세 번째, 제조업 정체. 모디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외치며 제조업 GDP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2014년 약 17%에서 오히려 13~15%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 현대, 애플 협력사인 폭스콘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투자가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동화와 기술 집약적 생산 방식 때문입니다. 로이 연구소(Lowy Institute)

는 “인도의 GDP 성장이 고용 유발 효과가 적은 서비스업과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FDI도 기대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도 중앙은행(RBI)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GDP 대비 FDI 비율은 2016년 1.7%에서 0.5%대로 급락했습니다.

인도가 ‘세계의 공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인프라 부족, 토지 수용의 어려움, 전력과 용수의 불안정, 복잡한 관료주의, 예측 불가능한 세무 행정.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풀려야 하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인도의 전체 노동 인구 중 40% 이상이 여전히 저소득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얼마나 지체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민주주의 후퇴. 이 문제는 경제 지표로 측정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네 과제 중 제일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25년 보고서에서 인도를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로 분류하며,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고 기록했습니다. V-Dem 연구소는 인도를 ‘선거 권위주의(Electoral Autocracy)’ 국가로 분류합니다(제5장 5.3 참조).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세무 조사,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 기관 동원, 무슬림 소수자에 대한 배제적 정책과 혐오 발언. ‘고디 미디어(Godi Media)’라는 조어가 등장할 만큼 주류 언론의 정부 친화적 변질도 지적됩니다.

시민권법 개정(CAA),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370조 폐지), 아요디아 람 사원 건설. 이 세 가지는 힌두 민족주의의 핵심 의제이자, 동시에 인도 사회의 종교적 분열을 심화시킨 정책입니다. 14억 인구 중 2억이 넘는 무슬림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회가 과연 통합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지는, 인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2024년 총선에서 당선된 543명의 하원 의원 중 무슬림은 24명뿐이었고, 이 중 NDA 소속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무슬림이 하원 의석의 5%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은, 대표성의 위기를 숫자로 말해줍니다.

모디 시대의 인도는 속도와 규모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모든 사람을 태우고 갔는지, 그 규모가 모든 사람에게 닿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뉘지 않는 사회에서, 성장은 결국 불안정의 연료가 됩니다.

10.5 한국 독자 시사점: 14억 인구 파트너의 전략적 가치와 리스크

이 책을 읽는 한국 독자에게 인도는 어떤 나라여야 할까요. ‘장밋빛 기회의 땅’도 아니고 ‘절망적인 혼돈의 나라’도 아닙니다. 인도는 기회와 리스크가 같은 속도로 커지는 나라입니다.

전략적 가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은 한국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해야 한다면, 14억 인구와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28세의 젊은 평균 연령을 가진 인도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인구 1억, 인도네시아는 2.7억. 규모에서 인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제8장 참조). 현대자동차의 2024년 인도 증시 사상 최대 IPO, 삼성전자 노이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 K-9 자주포 ‘바지라(Vajra)’의 인도군 배치 등은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모디 정부의 PLI(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한국의 제조 기술과 하드웨어 역량, 인도의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과 풍부한 인력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고, 인도는 인구가 넘칩니다. 한국은 기술이 있지만 시장이 작고, 인도는 시장이 있지만 기술 기반이 약합니다. 퍼즐 조각이 들어맞는 구조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인도는 한국과 묘하게 닮은 딜레마를 공유합니다(제7장 참조). 미국의 핵심 파트너이면서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전략적 자율성'의 외교. 쿼드(QUAD)에 참여하면서도 BRICS에도 이름을 올리는 양다리.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 인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딜레마는 양국이 서로의 외교적 공간을 넓혀주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2025년 4월 카슈미르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그에 따른 인도-파키스탄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인도 경제의 성장 서사가 언제든 안보 위기로 중단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이 지역의 안보 불안정은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직시해야 합니다.

인도는 '세계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실패하고 철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벽은 예측 불가능한 행정입니다. 약속했던 인센티브가 소급 취소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조세 테러'에 가까운 사례가 보고됩니다. 전력 공급의 불안정, 용수 부족, 열악한 도로 상태 같은 기초 인프라 문제도 여전합니다. 주(州)마다 다른 법률 체계, 복잡한 토지 수용 절차, 관료주의적 인허가 과정. 모디 정부가 '레드 테이프(관료주의)'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정책이 수입 규제와 관세 장벽 강화로 작동할 때,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인도와 어떤 관계를 설계해야 할까요.

인도를 '수출 시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장기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진출하면 실망합니다. 인도의 제도, 문화, 노동 환경을 깊이 이해하는 '인도 특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고,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공정한 환경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외교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현지화(Localization)를 넘어 현지 사회와의 공존(Co-existence)을 설계해야 합니다. 공장만 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 위생,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 기업 시민의 모습이 브랜드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을 "경제 발전의 롤모델"로 여기며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구자라트를 한국처럼 만들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짜이를 팔던 소년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고민할 때 눈에 들어온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 우호적 분위기를 자산으로 활용하되, 감정에 기대지 않는 냉철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47년, 독립 100주년의 인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모디가 꿈꾸는 대로 30조 달러 경제의 선진국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빈부 격차와 종교 갈등에 시달리는 거대한 모순의 나라로 남아 있을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인도는 늘 그래왔습니다. 눈부신 성취와 뿌리 깊은 모순이 한 몸에 공존하는 나라.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그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상호 이익의 접점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거대한 코끼리와 나란히 걸으려면, 코끼리의 보폭과 습성을 이해하고 호흡을 맞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4억의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다음 30년을 결정짓는 열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다음 장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에필로그: 짜이 한 잔의 거리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델리 코넛 플레이스(Connaught Place) 뒷골목에 짜이왈라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양은 냄비의 찌그러진 각도와, 우유를 부을 때 그의 손목이 꺾이는 방향, 그리고 짜이 한 잔에 15루피를 받으면서 거스름돈 대신 건넨 웃음입니다.

나렌드라 모디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드나가르역 플랫폼에서 짜이를 팔던 소년. 이 사실을 모디는 좋아합니다. 선거 때마다 꺼내고, 유세장에서 울먹이며 말하고, 인도 전역의 짜이왈라들이 자기와 동일시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짜이왈라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서사는 인도판 아메리칸 드림이고, 그것은 실제로 수억 명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코넛 플레이스 뒷골목의 그 짜이왈라는 총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15루피짜리 짜이를 팔 겁니다. 아들이 있다면 아들도 짜이를 팔거나, 운이 좋으면 우버 기사가 되겠죠. 모디의 인도에서 GDP는 세계 4위로 올랐습니다.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를 통한 디지털 결제 건수는 연간 2,280억 건을 넘어섰고, 세계가 그 시스템을 부러워합니다. 달에 탐사선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짜이왈라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

다. 이게 제가 이 책을 덮으며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20년 넘게 드나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모르는 것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10개의 장에 걸쳐 한 사람의 궤적을 따라갔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잡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 구자라트 폭동 때 그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법원은 무혐의라고 했고, 반대편은 학살의 방조자라고 합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어딘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디 자신만이 알 겁니다. 어쩌면 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오래 지속되면 기억도 편집됩니다. 이건 인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용산에서, 세월호에서. 국가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수십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디를 판결하는 대신, 질문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이태원에 가면 인도 식당이 있습니다. 해방촌 골목에도 있고, 동대문 근처에도 있습니다. 커피를 시키면 난(naan)이 나오고, 라씨를 시키면 망고 라씨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인도를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방에 서 있는 인도인 요리사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가 어떤 카스트 출신인지, 왜 한국까지 왔는지, 모디를 지지하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저도 오래도록 그랬습니다.

여행이 기쁨만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아닌 것처럼, 한 나라에 대한 이해도 커리 한 점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책이 그 커리 한 점시 너머에 있는 14억 명의 복잡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전달했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한 셈입니다.

한 가지 더. 한국과 인도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관들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삼성은 노이다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고, 현대차는 인도 주식시장 역대 최대 IPO를 기록했습니다. BTS를 따라 부르는 인도 청소년이 1,500만 명이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세계 2위입니다. 숫자만 보면 장밋빛입니다.

그런데 저는 첸나이 외곽의 한국 기업 공장 근처에서 만난 인도인 노동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이전 직장보다 세 배라고요. 그러면서 정전이 하루 서너 번은 된다고, 마시는 물이 좀 그렇다고, 한국인 관리자가 가끔 소리를 지르는 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면서도 웃습니다. 그 웃음을 낙천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체념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 2,000년 전 허왕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아유타에서 배를 타고 김해까지 왔다는 전설.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꺼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면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전설이 외교의 윤활유가 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윤활유만으로 엔진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진짜 엔진은 첸나이 공장의 그 노동자이고, 노이다 공장의 조립 라인이고, 델리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스무 살짜리 학생이고, 서울 대림동에서 인도 식재료를 파는 가게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양국 관계가 됩니다. 정상회담 사진보다 그 사람들의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궤적은 직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관광객을 향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치솟았습니다. 핵보유국 두 나라가 국경에서 대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GDP 4위 경제와 달 탐사 성공이 만들어낸 상승 곡선은 한 번의 총성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취약성까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모디는 2047년을 말합니다. 독립 100주년. 선진국 진입. 비크시 바라트(Viksit Bharat). 거창한 비전입니다. 그때 모디는 97세입니다.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도는 있을 겁니다. 14억 명이 아침에 일어나 짜이를 끓이고, 기차를 타고, 일터로 가고, 저녁에 로티를 뜯으며 크리켓 중계를 보는 나라. 모디가 있든 없든, 그 일상은 계속될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때로는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고 아이를 재웁니다. 국가는 그렇게 지속됩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비전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하루가 국가를 지탱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디라는 렌즈를 통해 14억 명의 나라를 들여다본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한국이라는 거울에 인도를 비추고, 인도라는 거울에 한국을 비추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항상 예쁘지

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짜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짜이를 마시면 종이컵이 아니라 작은 토기잔, 쿨하드(kulhad)에 나오는 데가 아직 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나면 잔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토기이니까 깨집니다. 그게 예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이 닿은 잔은 다시 쓰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이것 카스트의 잔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생 관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전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쿨하드가 깨지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작고 건조한 소리. 뭔가 끝났다는 소리. 이 책도 여기서 끝입니다.

다 읽고 나면 잔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도 식당에 가시거든, 짜이 한 잔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부터가 14억의 나라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전 장

전체 목차

목차 보기

김경진 AI서재

© 2026.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